





## ■ 목차

---

### I. 테마진단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 1
- 자동차보험 소비자 분석과 시사점 / 18

###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 46
- 2. 국내경제 / 65
- 3. 금융경제 / 78

### III.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84
- 2. 생명보험 / 87
- 3. 손해보험 / 101

###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1. 미국 동향 / 124
- 2. 영국 동향 / 131
- 3. 일본 동향 / 140
- 4. 중국 동향 / 148
- 〈부 록〉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과 유통채널 실태 / 157

부록 I. 통계표 / 191

부록 II.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198



---

# I. 테마진단

---

---

##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이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

김해식 연구위원 · 조재린 연구위원

### 1. 검토배경

이르면 2018년 시행 예정인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그러나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어 사례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이하 phase 2) 확정이 2015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보험산업 내 준비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그동안 phase 2는 보험부채 측정 개념과 방식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을 거친 끝에 2015년에 최종기준서가 확정될 예정임.
- 기준서 확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빠르면 2018년부터 phase 2가 시행됨.

■ 그런데 phase 2 논의가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에 미칠 영향에만 집중되고 있고 일반손해보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실정임

- phase 2 시행 시 현행 보험부채를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장래이익으로 세분하여 표시하여야하고 최선추정치의 준거 할인율이 자산운용수익률에서 무위험수익률로 바뀌게 되어 대부분의 논의가 장기보험계약의 준비금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러나 phase 2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영향도 적다고 볼 수 없어 간단한 수치 분석을 통해 경영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 phase 1 vs. phase 2

현재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phase 2는 이들 준비금을 최선추정치(BEL), 위험조정(RA), 장래이익(CSM)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보험계약의 보험부채에 대해서는 현재의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한 간편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가. IFRS 4 phase 1: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

■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부채는 크게 지급준비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UPR: Unearned Premium Reserve)으로 구성됨.

- 지급준비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로서 여기에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고되지 않은 보험사고(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에 대한 부채도 포함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사고에 대한 부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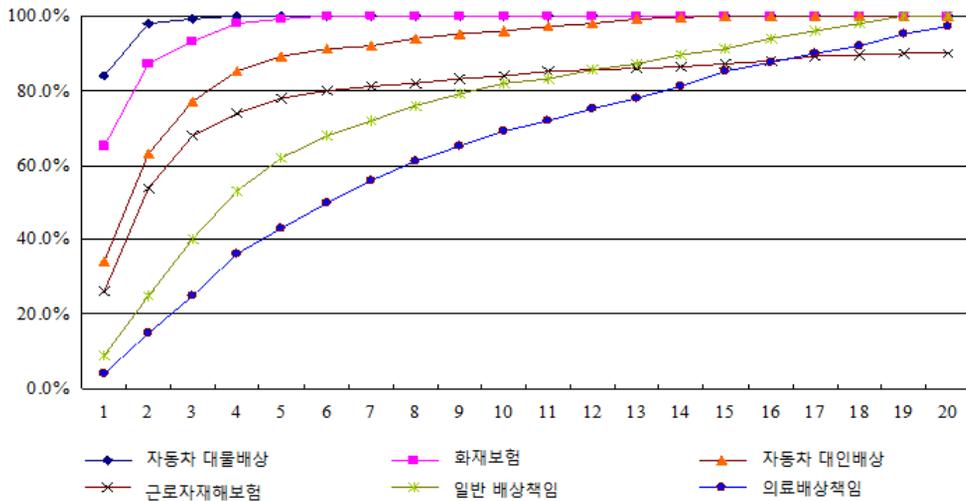
〈그림 1〉 phase 1 손해보험의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b>자산</b> . . . . • 이연신계약비 . .	<b>부채</b> • 지급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 . . <b>자본</b>	<b>수익</b> • 경과보험료 . . <b>비용</b> • 보험금 • 사업비 • 준비금 증가 .

■ 보험료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 경과(Earned; Expired Portion)보험료와 미경과(Unearned; Unexpired Portion)보험료로 구분함.

- 일반적으로 경과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는 결산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기간과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기간에 따라 배분함.
- 경과보험료는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당기에 지급한 보험금,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 그리고 준비금의 당기 증가분 등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함.
  - 이때, 신계약비 중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계약비는 장래 수익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에 이연자산으로 인식됨.
- 보험료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인 미경과보험료는 재무상태표에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이라는 부채로 적립하게 됨.

〈그림 2〉 지급준비금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연): 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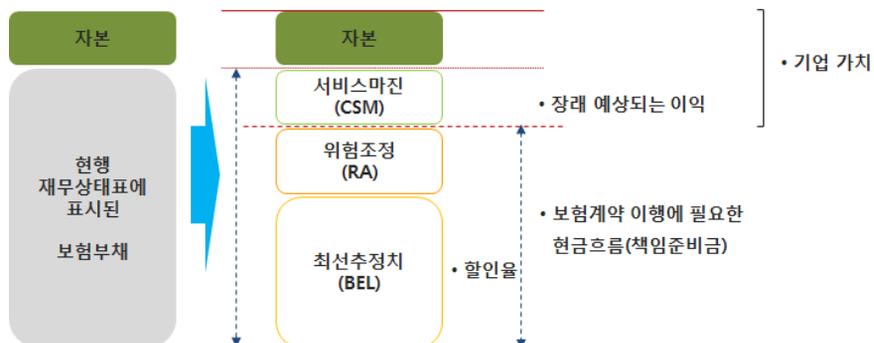
- 현행 회계기준(IFRS 4 phase 1, 이하 phase 1)에서는 일반손해보험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지급준비금에 시간가치를 반영하지 않으나, 종목에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
  - 지급준비금은 계약 만료 이후에도 보험사고가 해결될 때까지 부채에 남게 되므로 보험금 지급이 장기화할 경우 지급준비금의 시간가치 효과가 커지게 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과 재물보험은 단기간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는 계약 (Short-tail)인 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책임, 근재보험, 일반배상책임, 의료배상책임 등은 보험금 지급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장기 청산형(Long-tail) 계약임.
  - 미국의 경우 자동차대물배상은 2년에 불과한 반면, 의료배상은 20년이 소요됨.
- 그러나 현행 손해보험회계(phase 1)는 장기 청산형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 장기보험과 다르게 시간가치 반영을 요구하지 않음.

#### 나. IFRS 4 phase 2: BBA와 PAA

- phase 2는 장기보험과 단기보험의 보험부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함.
  - phase 2는 보험부채를 장래 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 위험조정, 장래이익으로 구분 (BBA: Building Block Approach)하여 표시함.
    -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s of Liabilities)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시간가치를 반영(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s)은 예상 밖의 손실에 대비하여 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임.
    - 장래이익(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은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이익으로서 서비스 제공 전의 이익 인식을 방지하고자 부채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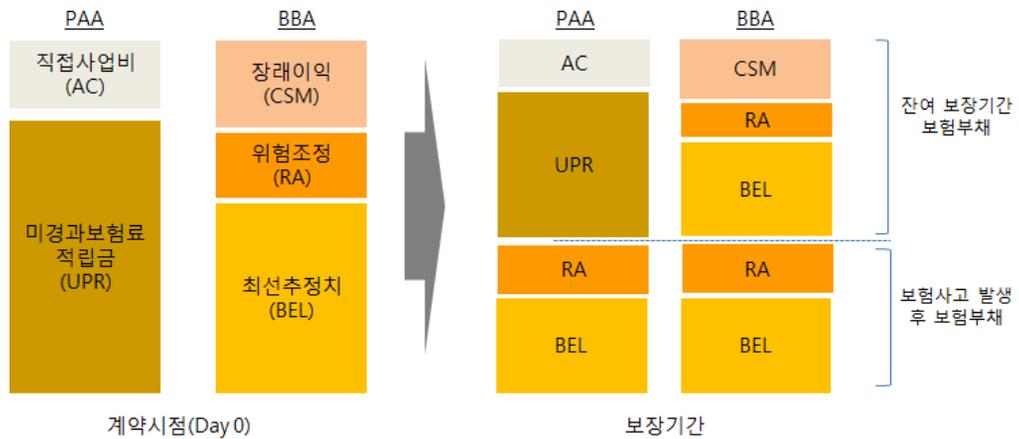
〈그림 3〉 IFRS 4 phase 2 BBA방식 보험부채 평가



자료: 김해식(2014).

-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BBA 방식보다 단순한 보험료할당방식(PAA: Premium Allocation Approach)을 적용할 수 있음.
- 보험료할당방식(PAA)에서 아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기간의 보험부채를 보험회사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만 표시하므로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유사함.
- 그러나 PAA에서도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을 BEL과 RA로 구분하여 표시하므로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과 차이가 있음.

〈그림 4〉 IFRS 4 phase 2: PAA와 BBA 비교



자료: Vlaminckx, D. et al.(2013).

### 3. phase 2 사례분석

보험회계기준이 phase 1에서 phase 2로 전환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이 인식되는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손해보험의 이익인식 패턴이 변하는 원인으로는 지급준비금에 대한 위험조정 반영과 손해액 발생 가정의 변화가 대표적임.

#### 가.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phase 1과 phase 2 적용

- 사례분석을 통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변화를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함.
  - phase 1과 phase 2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준비금에 있으므로 우선 지급준비금과 관련한 영향을 살펴보고, 이후 가정변경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 사례분석은 다음의 가정을 토대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함.<sup>1)</sup>
    - 시나리오 1, 2: 지급준비금에 대한 위험조정 반영 여부가 가져올 영향
    - 시나리오 3, 4: 최종 손해율과 손해액 발생 패턴(분포) 변화가 가져올 영향

#### 〈 가정 〉 PAA 적용 조건을 갖춘 일반손해보험 계약

- (1) 한 상품만 존재하고 보험기간 1년, 보험료 1000을 기초에 수금
- (2) 화폐 시간가치가 없음
- (3) 비용은 신계약비(보험료의 12%, 120), 손해조사비(8%, 80) 발생
  - 세금 없고, 손실계약 없음
- (4) 예상 최종손해율(ultimate loss ratio)은 보험료의 60%(600)
  - 재보험 없음
- (5) 발생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은 예상대로 발생하고 청산에는 1.5년 소요
  - 개별 추산금액에 IBNR을 포함한 금액으로 매기 말 발생
- (6) 초기 자본은 없음

1) Schneider, T. et al.(2014) 제시 사례를 참고함.

〈표 1〉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분포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300 (50%)	450 (75%)	600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300 (50%)	420 (70%)	540 (90%)	600 (100%)

〈 현행 방식(phase 1) 〉 미경과보험료방식

-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는 당기손익을 매분기 50씩 균등하게 인식
  - 계약시점에서 납입된 보험료 1000은 매분기 250씩 경과보험료로 인식하고, 최종손해를 60%에 따른 발생손해액 600은 매분기 150을 준비금증가(비용)로 인식하여 지급준비금(부채)을 적립함(〈표 2〉).
  - 지급준비금의 청산 소요기간은 1.5년, 즉 6개 분기가 소요됨(〈표 2〉).

〈표 2〉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150)	(150)	(150)	-	-
지급보험금	60	60	180	120	120	60
손해조사비 등	(20)	(20)	(20)	(20)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손익	<b>50</b>	<b>50</b>	<b>50</b>	<b>50</b>		

- 위 사례에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phase 2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부분균형분석을 통해 위험조정이나 손해액 하나의 변수만 변화시켜 phase 2 적용 영향을 분석함.

## 〈 시나리오 1 〉 위험조정 없음

■ 위험조정이 없다면(또는 위험조정 구분 요건이 없다면), phase 1과 phase 2 모두 매분기마다 50의 이익이 발생하는 당기순익 패턴에는 차이가 없음(표 2와 표 2.1, 표 2.2).

○ 다만, BBA가 PAA나 미경과보험료방식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

〈표 2.1〉 PAA 적용 손익(RA는 없다고 가정)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50	620	370	180	60	-
UPR	880	660 <sup>1)</sup>	440	220	-	-	-
BEL	-	90 <sup>2)</sup>	180	150	180	60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50	100	150	200	200	200
당기순익	-	<b>50</b>	<b>50</b>	<b>50</b>	<b>50</b>	-	-

주: 1) 매분기 경과보험료 250 중 사업비 30을 차감한 220이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서 경과보험료로 전환.

2) 발생손해액 150 중 보험금 60을 지급하여 1분기 말 지급준비금은 90.

〈표 2.2〉 BBA 적용 손익(RA는 없다고 가정)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50	620	370	180	60	-
CSM	200	150	100	50	-		
BEL	680	600	520	320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300	150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50	100	150	200	200	200
당기순익	-	<b>50</b>	<b>50</b>	<b>50</b>	<b>50</b>		

〈 시나리오 2 〉 위험조정 반영

- 위험조정을 지급준비금의 30%로 설정하여 반영할 경우 phase 1에 비해 phase 2에서 당기순익 인식이 뒤로 지연되는 결과가 나타남(표 2와 표 2.3, 표 2.4).
- phase 2에서 초기 인식되는 이익규모가 phase 1에 비해 감소됨.

〈표 2.3〉 PAA 적용 손익(RA는 지급준비금의 3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77	674	415	234	78	-
UPR	880	660	440	220	-	-	-
RA	-	27 <sup>1)</sup>	54	45	54	18	-
BEL	-	90	180	150	180	60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23	46	105	146	182	200
당기순익	-	<b>23</b>	<b>23</b>	<b>59</b>	<b>41</b>	<b>36</b>	<b>18</b>

주: 1) RA = 90(1분기 지급준비금) \* 30% = 27

〈표 2.4〉 BBA 적용 손익(RA는 지급준비금의 3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520	380	260	200
부채	880	777	674	415	234	78	-
CSM	200	150	100	50	-	-	-
RA	-	27	54	45	54	18	-
BEL	680	600	520	320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300	150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50	180	60	-
자본	-	23	46	105	146	182	200
당기순익	-	<b>23</b>	<b>23</b>	<b>59</b>	<b>41</b>	<b>36</b>	<b>18</b>
CSM 상각	-	50	50	50	50		
RA 상각	-	(27)	(27)	9	(9)	36	18

〈 시나리오 3 〉 최종 손해를 변화(손해액 발생 분포는 그대로)

■ 손해액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패턴에 변화는 없지만 3분기 이후 최종손해를 가정을 당초 60%에서 70%로 높아진다고 변경함.

- 최종손해율이 70%일 경우 발생손해액이 600에서 700으로 상향 조정되어 3분기부터 발생손해액과 지급보험금 규모가 증가함.

〈표 1.1〉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금액 변화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300 (50%)	<b>525<sup>1)</sup></b> (75%)	<b>700</b>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b>350<sup>2)</sup></b> (50%)	<b>490</b> (70%)	<b>630</b> (90%)	<b>700</b> (100%)

주: 1)  $1000 * 70% * 75% = 525$   
 2)  $700 * 50% = 350$

■ 최종손해를 변화에도 phase 2 손익 패턴은 phase 1과 차이가 없음.

-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는 최종손해를 가정 변화로 당기손익이 적자로 전환되었다가 이후 손익 규모가 초기보다 축소되는 패턴이 나타남.
- phase 2 BBA의 경우 손해를 가정 변화는 CSM 조정으로 반영됨.

〈표 3〉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150)	(225) <sup>1)</sup>	(175)	-	-
지급보험금	60	60	230	140	140	70
손해조사비 등	(20)	(20)	(20)	(20)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손익	<b>50</b>	<b>50</b>	<b>(25)</b>	<b>25</b>		

주: 1)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00(2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225$

〈표 3.1〉 PAA 적용 손익(예상 최종손해율 70%,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470 <sup>1)</sup>	310	170	100
부채	880	750	620	395	210	70	-
UPR	880	660	440	220	-	-	-
RA	-	-	-	-	-	-	-
BEL	-	90	180	175	210	70	-
지급준비금	-	90	180	175 <sup>2)</sup>	210	70	-
자본	-	50	100	75	100	100	100
당기순익	-	<b>50</b>	<b>50</b>	<b>(25)</b>	<b>25</b>	-	-

주: 1) 1000(보험료) - 120(신계약비) - 60(손해조사비) - 350(지급보험금) = 470(자산)

2)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50(3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175(지급준비금)

〈표 3.2〉 BBA 적용 손익(예상 최종손해율 70%,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20	470 <sup>1)</sup>	310	170	100
부채	880	750	620	395	210	70	-
CSM	200	150	100	25 <sup>2)</sup>	-	-	-
RA	-	-	-	-	-	-	-
BEL	680	600	520	370	210	70	-
기대손실	600	450	300	175 <sup>3)</sup>	-	-	-
손해조사비	80	60	40	20	-	-	-
지급준비금	-	90	180	175 <sup>4)</sup>	210	70	-
자본	-	50	100	75	100	100	100
당기순익	-	<b>50</b>	<b>50</b>	<b>(25)</b>	<b>25</b>	-	-
CSM 상각	-	50	50	(25)	25	-	-

주: 1) 1000(보험료) - 120(신계약비) - 60(손해조사비) - 350(지급보험금) = 470(자산)

2) 220(기대수입 = 250 - 30) - 175(기대손실) - 20(손해조사비) = 25

3) 700(최종 발생손해액) -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175(기대손실)

4) 525(3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50(3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175(지급준비금)

〈 시나리오 4 〉 손해액 발생 분포 변화(서비스 패턴의 변화)

- 보험사고 청구율이 2분기에 집중되면서 손해액의 발생 분포, 즉 서비스 제공(Service Tranfer) 패턴이 변한다고 가정을 변경함(2분기 50% → 75%, 3분기 75% → 90%).

〈표 1.2〉 발생손해액 및 보험금지급 패턴 변화

분기	1	2	3	4	5	6
발생손해액누계 (예상=실제)	150 (25%)	<b>450<sup>1)</sup></b> <b>(75%)</b>	<b>540</b> <b>(90%)</b>	600 (100%)	-	-
지급보험금누계 (예상=실제)	60 (10%)	120 (20%)	300 (50%)	420 (70%)	540 (90%)	600 (100%)

주: 1) 1000 \* 60% \* 75% = 450

- 손해액 발생 분포가 초기에 집중될 경우 phase 1과 phase 2 손익 패턴이 대조적인데, phase 1은 “상저하고”, phase 2는 “상고하저”로 나타남.
  - phase 1은 서비스 제공 패턴의 변화가 수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보험금과 손해조사비만 변동시킨다고 보아 손해액이 증가한 2분기에는 그만큼 당기손실이 발생함.

〈표 4〉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에서의 손익

분기	1	2	3	4	5	6
경과보험료	250	250	250	250	-	-
발생손해액	(150)	(300) <sup>1)</sup>	(90)	(60)	-	-
지급보험금	60	60	180	120	120	60
손해조사비 등	(20)	(40) <sup>2)</sup>	(12)	(8)	-	-
신계약비	(30)	(30)	(30)	(30)	-	-
당기손익	<b>50</b>	<b>(120)</b>	<b>118</b>	<b>152</b>		

주: 1) 450(2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150(1분기 누적 발생손해액) = 300

2) 80(손해조사비) \* (75% - 25%) = 40

- 반면, phase 2에서는 손해액 발생 분포가 달라지면, 이를 서비스 제공 정도의 변화로 보고 보험료수익과 장래이익도 비례적으로 조정함.

- PAA의 경우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과보험료 전환 비율도 변경된 발생손해액 분포를 반영하여 2분기에 50%를 인식하므로 2분기 말의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잔액은 25%에 해당하는 220, 3분기 말에는 10%에 해당하는 88만 남음.
- BBA의 경우에도 장래이익(CSM)을 발생손해액 분포에 따라 이익으로 인식함.

〈표 4.1〉 PAA 적용 손익(초기 청구율 급증,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00	508	380	260	200
부채	880	750	550	328	180	60	-
UPR	880	660	220 <sup>1)</sup>	88 <sup>1)</sup>	-	-	-
RA	-	-	-	-	-	-	-
BEL	-	90	330	240	180	60	-
지급준비금	-	90	330	240	180	60	-
자본	-	50	150	180	200	200	200
당기순익	-	<b>50</b>	<b>100</b>	<b>30</b>	<b>20</b>	-	-

주: 1) 880 \* (1 - 0.75) = 220, 880 \* (1 - 0.9) = 88

〈표 4.2〉 BBA 적용 손익(초기 청구율 급증, RA는 0)

분기	0	1	2	3	4	5	6
자산	880	800	700 <sup>1)</sup>	508	380	260	200
부채	880	750	550	328	180	60	-
CSM	200	150	50 <sup>2)</sup>	20	-	-	-
RA	-	-	-	-	-	-	-
BEL	680	600	500	308	180	60	-
기대손실	600	450	150 <sup>2)</sup>	60	-	-	-
손해조사비	80	60	20	8	-	-	-
지급준비금	-	90	330	240	180	60	-
자본	-	50	150	180	200	200	200
당기순익	-	<b>50</b>	<b>100</b>	<b>30</b>	<b>20</b>	-	-
CSM 상각	-	50	100	30	20	-	-

주: 1) 1,000 - 120(신계약비) - 60(2분기 누적 손조비 = 20 + 40) - 120(2분기 누적 지급보험금) = 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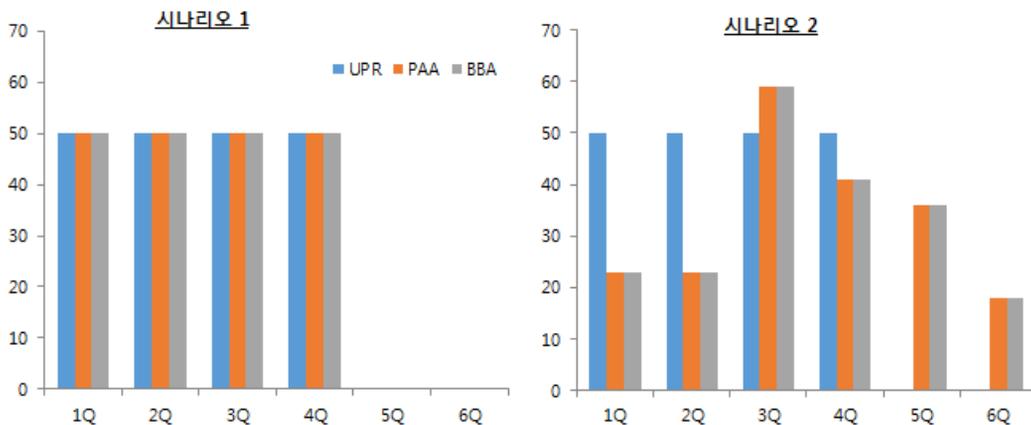
2) 200 \* (1 - 0.75) = 50, 600 \* (1 - 0.75) = 150

## 나. 일반손해보험에 대한 phase 2 영향

■ 보험회계기준이 phase 2로 이행할 경우 일반손해보험의 이익 인식 시기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시나리오 1(RA=0)〉과 〈시나리오 2(RA≠0)〉를 비교하면, 위험조정의 반영 여부가 손익 패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음.
- 위험조정을 지급준비금에 반영하게 되면 phase 2에서는 BBA나 단순화된 PAA 적용 모두 현행 미경과보험료방식을 적용할 때보다 초기에 인식되는 이익규모가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시간까지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phase 1과 phase 2의 차이가 지급준비금에 있으므로 위험조정 반영 여부에 따라 손익 패턴이 영향을 받음.

〈그림 5〉 phase 2: 위험조정 반영 여부와 손익 패턴



주: 〈표 2〉, 〈표 2.1 ~ 2.4〉 당기손익 비교.

■ 최종손해를 변화로 손해액 규모가 변화하더라도 패턴에 변화가 없으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패턴은 차이가 없지만, 패턴에 차이가 생기면 phase 1과 phase 2의 손익 패턴은 다르게 나타남.

- 〈시나리오 3(손해율 변화)〉와 〈시나리오 4(손해액 발생의 패턴 변화)〉를 비교하면, 시나리오 4에서 손익 패턴이 달라짐.

- phase 2는 서비스 제공 패턴에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라 비용은 물론 수익 인식도 조정되므로 phase 1보다 손익 패턴이 평탄하게 나타남.

〈그림 6〉 phase 2: 발생손해액 규모 및 패턴 변화와 손익 패턴



주: 〈표 3〉, 〈표 3.1〉, 〈표 3.2〉, 〈표 4.1〉, 〈표 4.2〉 당기순익 비교.

## 4. 결론 및 시사점

IFRS 4 phase 2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BBA 적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에는 PAA 적용이 가능하므로 phase 2 전환기에 PAA는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줄 유용한 대안이 될 것임. 또한 손해보험회사는 phase 2가 자동차보험이나 전통 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IFRS 4 phase 2가 할인 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손해보험에 대해서는 BBA보다 단순한 PAA 적용이 가능하므로 phase 2 최초 적용 시에 기존 보유계약에 PAA를 적용한다면 보험회사의 이행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PAA를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전환기 CSM 추정 부담이 없고, 장기보험 특약 등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보험회사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장기 청산형 일반손해보험에 PAA 적용이 가능한 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장기보험과 마찬가지로 BBA를 적용해야 할 경우 장래이익(CSM) 추정과 손실계약의 즉시 인식에 대한 계리 및 재무 측면의 대비가 필요할 것임.

■ 사례분석은 phase 2가 일반손해보험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상 대비가 필요함.

- phase 2는 지급준비금에 위험조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보험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일반손해보험에 phase 2를 적용할 때 초기에 인식하는 이익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초기 자본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남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비가 필요함.
- 개별 보험회사는 자사의 상품구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참 고 문 헌〉

김해식(2014. 3. 28), “IFRS 보험부채 시가평가 현안과 과제,” 리스크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 한국리스크관리학회.

Schneider, T., Bielman, P. and Dornheim, H. (2014), “Case Study: Potential Impacts of IFRS 4 phase II on Non-life Insurance Accounting,” KPMG(<http://www.kpmg.ch>).

Vlaminckx, D., Vandeweghe, C. and Lievens, B. (2013), “IFRS 4(phase II) for Insurance Contracts: Revised Exposure Draft Explained through an Illustrative Example,” Deloitte.

## ◆ 자동차보험 소비자 분석과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 1. 검토 배경

현 자동차보험시장은 완만한 성장추세, 시장의 가격통제, 가격경쟁 심화 등의 상황하에 있어 경쟁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경쟁적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보험회사 규모별 자동차보험 마케팅 전략 시사점을 도출, 제시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자사의 규모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12개 손해보험회사들은 연간 약 12조 원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놓고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두 가지 상품유형(오프라인 상품 또는 직판상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한 덕분에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은 다른 보험종목보다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인식과 반대로 현실은 완만한 성장추세, 시장의 가격통제, 표준화된 상품에 따른 상품차별화 경쟁의 어려움, 치열한 가격경쟁 등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어려운 내외 환경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이 결코 쉽다고 보기 어려움.

■ 현재와 같이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우량 고객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상품(또는 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파악을 통한 소비자 지향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회사(또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만족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기존 자동차보험 상품(제공 서비스 포함)을 재구매할 가능성(충성도)이 높아질 것이

기 때문임.

- 충성도 제고는 궁극적으로 매출증가, 이익증가 및 소비자 민원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므로 충성도 제고를 위한 소비자 태도 파악,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은 중요한 영업정책이 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태도 측면에서 보험회사 규모별(또는 유형별)로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상품(또는 회사) 선택기준 규명, 회사규모별 마케팅 전략 평가 등을 통해 마케팅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자료 설명 및 분석방법은 [별첨 1] 참조).

-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자동차보험 상품(또는 회사)을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수준’ 및 ‘만족도 기준의 시장세분화’ 등을 회사규모(또는 유형)별로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함.

## 2.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보험회사(상품) 선택기준

소비자들은 가격측면과 비가격측면(브랜드 신뢰성과 서비스 지원)에서 자동차보험 상품(또는 회사)을 인식하고, 선택(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됨. 규모가 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비가격측면을, 규모가 작은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격측면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가격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대형사가 시장점유율 및 손해율 측면에서 기타 보험회사보다 더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손해보험회사들은 판매방식과 연결된 두 가지 상품(오프라인 상품과 직판상품)으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음.

- 직판전문회사 및 대형사인 현대<sup>1)</sup>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직판상품과 오프라인 상품을 회사 본체에서 판매하고 있음.<sup>2)</sup>
- 직판상품만 판매하는 회사, 직판상품과 오프라인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회사가 경쟁하는 현재의 경쟁구조는 2000년대 초의 직판전문회사와 오프라인 회사로 양분되어 경쟁하던 상황과 매우 다름.
- 현재와 같은 경쟁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들(기존사 및 직판전문회사)이 자사의 처지에 부합한 경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지’를 아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1) 동 자료는 현대와 현대 하이카의 합병 선언 이전 자료로 연구한 것임.

2) 대형사(big)는 삼성, 동부, 현대, LIG이며, 중·소형사(msm)는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MG이고, 직판전문회사(int)는 AXA, 현대 하이카, The K임. 직판전문회사들은 2000년 이후 진입규제 완화 및 가격자유화 흐름 속에서 설립됨. 직판전문회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해 감에 따라 기존 회사들이 직판상품을 개발하여 본체 판매형태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대형사인 현대만 현대 하이카라는 직판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2015년 1월 현재 현대와 현대 하이카는 합병선언을 한 상태임.

### 가.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회사 선택기준

■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sup>3)</sup>,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상품을 구매(또는 손해 보험회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지원”, “가격 경쟁력” 측면을 중시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들의 주요 선택기준인 “상품경쟁력”,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지원”, “가격 경쟁력” 중에서 “상품경쟁력<sup>4)</sup>은 실질 내용면에서 자동차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요소이므로 자동차보험 구매 의사결정 시 고려 요인에 해당하는 요인은 “브랜드 신뢰성”, “서비스지원”, “가격 경쟁력”이 될 것임.
- 이러한 자동차보험 구매 의사결정 요인들은 비가격측면(“브랜드 신뢰성”과 “서비스 지원”)과 가격측면(“가격 경쟁력”)으로 재구분<sup>5)</sup>할 수 있을 것임.

#### 3) 설문조사 질문 및 답변 결과

○ 질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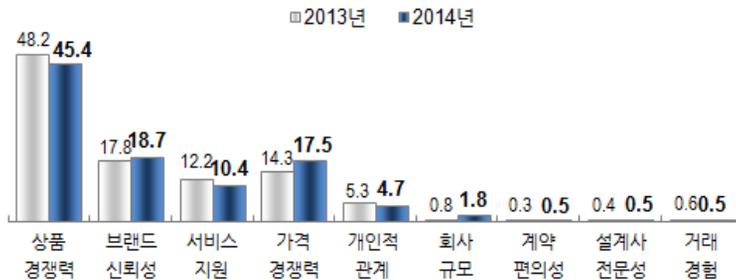
문 26. OO 님(본인)께서 향후 손해보험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 2가지를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 (     ) / 2순위 (     )

- |                           |                           |
|---------------------------|---------------------------|
| ① 상품 경쟁력(보장의 다양성 및 니즈 반영) | ④ 개인적 관계(가족, 친구 및 동료의 권유) |
| ② 보험회사 브랜드의 신뢰성           | ⑥ 과거 거래경험                 |
| ③ 가격 경쟁력                  | ⑧ 계약체결의 편의성               |
| ⑤ 서비스 지원(계약, 보상 등)        | ⑩ 설계사의 전문적 재무 설계 능력       |
| ⑦ 회사 규모                   |                           |
| ⑨ 고객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                           |
| ⑪ 기타(     )               |                           |

○ 답변결과 : 하단 <주석 그림 1> 참조

<주석 그림 1> 손해보험회사 선택 시 고려 사항(1순위 기준)

(N=1,200 / 단위: %)



자료 : 전용식 외 6인(2014. 8), 「201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보험연구원, p. 152.

4) 자동차보험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어 회사별 상품내용이 선택기준이 될 수 없음.

5) “브랜드 신뢰성”과 “서비스지원”은 비가격 측면인 “서비스 및 신뢰도”라고 새로 이름을 붙이면 앞서 소

■ 규모가 큰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비가격측면이 가격측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규모가 작은 회사에 가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가격측면이 비가격측면보다 더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비가격요소(credit) 또는 가격요소(price)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성비가 각각 59.1%, 40.9%인 점을 볼 때,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중요 선택기준은 비가격요소이지만 가격요소도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됨.
- 대형사를 선택한 소비자들 중에서 “가력경쟁력”보다 “서비스 및 신뢰도”를 더 중요시하는 소비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직판전문회사를 선택한 소비자들 중에서 “서비스 및 신뢰성” 보다 “가격 경쟁력”을 더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직판상품 시장에서도 ‘직판상품은 저렴한 상품!’ 이라는 모토로 운영되는 직판상품 특성<sup>6)</sup>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중·소형사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회사(자동차보험 상품) 선택기준으로 “가격”과 “서비스 및 신뢰성”요소의 구성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비자의 보험회사 선택기준은 가격측면인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측면인 “서비스 및 신뢰성” 측면으로 다시 이름을 붙일 수 있음.

6) 직판상품의 주요 특징은 기존 오프라인 상품과 상품내용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것임.

〈표 1〉 회사규모별 선택이유 구성비

구분	선택기준	대형사 (big)	중·소형사 (msm)	직판전문회사 (int)	합계
응답자 수 (명)	비가격요소(credit)	157	19	9	185
	가격요소(price)	88	24	16	128
	합계	245	43	25	313
구성비 (%)	비가격요소(credit)	64.1	44.2	36.0	59.1
	가격요소(price)	35.9	55.8	64.0	40.9
	합계	100.0	100.0	100.0	100.0
시장점유율		78.3	13.7	8.0	100.0

주: 1) 대형사(big)는 삼성, 동부, 현대, LG이며, 중·소형사(msm)는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MG이고, 직판전문회사(int)는 AXA, 현대 하이카, The K임.

2) price와 credit은 소비자가 자신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회사를 선택한 이유로 각각 “가격(price)” 또는 “서비스 및 신뢰성(credit)”을 선택한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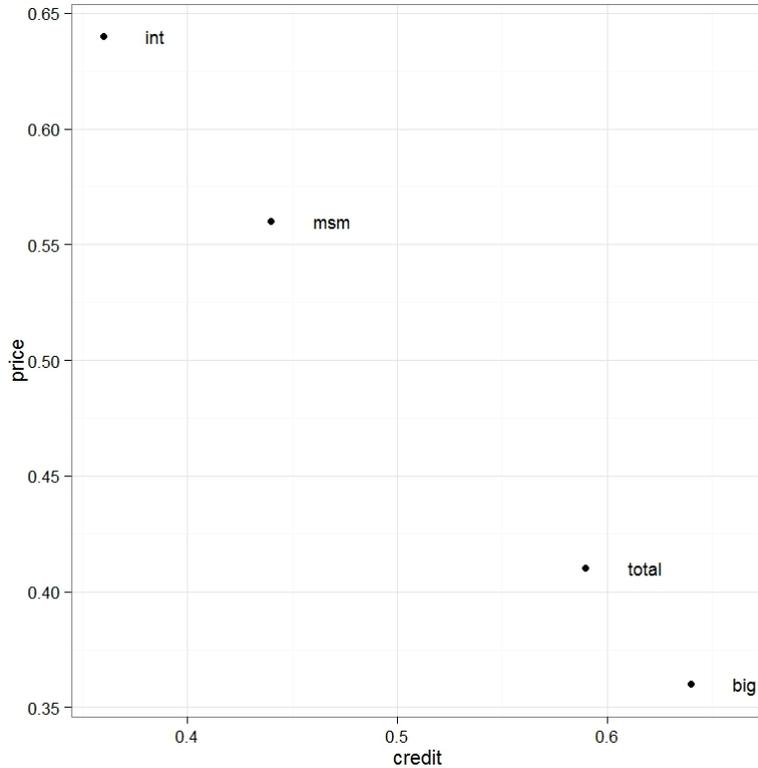
3) 시장점유율은 전체 설문응답자 313명 중 회사 규모별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를 나눈 값임(응답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결과 자료는 기존 394부에서 313부로 줄어듦).

4) 시장점유율은 앞서 실적자료와 일치하지 않지만 유사한 패턴이므로 소비자 측면 분석에 동 자료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5) 동 자료는 직판상품과 오프라인 상품으로 구분할 만큼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직판상품의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회사 규모별로 소비자의 선택 중요도를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됨(직판상품이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료: 보험연구원 2014년 소비자 설문조사(원 자료).

〈그림 1〉 회사규모별 자동차보험 선택 이유별 구성비



- 201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보험연구원) 자료를 이용하여 비가격측면과 가격측면에서 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을 보면, 비가격측면에 강점이 있는 대형사들은 가격요소를 중요시하는 시장(40.9%)에서도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가격요소를 중요시하는 시장에서 대형사의 점유율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6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3%에 그침.<sup>7)</sup>

7) 이는 대형사들이 직판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과 대형사의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어필한 결과가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됨.

〈표 2〉 선택요소별/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

선택기준	대형사 (big)	중·소형사 (msm)	직판전문회사 (int)	합계
비가격요소(credit)	85%	10%	5%	100%
가격요소(price)	69%	19%	13%	100%
합계	78%	14%	8%	100%

자료 : 보험연구원 2014년 소비자 설문조사(원 자료).

■ 보험업계 전체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면, 대형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약 7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가격요소를 중요시하는 시장(구성비 59.1%)에서 경쟁우위를 보이면서 가격을 중요시하는 시장(40.9%)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비가격요소에서 강점을 가지는 대형회사가 직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가격을 중요시하는 시장에서도 약진한 결과로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기타 보험회사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및 신뢰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진 대형사는 약 73%(평대기준은 약 69%)의 시장점유율,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는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는 각각 17.2%, 9.9%의 시장점유율인 것으로 나타남(〈표 3〉 참조).
- 따라서 자동차보험시장은 비가격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대형사가 차지한 시장 이외의 소규모 시장을 놓고 중·소형사와 직판전문회사가 경쟁하는 경쟁구도라고 볼 수 있음.

〈표 3〉 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실적자료)

구분		대형사 (big)	중·소형사 (msm)	직판전문회사 (int)	합계
실적	평균 유효대수(만 대)	1,314	356	235	1,905
	경과보험료(억 원)	88,404	20,801	12,045	121,249
시장점유율	평균 유효대수(%)	69.0	18.7	12.3	100.0
	경과보험료(%)	72.9	17.2	9.9	100.0

주: 1)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실적임.

2) 대형사(big)는 삼성, 동부, 현대, LIG이며, 중·소형사(msm)는 메리츠, 한화, 롯데, 흥국, MG이고, 직판전문회사(int)는 AXA, 현대 하이카, The K임.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가 저렴한 상품판매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요소를 중시하는 시장에서조차 대형사에 밀리는 현상이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동차보험시장에서 비가격요소가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됨.<sup>8)</sup>

## 나. 회사규모별 현재 마케팅 전략 추정

- 보험회사 규모에 따른 소비자의 태도는 각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 포지셔닝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변화 또는 회사의 정책(또는 마케팅 전략) 변화가 없을 경우에 현재와 같은 소비자 태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됨.
  - 현재의 소비자 태도를 통해 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유추해보면, 대형사는 고가격 정책 및 고서비스 전략, 직판전문회사(또는 대형사 및 중·소형사의 직판상품)는 저가격 전략, 중·소형사는 어중간한 전략(Stuck in the middle)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대형사는 많은 보험금을 지급(대당 보험금)<sup>9)</sup>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대당보험료)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는 낮은 보험금(대당보험금) 지급에 더 낮은 보험료를 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소형사의 경우는 “서비스 및 신뢰성” 요소를 “가격 경쟁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실제 위험도보다 더 낮은 보험료 전략을 취한 결과, 중·소형사의 손해율이 대형사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손해율 2(IFRS 기준)와 사업비도 반영한 합산비율을 보면, 전체 자동차보험 부문은

8) 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에서조차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 생각됨.

1) 소비자들의 생각(가격을 중시한다는 생각)과 실제 선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임. 즉, 가격을 중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실제는 비가격 측면에 따라 행동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2) 대형사도 직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대형사의 직판상품이 가격을 중시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됨(이론상 대형사의 직판상품 가격은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의 직판상품가격보다 약간 비쌀 수 있음).

9) 보험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위험도가 높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함. 차량 크기 및 소비자의 특성 등과 보험금 지급 서비스가 좋을 수 있는 점 등의 복합적 원인 때문에 보험금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임.

적자이지만 대형사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사업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대형사 고객이 상대적으로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으로 생각됨.

〈표 4〉 손해보험 회사규모(유형)별 실적 비교

(단위: 천원)

회사규모(유형)	대당보험료	대당손해액	손해율		합산비율
			1	2	
대형사(big)	673	517	76.8%	85.3%	106.5%
중·소형사(msm)	584	478	81.9%	91.1%	113.6%
직판전문회사(int)	512	423	82.5%	92.8%	110.2%

주: 1) 2013년 4월 ~ 2014년 3월 기준임.

2) 대당보험료, 대당손해액 및 손해율 1은 일반물건 기준이며, 손해율 2 및 합산비율은 불량물건이 포함된 자료임.

3) 대당손해액 및 손해율 1은 IFRS 회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손해사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실적임.

4) 손해율 2는 IFRS 기준 실적이며, 대당 손해액은 IFRS 기준이 아님.

5) 손해율 2 및 합산비율과 기타 통계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 두 통계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 각 월호 및 금융감독원 자료.

■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의 현 전략적 포지셔닝은 직판상품에도 연계되므로 직판시장에서도 대형사의 경쟁우위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형사는 높은 “서비스와 신뢰성” 이미지로 저렴한 직판상품 공급을 통해 직판시장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와 신뢰도”를 중시하는 시장과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는 시장에서 모두 경쟁우위에 있게 됨.<sup>10)</sup>
- 반면에 중·소형사와 직판전문회사는 “서비스와 신뢰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하여 저가격 정책을 지속할 것이지만, 시장점유율 축소 및 상대적 수익성 감소<sup>11)</sup> 상황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음.<sup>12)</sup>

10) 수익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형사 직판상품은 기타 보험회사보다 더 좋을 개연성이 큼. 왜냐하면 직판상품은 자사의 오프라인 상품에서 대리점 수수료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임. 즉, 대형사는 대당보험료를 중·소형사 또는 직판전문회사보다 더 높게 결정하기 때문에 직판상품을 판매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 반면 직판전문회사 또는 중·소형사는 낮은 가격 정책으로 대형사보다 낮은 가격을 정함으로써 직판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대형사보다 더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음.

※ 대형사의 낮은 손해율을 감안하면, 대형사의 직판상품 가격 경쟁력이 기타 회사보다 더 높을 개연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계로 확인하지 못함.

11) 일반적으로 직판상품의 사고 위험도가 오프라인 상품보다 낮기 때문에 직판상품 판매로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대형사에 비하여 그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대적 수익성 감소”라는 표현을 함.

12) 자동차보험시장 전체 수준에서 사고발생률 증가, 손해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 3.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상품 만족도

2014년 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상품, 계약, 유지 등 모든 서비스 부문에서 75%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손해보험회사들은 현재 자기 회사 고객의 니즈(선택기준)에 부합한 자동차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됨. 그러나 모형을 통해 시장을 세분하여 보면, 세분시장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보험회사들이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세분시장별 만족도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소비자들의 선택기준에 부합한 서비스 또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손해보험회사들의 일반적 마케팅 전략임.

- 자신이 선택한 회사(또는 상품 등의 자동차보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은 기존 상품(또는 회사)을 재구매하고자 할 개연성이 크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회사를 변경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임.<sup>13)</sup>

■ 만족(満足)의 사전적 정의<sup>14)</sup>는 “마음이 흡족함 또는 모자람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며, 이 정의에는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정한 만족도 기준’과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도’ 사이의 차이 정도로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만족도 분석은 두 가지 측면, 즉, 보험회사 제공 서비스 측면과 소비자 특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임.

■ 201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우선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만족 서비스 측면에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기 고객의 니즈(선택기준)에 부합하게 자동차보험 서

13) 마케팅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충성도(“재가입여부”, “주위추천여부”, “긍정적 평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면, 강중욱·조강필(2008)에 따르면 충북지역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고객만족은 재구매 의도에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승도·황진태(2011)도 채널, 안정, 상품, 가격, 명성 및 관계측면의 만족도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4) Naver 국어사전.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신이 구매한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상품,<sup>15)</sup> 계약, 유지 서비스 부문에서 모두 75%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형사,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 사이의 총 만족도 차이는 크지 않지만, 상품기준 만족도에서는 중·소형사가 가장 높고 대형사 및 직판전문회사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계약체결 만족도 측면에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높고 직판전문회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유지 서비스는 보험회사들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자동차보험 회사규모별/서비스별 만족도

회사규모(유형)	만족도		
	상품	계약체결	계약유지
대형사(big)	3.87(77%)	3.91(78%)	3.79(76%)
중·소형사(msm)	4.00(80%)	3.93(79%)	3.78(76%)
직판전문회사(int)	3.89(78%)	3.89(78%)	3.82(76%)

주: 1) 만족도 값은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의 평균값임.

2) 괄호()의 값은 최댓값 5점 대비 해당 값의 비율임.

자료: 보험연구원 2014년 소비자 설문조사(원 자료).

■ 트리모형(CART)을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트리모형 분절절차 및 결과는 [별첨 2 참조]하여 본 결과, 소비자들의 특성(소득 수준, 연령 및 다른 보험가입 수준)에 따라 만족도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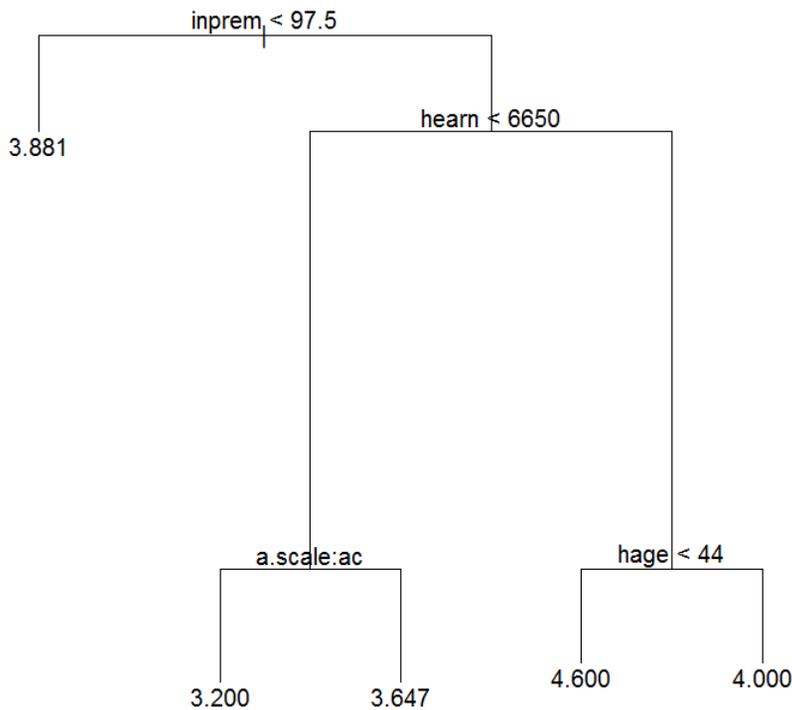
- 가구별 월 보험료(자동차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 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상인면서 가구별 연간 소득수준(hearn)이 6,650만 원 이상, 그리고 나이가 44세 미만인 계층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4.60)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조건이면서 44세 이상 그룹에서는 만족도가 다음으로 높은 4.0인 것으로 분석됨.

15) 자동차보험 상품이 회사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 “상품 만족도”는 자신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인 것으로 생각됨.

16) 동 분석결과로부터 소비자의 여건에 따라 만족도 기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그렇지만 각 위험집단별 만족도 기준이 얼마인지, 위험집단별 인지적·행동적 특성이 무엇인지 등 세부적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 설문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만족도가 가장 낮은(3.2) 계층은 가구별 월 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상인 가구별 연간 소득수준(hearn)이 6,650만 원 미만인 대도시 및 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인 것으로, 그리고 중도시에 사는 그룹은 만족도가 3.647인 것으로 분석됨.
- 월 보험료 수준이 97만 5천원 미만인 그룹은 만족도가 3.88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소득수준 또는 다른 보험 가입규모), 거주지역 및 연령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고 세분시장별 만족도 제고 수단 및 접근 수단을 갖추는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생각됨.

〈그림 2〉 트리모형 분석결과(모형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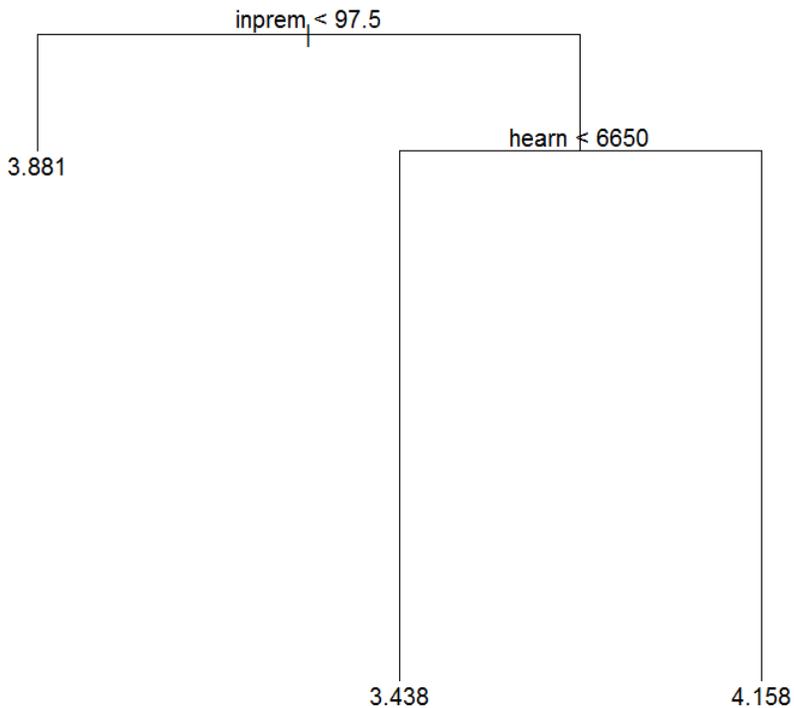
■ 앞의 분석모형(모형 I)을 기초로 해서 더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안정적 트리모형(모형 II)<sup>17)</sup>을 생성해본 결과(트리모형 가지치기 분석결과 및 절차는 [별첨 3] 참조), 소비자 만

17) 실제 시장세분화를 위해서는 모형 II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됨.

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연간 소득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추가 보험 가입여부)인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의 월간 납입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하인 계층의 만족도는 3.881인 것으로 분석됨.
- 월간 납입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상이면서 연간 수입이 6,650만 원 이하인 계층의 만족도는 3.438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소득도 높고 자동차보험 이외의 보험에 가입을 많이 하는 계층(연간 수입이 6,650만 원 이상이면서 월간 납입보험료도 97만 5천원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4.158인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트리모형 분석결과(모형 II)



#### 4. 만족도 기준(base) 세분시장(Market Segmentation)의 특징<sup>18)</sup>

트리모형으로 분류한 세분시장별/회사규모별 시장점유율을 통해 살펴보면, 대형사는 시장규모가 가장 큰 중간규모 만족도 시장에서,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족도가 높거나 낮은 그룹에서, 직판전문회사는 만족도가 높은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대형사는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중·소형사는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마케팅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며, 직판전문회사는 회사규모에 비하여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시장점유율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트리모형 분석 결과(모형 I)를 이용하여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5개 그룹(시장세분화)<sup>19)</sup>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 손해보험회사 규모(또는 유형)별 시장점유율을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본 결과, 세분시장별/회사규모(유형)별로 시장점유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20)</sup>
  - 시장규모가 87.1%로 가장 큰 중간 만족도 시장에서는 평균적 시장점유율 대비 대형사가 평균수준의 점유율, 중·소형사가 다소 낮은 점유율, 직판전문회사가 다소 높은 점유율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대형사는 규모가 가장 큰 시장(g3)과 규모는 작지만 만족도가 낮은 시장(g1과 g2)에

18) 실무에서 시장세분화 및 실행을 위해서는 트리모형 II가 적합하지만, 본 자료에서는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을 위해서 트리모형 I을 기준으로 살펴봄.

19) 3개 그룹별 시장세분화 결과(모형 II).

〈주석 표 1〉 자동차보험 회사규모별/세분시장별 시장점유율(트리모형 II 기준)

만족도	그룹(만족도)	대형사 (big)	중·소형사 (msm)	직판전문회사 (int)	시장규모
저(低)	gL(3,438)	84.4%	12.5%	3.1%	8.1%
중(中)	gM(3,881)	79.4%	13.1%	7.6%	87.1%
고(高)	gH(4,158)	73.7%	21.1%	5.3%	4.8%
합계(평균)		79.5%	13.4%	7.1%	100.0%

주: 1) gL은 월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가 97만 5천원 미만인 그룹.

2) gM은 월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가 97만 5천원 이상인 반면 연간 소득이 6,650만 원 미만인 그룹(보험료 부담이 많은 그룹).

3) gH는 월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가 97만 5천원 이상인 반면 연간 소득이 6,650만 원 이상인 그룹(소득이 높아 보험료 부담이 없는 계층).

20) 회사 규모별 만족도가 높은 이유 또는 낮은 이유는 추가 설문조사 자료를 통한 재분석이 필요함.

서 전반적인 우위(높은 점유율)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사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그룹(g2)에서 점유율이 평균보다 많고, 다소 높은 그룹(g3)에서 점유율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소형사는 주력시장(g3)에서 대형사와 직판전문회사에서 시장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중·소형사는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g1)에서 점유율이 높고, 만족도가 다소 높은 g4에서 점유율이 다소 높음.
- 직판전문회사는 주력시장(g3)과 만족도가 높은 시장(g4 및 g5)에서 우위에 있는 등, 그 경영전략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워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직판전문회사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g5)에서 점유율이 높고, 만족도가 다소 낮은 그룹(g1 및 g2)에서 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sup>21)</sup>

(표 6) 자동차보험 회사규모별/세분시장별 시장점유율(트리모형 I 기준)

만족도	그룹(만족도)	대형사 (big)	중·소형사 (msm)	직판전문회사 (int)	시장규모
저(低)	g1(3,200)	80.0%	20.0%	0.0%	3.8%
	g2(3,647)	88.2%	5.9%	5.9%	4.3%
중(中)	g3(3,881)	79.4%	13.1%	7.6%	87.1%
고(高)	g4(4,000)	71.4%	28.6%	0.0%	3.5%
	g5(4,600)	80.0%	0.0%	20.0%	1.3%
합계(평균)		79.5%	13.4%	7.1%	100.0%

주: 1) g1은 연간 소득은 6,650만 원 이하이면서 월납입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상이고 대도시 및 소도시 거주자(소득은 낮고 보험료는 많이 내는 대도시 및 소도시 거주자).  
 2) g2는 연간 소득은 6,650만 원 이하이면서 월납입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상이고 중도시 거주자(소득은 낮고 보험료는 많이 내는 중도시 거주자).  
 3) g3은 월납입보험료가 97만 5천원 이하인 그룹(추가 보험료 부담이 적은 그룹).  
 4) g4는 연간 소득은 6,650만 원 이상이고 월납입보험료도 97만 5천원 이상이면서 나이가 44세 이상인 그룹(추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높으면서 나이가 44세 이상인 그룹).  
 5) g5는 연간 소득은 6,650만 원 이상, 월납입보험료도 97만 5천원 이상이면서 나이가 44세 이하인 그룹(추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소득이 높으면서 나이가 44세 미만인 그룹).

자료: 보험연구원 2014년 소비자 설문조사(원 자료).

21) g5에서 대형사,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의 시장점유율 순위가 다른 집단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g5그룹의 특성(만족도가 매우 큰 그룹, 즉 가격민감도가 높은 그룹)과 통계량이 적어 나타나는 왜곡 두 가지 때문으로 생각됨. 통계량의 다소(多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향후 더 많은 통계량을 확보한 이후에 검증이 필요함. 다만, 현재의 통계량과 모형에 따르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g5)에서는 직판전문회사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다는 것임.

■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손해보험회사 규모(또는 유형)별로 현재 마케팅 전략 방향에 다소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대형사(big)는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영전략을 취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족도가 다소 낮은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보다 높은 점은 향후 마케팅 전략(상품, 채널, 가격, 광고)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사(msm)는 소득이 높은 우량시장(g5)과 주력시장(g3)에서 대형사와 직판전문회사에 밀리고 있는 형국<sup>22)</sup>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중·소형사는 동 취약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직판전문회사(int)가 만족도가 높은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마케팅 관점(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낮은 시장점유율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향후 과제인 것으로 판단됨.

22) 회사규모별 평균 시장점유율 대비 해당 그룹 시장의 점유율 수준으로 분석, 해석함.

## 5.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3가지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함. 첫째, 자동차보험 산업이 가격에 덜 민감한 안정된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이 비가격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들도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시장을 세분화를 하고, 세분시장별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전략(4P)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소형사 및 직판 전문회사들은 자동차보험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예, 서비스 및 신뢰성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상품에서 경쟁력 확보 등).

-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선택기준 중에서 “서비스 및 신뢰성”은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 가격인하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고려 요인인 것으로 생각됨.
  - 현재 대형사(big)가 “서비스 및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우위 확보로 “비가격 중시 시장”과 “가격 중시 시장”의 두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상대적으로 우량한 손해율(또는 합산비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비스 및 신뢰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됨.
  - 반면에 중·소형사와 직판전문회사는 “서비스 및 신뢰성” 측면에서 경쟁열위에 있게 됨으로써 저가격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실적악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자동차보험산업이 가격에 덜 민감한 안정된 시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비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실행할 필요가 있음.
  - 손해보험회사들이 비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보험회사들은 그 규모 또는 영업행태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sup>23)</sup>

23)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만족도 제고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져 보험민원

-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만족정도가 76% 이상임)으로 이는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세분시장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만족도 측면 또는 개별회사의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시장세분화(Market Segmentation)를 통해 세분시장별 만족도 제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모형 I 및 모형 II)에서는 주로 소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비자의 만족도 수준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따라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이외의 보험에 어느 정도 가입하고 있는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한 시장접근 전략을 취함으로써 시장 점유율확대 및 자사 자동차보험 고객의 전체 만족도 제고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들은 자동차보험시장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예, 서비스 및 신뢰성 제고 등 비가격 경쟁력 확보, 자동차보험 부문의 영업적자를 메울 수 있는 다른 상품에서 경쟁력 확보 등).

- 현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구조<sup>24)</sup>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 전체의 손해율이 악화되는 상황(사고율은 올라가는데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자동차보험시장 상황이 주기적으로 악화와 개선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 환경을 볼 때, 중·소형사와 직판전문회사는 지속기업으로 남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감소로 이어지는 등 손해보험회사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개연성이 크고, 충성도 제고로 이어짐으로써 손해보험회사들은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성과(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임.

24) 중·소형사 및 직판전문회사의 수익성이 대형사보다 낮기 때문임.

- 본 자료는 마케팅 목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된 설문지가 아닌 일반적 질문으로 구성된 설문 항목, 그리고 적은 통계량(394부)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실제로 활용하고자 할 때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실무적 또는 실질적 차원의 마케팅 전략 또는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정교한 설문지 작성, 충분한 통계량 확보를 통해 다양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참 고 문 헌〉

강종옥 · 조강필(2008), 「충북지역 보험소비자의 자동차보험 재구매 의도에 관한 연구」, 『산업과 경영』, 21(1), pp. 1~19.

기승도 · 황진태(2011),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보험연구원, pp. 75~79.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2013),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보험연구원, pp. 72~73.

보험개발원 월말보고서(2013. 4 ~ 2014. 12), 각 월 호.

보험연구원(2014),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통계자료(자동차보험 관련 항목 및 인구 통계 항목). 전용식 외 6인(2014. 8),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Leo Breiman, Jerome H. Friedman, Richard A. Olshen, Charles J. Stone(1984),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s", Chapman&Hall.

R 프로그램(<http://www.r-project.org/>).

[별첨 1] 자료 설명 및 분석방법

■ 자료설명

- 본 자료는 2014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약 1개월)간 (주)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전국 민을 대상으로 비례할당추출법으로 추출하여 대면 설문조사한 것임.
- 총 조사자료 양은 1200부이지만, 이중 자동차보험 가입자 그리고 자동차보험 가입 시 의사결정자로 생각되는 세대주 기준으로 자료를 한정한 결과, 동 연구에 사용된 자료 수는 394부로 줄어듦.
- 동 자료는 소비자의 가입현황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위해 설계된 설문지가 수집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그리고 마케팅 목적으로 특화되어 작성되어야 하는 설문지보다 정교성이 떨어지는 자료로 생각됨.

■ 자료요약

- 설문조사에서 자동차보험시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한 대부분의 변수를 분석에 사용함.
- 특히, 마케팅에서 시장세분화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구통계변수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 선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보험료(자동차보험료 및 자동차 보험료 이외 보험료)도 분석변수에 포함함.

〈별첨 표 1〉 연속형 자료 통계

구분	최소	평균	최대	표준편차
자동차보험료 (prem, 만 원)	10	59	150	18.37
연간 수입(hearn, 만 원)	800	4482	18000	1797.72
자동차 이외 보험료 (inprem, 만 원)	0	52	280	37.96
연령(hage)	24	47	72	10.45

〈별첨 표 2〉 범주형 자료 통계 I

성별(xy)		지역(a, scale)		결혼여부(maryn)	
구분	응답자 수(명)	구분	응답자 수(명)	구분	응답자 수(명)
남자	372	대도시	170	결혼	353
여자	22	중도시	202	미혼	41
-	-	소도시	22	-	-
총합계	394	총합계	394	총합계	394

〈별첨 표 3〉 범주형 자료 통계 II

직업(hjob)		학력(hsch)	
구분	응답자 수(명)	구분	응답자 수(명)
가정주부	1	고졸	186
무직	3	중졸	15
은퇴	13	무응답	3
샐러리맨	206	대학 이상	190
자영업	171	-	-
총합계	394	총합계	394

### ■ 분석절차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중심 통계모형은 Tree 모형이며, 본 연구가 학술논문 수준이 아닌 실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통계 모형에 대한 세부 설명을 아래와 같은 개괄적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함(관심변수에 대한 회사규모별 비율(구성비)분석, CART(Breiman 외 3인 1984)이론에 따라 구축된 Tree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첫째, 자동차보험 회사(상품) 선택기준 분석’, ‘둘째, 소비자의 만족도 분석(Tree 모형 이용)’, ‘셋째, 만족도 기준 시장세분화(Tree 모형 분석 결과 이용)’임.
-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R(<http://www.r-project.org/>)” 임.

### ■ 분석모형: Tree 모형

- 본 분석모형은 기승도(2012)에 설명된 내용을 재인용한 것임.
- 모형 설명
  - 본 연구는 목표변수가 연속형이므로 이지분리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은 분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임. 분산을 감소시키는 모형은 CART 중에서 회귀 나무(Regression Tree) 모형임.
  - 회귀나무는 각 노드에 적용되는 분리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며, 분리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회귀나무는 마지막의 적정 수의 노드를 가진 가지치기를 거쳐서 최적모형이 선택됨.

- 분리규칙

- 학습표본을  $\mathcal{L}$  라 할 때 대체 추정치를 나타내는 식은 (별첨 1.1)과 같음

$$R(d) = \frac{1}{N} \sum_n (y_n - d(x_n))^2 \quad (\text{별첨 1.1})$$

- 이때  $R(d)$ 을 최소화하는  $y(t)$ 을 구해야 하는데, 이  $y(t)$ 는 노드  $t$ 에 포함되는 모든 자료( $x_n, y_n$ )의  $y_n$ 의 평균값이며 이 식은 (식 1.2)과 같음.

$$\bar{y}(t) = \frac{1}{N(t)} \sum_{x_n \in t} y_n \quad (\text{별첨 1.2})$$

- $\bar{y}(t)$ 가 구해진 이후, 앞 (식 1.1)에서  $R(d)$ 는 다음의  $R(T)$  식으로 변환할 수 있음.

$$R(T) = \frac{1}{N} \sum_{t \in T} \sum_{x_n \in t} (y_n - \bar{y}(t))^2 \quad (\text{별첨 1.3})$$

- $R(t) = \frac{1}{N} \sum_{x_n \in t} (y_n - \bar{y}(t))^2$ 라고 하면, (별첨 1.3)은 (별첨 1.4)가 됨.

$$R(T) = \sum_{t \in T} R(t) \quad (\text{별첨 1.4})$$

- 각 노드  $t$ 에서 분리규칙은  $R(T)$ 을 가장 많이 감소시키는  $s^*$ 가 됨.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식 1.5)과 같음.

$$\Delta R(s, t) = R(t) - R(t_L) - R(t_R) \quad (\text{별첨 1.5})$$

- 여기서  $s$ 는 노드  $t$ 에 해당하는 자료를 오른쪽 노드  $t_R$ 과 왼쪽 노드  $t_L$ 로 나누는 기준임. 최적의 분리 규칙  $s^*$ 는 (별첨 1.5)을 최대로 하는  $s$ , 즉, (별첨 1.6)이 됨.

$$\Delta R(s^*, t) = \max \Delta R(s, t) \quad (\text{별첨 1.6})$$

- 앞서  $R(T)$ 는 각 노드에서 분산 값이며, 분류나무(목표변수가 범주형인 경우)에서는 오분류 비율(Misclassification Rate)이 됨.

- 전체 회귀나무는 (별첨 1.6)의 분리규칙에 따라, 즉 각 노드에서 분산을 최소화하는 분리기준  $s^*$ 에 따라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전체 회귀나무가 만들어짐.

○ Tree 모형의 가지치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Breiman 외 3인(1984)을 참조하기 바람.

### [별첨 2] Tree 모형 분석(모형 I)

■ 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은 “상품만족도(Psatfy), “거주 도시(a.scale)”, “성별(xy)”, “결혼 여부(maryn)”, “세대주 연령(hage)”, 자동차보험료(prem)”, “연간 가구소득(hearn)”, “자동차보험 이의 월간 보험료(inprem)”, “세대주 직업(hjob)”, “세대주 학력(hsch)”임.

■ 만족도 변수들(상품, 계약체결, 계약유지) 중에서 상품만족도(Psatfy)를 대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음.

- 자동차보험은 무형의 서비스 상품으로 모든 서비스 결과가 상품으로 귀결될 것으로 추정된 점, 상품, 계약체결, 유지 서비스들 사이의 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상품 만족도와 계약체결 만족도 및 계약유지 만족도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점(아래 표 참조)을 감안하여, 대표 만족도 변수로 상품만족도(Psatfy)를 선택함.

〈별첨 표 4〉 만족도 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회귀분석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추정값(표준편차)	추정값(표준편차)
(Intercept)	1,531(0.184) ***	1,445(0.220) ***
만족	계약(Csafy)	0.403(0.053) ***
	유지(Msafy)	0.205(0.043) ***
성별(여성, xywom)	-	0.003(0.094) ***
결혼여부(미혼, marynNM)	-	-0.037(0.076)
세대주 연령(hage)	-	0.002(0.002)

주: 1) \*은 10%, \*\*은 5%, \*\*\*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냄.

2) 모델별 적합통계량: 하단 <주석 표 2> 참조.

〈주석 표 2〉 모형별 적합 통계량

모형1	Residual standard error: 0.4202 on 392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2941, Adjusted R-squared: 0.2905 F-statistic: 81.67 on 2 and 392 DF, p-value: < 2.2e-16
모형2	Residual standard error: 0.4212 on 389 degrees of freedom Multiple R-squared: 0.2962, Adjusted R-squared: 0.2871 F-statistic: 32.74 on 5 and 389 DF, p-value: < 2.2e-16

■ 앞서 설명한 Tree 모형, 특히 Regression Tree 분석모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즉, 본 1차 모형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구별 소득, 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 세대주 연령이 만족도 기준의 시장을 분류하는 유효한 변수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기타 변수는 제외됨.

〈별첨 표 5〉 분석결과

```
node), split, n, deviance, yval
  * denotes terminal node

1) root 395 98,060 3,858
  2) inprem < 97.5 344 74,110 3,881 *
  3) inprem > 97.5 51 22,590 3,706
    6) hearn < 6650 32 11,880 3,438
      12) a.scale: bcity,scity 15 6,400 3,200 *
      13) a.scale: mcity 17 3,882 3,647 *
    7) hearn > 6650 19 4,526 4,158
      14) hage < 44 5 1,200 4,600 *
      15) hage > 44 14 2,000 4,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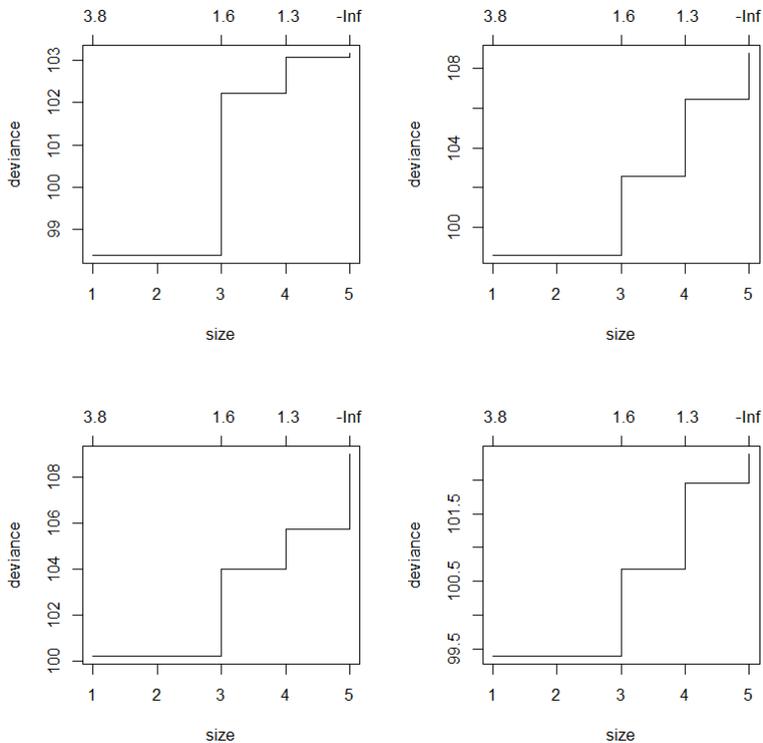
### [별첨 3] Tree 모형 가지치기 분석절차 및 결과

■ 분석모형(모형 I)을 단순화시킴으로써 모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분석된 변수 중에서 더 중요한 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추가 트리 분석을 실시함.

#### ■ 분석방법 및 절차

- Cross Validation을 이용하여 deviance가 최소가 되는 계층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최적 나무모형(가지치기 모형)을 산출함(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나무모형은 향후 예측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Cross Validation으로 계산한 deviance값의 변화 값과 deviance값이 최소가 되는 최종 Terminal Node 수(최적 최종 Terminal Node 수: 3개)를 결정하기 위해 만든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음.

(별첨 그림 1) 최종 Terminal Node값의 변화에 따른 deviance 변화 그래프



■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가구별 소득, 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 제외)인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모형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시장세분화를 위한 기준을 만들 때에는 동 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

〈별첨 표 6〉 분석결과

node), split, n, deviance, yval
* denotes terminal node
1) root 395 98.060 3.858
2) inprem < 97.5 344 74.110 3.881 *
3) inprem > 97.5 51 22.590 3.706
6) hearn < 6650 32 11.880 3.438 *
7) hearn > 6650 19 4.526 4.158 *

## II. 경제금융 동향

### 1. 세계경제

2014년 3/4분기 선진국 경제성장률은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우 소폭 상승하였고, 일본의 경우 둔화폭이 감소함.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경제성장률은 하락 추세를 지속함.

■ 2014년 신흥국의 성장세는 둔화된 가운데, 미국과 유로 지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소폭 상승함.

- 3/4분기 미국의 실질 GDP는 2/4분기보다 5.0%(연율) 성장한 반면, 유로 지역의 경우 미약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며 전분기대비 0.6%(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14년 4월 소비세율 인상 영향으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나타내었으나 -1.9%(연율)를 기록하며 둔화폭은 감소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9%를 기록함.

〈표 1〉 세계경제 성장률<sup>1)</sup>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sup>1)</sup>	3.4	3.3	n.a.						
선진국 <sup>1)</sup>	1.2	1.4		1.3		2.5		1.3	n.a.
신흥국 <sup>1)</sup>	5.1	4.7		4.8		5.3		4.1	n.a.
미국 <sup>2)</sup>	2.3	2.2	2.7	1.8	4.5	3.5	-2.1	4.6	5.0
유로 <sup>3)</sup>	-0.7	-0.5	-1.5	1.3	0.7	1.0	1.3	0.3	0.6
일본 <sup>4)</sup>	1.8	1.6	6.0	3.0	1.6	-1.5	5.8	-6.7	-1.9
중국 <sup>5)</sup>	7.8	7.7	1.6	1.8	2.3	1.7	1.5	2.0	1.9

주: 1) 분기 경제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가율,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83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타이완 외 32개국 / 신흥국: 멕시코, 이란 외 149개국.

3) 국가별 분기성장률은 전분기대비 연율.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4. 10).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12).

3) Eurostat(2015. 1).

4) 일본 내각부(2014. 12).

5) 중국 국가통계국(2014. 10).

■ 2014년 3/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99.9를 기록함.

- 미국과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유로 지역과 일본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3/4분기 미국 경기선행지수는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음.
  - 유로 지역 경기선행지수의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 잠재로 2/4분기보다 0.1 하락한 100.7을 기록함.
  - 일본 경기선행지수는 경기부양책 효과 감소 및 소비세율 인상 영향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며 전분기대비 0.6 감소한 99.8을 기록함.
  - 3/4분기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정부 주도의 과잉투자 해소, 소비와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전환 등으로 2/4분기보다 0.2 상승한 98.9를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sup>1)</sup>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sup>2)</sup>	99.8	99.9	99.8	99.8	99.9	100.0	99.9	99.9	99.9
선진국 <sup>3)</sup>	99.6	100.1	99.8	100.0	100.2	100.4	100.4	100.4	100.4
미국	99.7	100.3	100.1	100.3	100.4	100.4	100.2	100.3	100.4
유로	99.1	99.7	99.0	99.4	100.0	100.5	100.8	100.8	100.7
일본	99.7	100.7	99.9	100.5	100.9	101.4	101.2	100.4	99.8
중국	100.0	99.9	100.1	100.1	100.0	99.6	98.9	98.7	98.9

주: 1) 2007.1=100,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4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 규모가 증가하며 2014년 2/4분기보다 0.6%p 상승한 3.4%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2/4분기 1.6%에서 0.3%p 상승한 1.9%를 기록하였고,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1.0%p 높아진 4.9%를 기록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세계 <sup>1)</sup>	2.1	2.7	1.8	1.8	3.1	4.2	3.1	2.8	3.4
선진국	0.1	0.5	-1.2	-0.1	0.6	2.6	2.2	1.6	1.9
신흥국	4.3	5.2	5.1	3.9	5.9	5.8	3.9	3.9	4.9

주: 1) 2014년 현재 OECD 국가 중 Luxembourg를 제외한 23개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60개 신흥국을 대상으로 함.

2) 선진국과 신흥국은 IMF의 분류 기준과 동일.

3)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4년 3/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소폭 하락한 3.4%를 기록하였고, 원자재가격도 세계경기 침체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셰일오일 등 비전통적인 원유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기반 확대와 지정학적 우려 완화로 하락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4년 2/4분기 1.7%보다 0.1%p 하락한 1.6%를 기록하였으며 신흥국의 경우도 동 기간 5.3%에서 5.2%로 0.1%p 낮아짐.
- 두바이 현물지수와 WTI 현물지수는 원유 공급 과잉 지속 및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각각 6.0%, 7.3% 하락하였고, CRB지수<sup>1)</sup>도 5.4% 하락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1)</sup> (%)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sup>2)</sup>				
	2013		2014				2013		2014		
	연간	4/4	1/4	2/4	3/4		연간	4/4	1/4	2/4	3/4
세계	3.9	3.3	3.2	3.5	3.4	두바이 현물지수	105.7	107.7	104.5	106.7	100.3
선진국	1.4	1.2	1.2	1.7	1.6	WTI 현물지수	97.5	95.7	99.6	102.6	95.1
신흥국	5.9	5.5	5.1	5.3	5.2	CRB 상품지수 <sup>2)</sup>	287.6	279.9	292.3	308.0	291.3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EO(2014, 10); 한국은행; Bloomberg.

1)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지수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예견되거나 그 상품의 수요 증가를 의미함.

## 가. 미국경제

2014년 3/4분기 미국 실질 GDP는 국제유가 하락 및 고용 증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전분기에 비해 0.4%p 상승한 5.0% 증가함.

##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하락 및 고용 증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소비와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4분기보다 0.4%p 상승한 5.0%를 기록함.
  - 민간소비의 경우 고용 호조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내구재를 중심으로 3.2% 증가함.
  - 민간투자의 경우 통화정책 완화 유지로 설비 및 주택투자가 전분기대비 각각 8.9%, 3.2%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7.2% 증가함.
  - 수출은 4.5% 증가한 반면, 수입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로 0.9% 감소함.
  - 정부지출의 경우 이슬람국가 관련 지출증가 및 결제일이 모두 3/4분기에 존재하여 국방지출<sup>2)</sup>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4.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sup>3)</sup>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GDP	2.3	2.2	2.7	1.8	4.5	3.5	-2.1	4.6	5.0
민간소비	1.8	2.4	3.6	1.8	2.0	3.7	1.2	2.5	3.2
재화	2.8	3.4	5.9	1.3	3.5	3.7	1.0	5.9	4.7
서비스	1.3	1.9	2.4	2.0	1.3	3.7	1.3	0.9	2.5
민간투자	9.2	4.9	7.6	6.9	16.8	3.8	-6.9	19.1	7.2
설비	7.2	3.0	1.5	1.6	5.5	10.4	1.6	9.7	8.9
주택	13.5	11.9	7.8	19.0	11.2	-8.5	-5.3	8.8	3.2
수출	3.3	3.0	-0.8	6.3	5.1	10.0	-9.2	11.1	4.5
수입	2.3	1.1	-0.3	8.5	0.6	1.3	2.2	11.3	-0.9
정부지출	-1.4	-2.0	-3.9	0.2	0.2	-3.8	-0.8	1.7	4.4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4. 1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중동지역에 대한 국방비 투입이 증가함.

3) 국제금융센터(2014. 10. 31).

## 〈내수부문〉

- 2014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임금 상승률 정체로 인한 가계 구매력 저하로 2014년 2/4분기보다 1.2%p 하락한 1.1%를 기록함.
  - 2014년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하락세가 지속되며 0.5%를 기록하였지만, 11월에는 0.7%로 소폭 높아짐.
  -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용시장 개선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2.9 높아진 86.3을 기록하였으며 10월 94.1, 11월 88.7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주택가격은 상승하였지만 모기지 금리 상승, 금융권의 대출조건 강화 등으로 신규 주택구입 수요 위축으로 신규주택착공은 감소함.
  - 3/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0%p 하락한 4.5%를 기록하였으며 10월 1.7%, 11월 -1.6%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3/4분기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1.8% 상승한 173.6을 기록하는 등 실수요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구매 확대로 2/4분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함.<sup>4)</sup>

〈표 6〉 미국의 주요 내수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sup>1)</sup> (%)	5.1	4.2	1.5	0.3	1.0	0.8	0.3	2.3	1.1	0.5	0.7
소비자신뢰지수 <sup>2)</sup>	67.1	73.1	62.8	75.1	81.0	73.4	80.5	83.4	86.3	94.1	88.7
신규주택착공호수 <sup>3)</sup> (%)	28.1	18.6	4.3	-8.7	2.0	16.2	-9.8	6.5	4.5	1.7	-1.6
주택가격지수 <sup>4)</sup>	141.3	158.2	147.0	155.9	164.2	165.8	165.9	170.6	173.6	n.a.	n.a.

주: 1)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S&P Dow Jones Indices.

4) 김정훈·유혜림(2014), 「미국 자산가격의 상승 추이와 배경」, 해외경제포커스, 제 2014-24호, 한국은행.

## 〈생산부문〉

■ 2014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sup>5)</sup>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으며 설비가동률도 상승세를 지속하며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를 이끌었음.

○ 3/4분기 산업생산증가율은 제조업 주도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1.4%를 나타냈으며 2014년 10월 0.1%, 11월 1.3%를 기록함.

- 설비가동률은 3/4분기 79.3을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10월 79.3, 11월 80.1을 기록함.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2.4 높아진 57.6을 기록하였고, 10월 59.0, 11월 58.7을 기록함.

○ 경기선행지수는 소비자신뢰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3/4분기 103.8, 10월과 11월 각각 104.9, 105.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증가율 <sup>1)</sup> (%)	3.8	2.9	0.6	1.0	0.5	0.6	1.2	1.0	1.4	0.1	1.3
설비가동률 <sup>2)</sup>	76.8	77.6	77.7	77.8	77.9	78.4	78.6	79.1	79.3	79.3	80.1
ISM제조업PMI	51.8	53.9	52.3	50.8	55.7	56.7	52.7	55.2	57.6	59.0	58.7
경기선행지수 <sup>3)</sup>	93.6	96.9	95.1	96.0	97.3	99.1	100.0	101.8	103.8	104.9	105.5

주: 1)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국제금융센터;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5)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 〈고용과 물가〉

■ 2014년 3/4분기 취업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어 전분기대비 축소되었지만, 평균 신규고용은 2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였고 실업률도 소폭 하락함.

○ 전분기대비 비농업 취업자 증감은 3/4분기 71만 7,000명으로 전분기대비 8만 3,000명 감소하였으나,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3/4분기 29만 9,000명으로 전분기대비 1만 6,000명 감소하였고 10월에도 감소세가 나타났다가 11월 증가함.

- 10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이 전월대비 24만 3,000명 증가하였고 11월에는 32만 1,000명 증가하며 고용시장 회복세가 나타남.

○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6.1%를 기록하였고, 2014년 10월과 11월에도 각각 5.8%를 나타내며 하락세를 유지함.

- 포괄적 실업률도 2014년 3/4분기 12.0%, 10월 11.5%, 11월 11.4%를 기록하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 강세로 인해 전분기보다 0.3%p 하락하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분기대비 0.3%p 하락함.

○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한 1.8%, 10월 1.7%, 11월 1.3%를 기록함.

- 3/4분기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8% 상승하였고, 10월 1.8%, 11월 1.7%를 기록함.

○ 원유 과잉공급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2.5%, 10월 1.7%, 11월에는 1.1%로 하락세가 지속됨.

-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2.0%, 10월 2.1%, 11월 2.0% 수준을 유지함.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물가 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sup>1)</sup> (%)	8.1	7.4	7.7	7.5	7.2	7.0	6.7	6.2	6.1	5.8	5.8
포괄적 실업률(u-6) <sup>2)</sup> (%)	14.7	13.8	14.2	14.0	13.7	13.3	12.7	12.2	12.0	11.5	11.4
비농업취업자 증감 <sup>3)</sup> (만 명)	223.6	233.1	61.8	60.3	51.5	59.5	56.9	80.0	71.7	24.3	32.1
실업수당 청구자 수 <sup>4)</sup> (만 명)	37.5	34.4	35.5	34.6	33.0	34.5	33.1	31.5	29.9	27.9	29.9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2.1	1.5	1.7	1.4	1.6	1.2	1.4	2.1	1.8	1.7	1.3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2.1	1.8	1.9	1.7	1.7	1.7	1.6	1.9	1.8	1.8	1.7
생산자물가 상승률 <sup>6)</sup> (%)	1.9	1.3	1.5	1.5	1.2	0.8	1.6	2.8	2.5	1.7	1.1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 <sup>6)</sup> (%)	2.6	1.5	1.8	1.7	1.2	1.4	1.9	1.8	2.0	2.1	2.0

주: 1) 16세 이상, 계절조정.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16세 이상, 계절조정.

3) 전분기대비 증감.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 나. 유로경제

2014년 3/4분기 유로경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회복세로 2/4분기보다 소폭 개선되었으나 회복세가 미미함.

##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유로 지역 경제성장률은 유로 지역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 회복세로 2/4분기보다 0.1%p 상승한 0.2%를 기록함(〈표 9〉와 〈표 12〉 참조).

○ 3/4분기 유럽 주요 5개국 경제성장률의 경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소폭 상승한 반면,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함.

- 프랑스의 경우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3%를 기록하였고, 독일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반면, 3/4분기 스페인의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0.5%를 기록함.

○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독일의 민간소비 증가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0.5%를 기록함.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의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전분기대비 0.4%p 상승한 -0.3%를 기록한 반면, 정부지출은 전분기대비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 유로 지역 수출은 이탈리아의 수출 감소로 2/4분기보다 소폭 낮아진 1.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분기대비 1.4% 증가함.

〈표 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EA18 GDP	-0.7	-0.5	-0.4 (-1.5)	0.3 (1.3)	0.2 (0.7)	0.2 (1.0)	0.3 (1.3)	0.1 (0.3)	0.2 (0.6)
민간소비	-1.3	-0.7	-0.2	0.1	0.1	0.1	0.2	0.3	0.5
고정자본투자	-3.4	-2.4	-2.3	0.7	0.6	0.7	0.3	-0.7	-0.3
정부지출	-0.2	0.2	0.0	0.2	0.1	0.3	0.1	0.3	0.3
수출	2.4	2.0	0.3	1.7	0.7	0.8	0.4	1.4	1.3
수입	-1.0	1.2	0.1	1.3	1.6	0.2	0.4	1.3	1.4

주: 전분기대비이며,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5. 1).

##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1% 증가하였으나 10월 0.4% 늘어남.
  - 3/4분기 유로 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0.9로 전분기보다 하락하였으며, 10월 100.7을 나타내었으나 11월 100.8로 소폭 상승함.
  - 유로 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3/4분기 -9.9를 나타내며 둔화폭이 증가하였으며, 10월 -11.1, 11월 -11.5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2014년 3/4분기 유로 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의 경우 2/4분기보다 0.5%p 상승한 0.5%를 기록하였으나 10월 0.2% 기록함.

〈표 10〉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유로지역 ESI <sup>1)</sup>	90.8	93.8	90.5	90.2	95.3	99.1	101.6	102.2	100.9	100.7	100.8
소매판매 증가율 <sup>2)</sup> (%)	-1.7	-0.8	0.1	0.1	0.4	-0.1	0.6	0.4	0.1	0.4	n.a.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22.1	-18.7	-23.5	-20.9	-15.9	-14.4	-11.2	-7.7	-9.9	-11.1	-11.5
산업생산 증가율 <sup>4)</sup> (%)	-2.4	-0.7	0.2	0.7	0.0	0.6	0.2	0.0	0.5	0.2	n.a.

주: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3)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4) 비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자료: Eurostat; Bloomberg.

## 〈고용과 물가〉

- 2014년 3/4분기 북유럽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보다 0.1%p 하락한 7.1%를 기록하였으나, 북유럽의 경우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6.7%를 나타냄.
  - 3/4분기 동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0%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 실업률도 전분기대비 0.5%p 하락한 19.1%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유럽 주요국과 동유럽에서는 하락하였지만, 북유럽에서는 상승함.
  - 3/4분기 유럽 주요국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0.2%p 하락한 0.9%를 기록하였으며, 동유럽의 경우도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3%를 나타냄.
  - 반면, 3/4분기 북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0%를 기록하였으며, 남유럽의 경우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함.

〈표 1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5)</sup> (%)			
	주요국 <sup>1)</sup>	북유럽 <sup>2)</sup>	동유럽 <sup>3)</sup>	남유럽 <sup>4)</sup>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4년 1/4	7.3	6.7	9.7	20.0	1.2	1.0	0.6	-0.2
2014년 2/4	7.2	6.6	9.4	19.6	1.1	0.9	0.4	-0.4
2014년 3/4	7.1	6.7	9.0	19.1	0.9	1.0	0.3	-0.4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1).

〈표 12〉 유럽 주요국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독일 GDP	0.4	0.1	-0.4	0.8	0.3	0.4	0.8	-0.1	0.1
민간소비	0.7	0.8	0.2	0.6	0.3	-0.3	0.5	0.1	0.7
고정자본투자	-0.7	-0.6	-2.6	2.4	0.8	1.2	2.8	-1.8	-0.9
수출	2.8	1.6	0.7	1.4	0.7	1.7	-0.2	1.2	1.9
수입	0.0	3.1	1.2	1.3	1.7	0.7	-0.1	1.1	1.7
프랑스 GDP	0.3	0.3	0.0	0.7	-0.1	0.2	0.0	-0.1	0.3
민간소비	-0.4	0.2	0.2	0.3	0.0	0.4	-0.4	0.3	0.2
고정자본투자	0.3	-1.0	-0.4	0.3	0.0	-0.1	-0.7	-0.8	-0.6
수출	1.1	2.2	0.3	3.0	-0.7	1.1	0.5	-0.1	0.5
수입	-1.3	1.7	0.4	2.0	0.9	0.4	0.7	0.3	1.1
이탈리아 GDP	-2.3	-1.9	-0.9	-0.2	0.0	-0.1	0.0	-0.2	-0.1
민간소비	-4.0	-2.8	-1.2	-0.6	0.1	0.1	0.1	0.2	0.1
고정자본투자	-7.4	-5.4	-3.1	-0.1	-0.1	-0.2	-1.1	-0.8	-1.0
수출	2.0	0.6	0.2	0.3	1.3	-0.4	0.2	1.3	0.2
수입	-8.0	-2.7	-0.1	-0.9	2.2	-0.6	-0.7	0.9	-0.3
스페인 GDP	-2.1	-1.2	-0.4	-0.1	0.1	0.3	0.3	0.5	0.5
민간소비	-2.9	-2.3	-0.8	0.0	0.4	0.3	0.6	0.9	0.8
고정자본투자	-8.1	-3.8	-0.9	-1.2	1.2	0.1	0.1	1.6	1.1
수출	1.2	4.3	-1.2	6.1	0.5	-0.2	0.0	1.2	3.5
수입	-6.3	-0.5	-4.2	6.5	1.4	0.2	0.5	2.6	4.7
영국 GDP	0.7	1.7	0.5	0.7	0.8	0.7	0.8	0.8	n.a.
민간소비	1.1	1.7	1.0	0.3	0.8	0.3	n.a.	n.a.	n.a.
고정자본투자	0.7	3.4	0.9	4.0	1.9	1.9	n.a.	n.a.	n.a.
수출	0.7	1.5	-1.0	2.5	-1.9	2.8	n.a.	n.a.	n.a.
수입	3.1	1.4	-2.4	2.3	1.5	-0.4	n.a.	n.a.	n.a.

주: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5. 1).

## 다. 일본경제

2014년 3/4분기 일본 경제는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4년 소비세율 인상<sup>6)</sup> 영향 지속과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 부진으로 전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2014년 4월 1일 소비세율 인상 영향 지속과 설비투자 및 주택투자 부진으로 -0.5%를 기록함.
  - 3/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5.5%p 상승한 0.4%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그러나 소비세율 인상 및 엔화 약세로 인한 실질 구매력 감소와 기상악화 등으로 회복세는 미약함.
  - 또한, 3/4분기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해외이전 추세 지속으로 2/4분기에 이어 0.4% 감소함.
  - 주택투자 증가율은 소비세율 인상 영향에 따른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되며 -6.8%를 기록하였지만 둔화폭은 감소함.
  - 3/4분기 정부지출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나, 공공투자는 2014년 2월에 성립한 2013 회계연도 추경예산 등의 집행 가속화로 전분기대비 1.4% 증가함.
  - 3/4분기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및 유럽 경제 부진과 일본기업들의 생산기반 해외이전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에 그침.
  - 수입 증가율은 신형 스마트폰 등의 품목에 대한 수입 증가로 전분기대비 6.1%p 상승한 0.7%를 기록함.

6) 2012년 8월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 및 세계 일체개혁법'을 제정하여 소비세율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2단계 인상하기로 결정함.

〈표 13〉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실질 GDP	1.8	1.6	1.5 (6.0)	0.7 (3.0)	0.4 (1.6)	-0.4 (-1.5)	1.4 (5.8)	-1.7 (-6.7)	-0.5 (-1.9)
민간소비	2.3	2.1	1.3	0.8	0.3	-0.1	2.2	-5.1	0.4
설비투자	3.7	0.4	-0.9	2.5	0.5	1.0	6.2	-4.7	-0.4
주택투자	3.2	8.7	1.0	2.2	4.3	2.2	2.3	-10.0	-6.8
정부지출	1.7	1.9	0.8	0.6	-0.1	0.1	-0.3	0.3	0.3
공공투자	2.7	8.0	4.6	3.1	5.1	1.6	-2.7	0.9	1.4
수출	-0.2	1.5	4.2	3.0	-0.6	0.2	6.4	-0.5	1.3
수입	5.3	3.1	1.0	2.3	1.7	3.7	6.2	-5.4	0.7

주: 전분기대비이며,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4. 12).

## 〈생산 및 내수부문〉

- 2014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은 내수 및 수출이 소폭 회복함에 따라 둔화폭이 감소하였지만 2/4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하며 전분기대비 1.9% 감소함.
  - 엔저에 따른 수출 증가로 기업수익이 개선되며 10월 광공업생산은 0.4% 증가하였지만 11월 마이너스로 전환됨.
- 2014년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한 40.9를 기록하였으나, 10월 38.9, 11월 37.7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지속함.
  - 2014년 3/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은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 충격 완화로 2/4분기보다 10.5%p 상승한 3.5%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1.4%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4.3%p 낮아진 -13.6%를 나타내었고 10월에는 -12.3%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지속됨.

- 3/4분기 민간기계수주액은 전분기대비 5.6% 증가하였으나 10월에는 6.4% 감소하며 변동성이 지속됨.

〈표 14〉 일본의 주요 내수부문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 <sup>1)</sup> (%)	0.2	-0.6	0.5	1.6	1.7	1.8	3.0	-3.8	-1.9	0.4	-0.6
소매판매 증가율 <sup>2)</sup> (%)	1.8	1.0	0.7	0.7	0.3	1.4	3.9	-7.0	3.5	-1.4	n.a.
소비자신뢰지수 <sup>3)</sup>	40.0	43.6	44.1	44.7	44.0	41.7	38.8	39.1	40.9	38.9	37.7
주택착공호수 증가율 <sup>4)</sup> (%)	5.8	11.0	5.1	11.8	13.5	12.9	3.4	-9.3	-13.6	-12.3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 <sup>5)</sup> (%)	-0.9	5.8	-0.3	6.4	4.8	1.9	4.2	-10.4	5.6	-6.4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기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2) 전기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전력 제외,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 〈고용과 물가〉

- 2014년 3/4분기 실업률은 2/4분기와 동일하였지만 유효구인배율<sup>7)</sup>은 소폭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은 회복세를 보임.

-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3.6%를 기록하였고 10월에는 3.5%로 소폭 하락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3/4분기 1.10, 10월 1.10, 11월 1.12로 상승세를 지속함.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국제 원유 공급량 증가로 인한 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하락함.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0.3%p 하락한 3.3%를 기록하였으며 10월 2.9%, 11월 2.4%로 하락세가 이어짐.

7) 유효구인배율=구인자 수/구직자 수

-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3/4분기 2.3%, 10월 2.2%, 11월 2.1%로 지속적으로 하락함.

〈표 1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업률(%)	4.3	4.0	4.2	4.0	4.0	3.9	3.6	3.6	3.6	3.5	3.5
유효구인배율 <sup>1)</sup> (배)	0.80	0.93	0.85	0.90	0.95	1.00	1.05	1.09	1.10	1.10	1.12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2)</sup> (%)	0.0	0.4	-0.6	-0.3	0.9	1.4	1.5	3.6	3.3	2.9	2.4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sup>2)</sup> (%)	-0.6	-0.2	-0.8	-0.4	-0.1	0.5	0.7	2.3	2.3	2.2	2.1

주: 1) 구인 수/구직자 수

2) 2010=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 라. 중국경제

2014년 3/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및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2/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7.3%를 기록함.

###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산업구조조정 가속화 및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2/4분기 대비 0.2%p 하락한 7.3%를 기록함.
  - 3/4분기 고정자산투자는 과잉생산 억제 정책 영향으로 제조업이 위축되며 전분기 증가율보다 0.8%p 하락한 16.5% 증가함.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0월 15.9%, 11월 15.8%로 둔화세를 지속함.
  - 한편, 3/4분기 수출 증가율은 중국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sup>8)</sup> 효과 및 미국 등 선진국 수요 개선 등으로 전분기보다 8.1%p 상승한 13.1%를 기록하였으나 10월 11.6%, 11월 4.7%로 하락함.
    - 특히, 3/4분기 수출 증가율은 2014년 상반기 허위수출 규제<sup>9)</sup>로 큰 폭으로 감소(-22.1%)하였던 대홍콩 수출이 14.7%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상승함.
  - 3/4분기 수입 증가율은 수요 위축 및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전분기보다 0.5%p 하락한 0.9%를 기록하였으나 10월 4.5%로 상승하였다가 11월 -6.7%를 기록함.

8) 2014년 5월 중국 정부는 수출 통관 절차 간소화, 대외수출 신용보험 지원, 세금 환급 정책, 위안화 결제 방식,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9) 중국 정부는 2013년 홍콩 지역을 통한 무역 송장 부풀리기와 같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과대 계상된 부분이 축소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 대홍콩 수출이 감소함.

〈표 1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실질 GDP <sup>1)</sup>	7.8	7.7	1.6 (7.7)	1.8 (7.5)	2.3 (7.8)	1.7 (7.7)	1.5 (7.4)	2.0 (7.5)	1.9 (7.3)	n.a.	n.a.
고정자산투자 <sup>2)</sup>	20.6	20.3	21.1	20.4	20.2	19.9	17.8	17.3	16.5	15.9	15.8
수출 증가율 <sup>3)</sup>	8.4	8.6	18.9	4.1	4.0	7.5	-4.7	5.0	13.1	11.6	4.7
수입 증가율 <sup>3)</sup>	5.1	7.6	9.6	5.1	8.5	7.1	2.7	1.4	0.9	4.5	-6.7

주: 1) 전분기대비, ( )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내수부문〉

■ 2014년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반부패 정책의 영향 등으로 인한 기업 요식비 및 보석류 등 사치품 소비 위축으로 소폭 하락한 반면, 소비자신뢰지수는 상승함.

○ 3/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내수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한 11.9%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전년동기에 비해 둔화됨.

○ 3/4분기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104.5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103.4로 하락함.

〈표 17〉 중국의 주요 내수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매판매 증가율 <sup>1)</sup> (%)	14.4	13.2	12.6	13.0	13.3	13.5	12.2	12.3	11.9	11.5	11.7
소비자신뢰지수	102.4	101.2	105.1	99.9	98.3	101.4	104.0	103.9	104.5	103.4	n.a.
기업가신뢰지수 <sup>2)</sup>	120.3	119.0	122.4	117.0	119.5	117.1	124.3	121.4	n.a.	n.a.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생산부문〉

■ 2014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상승함.

-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9%p 하락한 8.0%를 기록함.
- 3/4분기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51.3을 나타냈으나 생산 및 신규주문 둔화 등으로 10월 50.8, 11월 50.3으로 소폭 하락함.

〈표 18〉 중국의 주요 생산관련 지표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산업생산 증가율 <sup>1)</sup> (%)	9.9	9.7	8.9	9.1	10.1	10.0	8.8	8.9	8.0	7.7	7.2
구매자관리지수 <sup>2)</sup>	50.8	50.8	50.5	50.5	50.8	51.3	50.3	50.7	51.3	50.8	50.3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전월대비.

2) 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됨을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물가〉

■ 2014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신선 채소를 비롯한 식료품과 비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하락함.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분기보다 0.2%p 낮아진 2.0%를 기록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1.6%, 1.4%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3/4분기 -1.3%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감소되었으나 10월 -2.2%, 11월 -2.7%를 나타내며 하락세가 지속됨.

〈표 19〉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2	2013	2013				201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7	2.6	2.4	2.4	2.8	2.9	2.3	2.2	2.0	1.6	1.4
생산자물가 상승률	-1.7	-1.9	-1.7	-2.7	-1.7	-1.4	-2.0	-1.5	-1.3	-2.2	-2.7

주: 전년동기(월)대비, 월별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 2. 국내경제

2014년 3/4분기 국내경제는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4%p 상승한 0.9%를 기록하였으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의 경우 3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3.2%에 그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경제성장〉

- 2014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투자 및 재화수출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3.2%에 그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승용차 등 내구재 및 서비스 지출이 증가하여 2014년 2/4분기와 동일한 1.5%를 기록하였으며 계절조정 전분기대비로는 1.0%를 나타내 2014년 상반기 중의 극심한 부진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3.4%p 하락한 4.3%를 기록하였으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4%p 상승한 2.6%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 1/4분기에 비해 소폭 둔화되었음.
  -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은 기업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5.3%를 기록함.
  - 재화수출 증가율은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대비 1.9%p 하락한 1.7%를 기록한 반면 재화수입 증가율은 석유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원유 수입 확대 등으로<sup>10)</sup> 전분기 대비 0.6%p 상승한 1.8%를 나타냄.

〈표 20〉 지출 항목별 실질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실질 GDP	2.1 (0.6)	2.3	2.1 (0.6)	2.7 (1.0)	3.4 (1.1)	3.7 (0.9)	3.0	3.9 (0.9)	3.5 (0.5)	3.2 (0.9)
민간소비	2.7	1.9	1.7	2.1	2.1	2.2	2.0	2.5	1.5	1.5
설비투자	-4.0	-3.9	-12.7	-3.9	1.5	10.9	6.7	7.3	7.7	4.3
건설투자	-6.2	0.1	1.9	9.8	8.8	5.4	-1.5	4.3	0.2	2.6
지식생산물투자	5.1	8.6	6.6	7.3	5.3	9.7	7.3	7.3	5.7	5.3
재화수출(F. O. B)	6.0	4.4	6.6	6.5	2.4	3.0	4.5	3.9	3.6	1.7
재화수입	0.7	1.9	-1.5	0.8	0.4	4.9	1.2	3.4	1.2	1.8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0) 석유제품 수출 증량(천톤): 2014년 1/4분기 13,407 → 2/4분기 12,933 → 3/4분기 14,252, 원유수입 증량(천톤): 2014년 1/4분기 30,715 → 2/4분기 29,103 → 3/4분기 32,864, 관세청 보도자료(2014. 10. 31), "2014년 3분기 에너지류 수입동향".

## 〈산업생산 · 경기〉

■ 2014년 3/4분기 산업생산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생산을 중심으로 전분기대비 0.9%p 상승한 1.7%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4년 1/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나 10월과 11월에는 광공업 생산 감소로 증가세가 다시 둔화되고 있음.

○ 2014년 3/4분기 광공업생산은 2013년 3/4분기 광공업생산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에도 자동차업계 파업 및 하계휴가 집중, 강우량 증가에 따른 조선업 생산 차질 등으로 기타 운송장비 등이 감소하여 1.1% 증가하는데 그침.

- 10월과 11월 광공업생산은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3.2%, 3.4% 감소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

○ 2014년 3/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2.6% 증가함.

- 10월 서비스업 생산은 도매 및 소매업을 제외한 주요 업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7% 증가하였으나 11월 도매 및 소매업 부진이 심화되고 숙박 및 음식점업도 감소 전환하면서 2.1% 증가하는데 그침.

〈표 21〉 생산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sup>2)</sup>	10월 <sup>2)</sup>	11월 <sup>2)</sup>
전산업생산 <sup>3)</sup>	2.0	1.2	2.6	1.6	1.7	0.8	1.7	0.1	-0.5
광공업	0.0	0.2	1.7	0.3	0.7	0.3	1.1	-3.2	-3.4
제조업	0.0	0.1	1.8	0.3	0.6	0.3	1.2	-3.4	-3.5
자동차	-2.2	5.4	5.6	1.2	7.6	3.6	2.0	-10.3	-3.4
ICT	4.3	8.1	-1.2	-6.5	-0.8	0.8	-1.4	-6.4	-7.9
서비스업	1.7	0.8	2.1	1.4	1.9	1.4	2.6	2.7	2.1
도매 및 소매업	0.3	-0.7	0.2	-0.2	0.5	-0.2	0.1	-1.6	-2.1
운수업	2.6	-0.6	0.7	1.1	0.6	0.0	2.6	3.9	4.6
숙박 및 음식점업	-0.9	0.8	2.4	0.4	0.5	-2.0	1.3	1.5	-0.7
금융 및 보험업	2.9	-0.9	-0.5	0.5	1.4	3.5	6.4	8.4	9.8
부동산 및 임대업	5.7	1.8	4.8	2.5	4.1	4.2	6.3	8.9	7.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 2014년 3/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나 1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100 이하까지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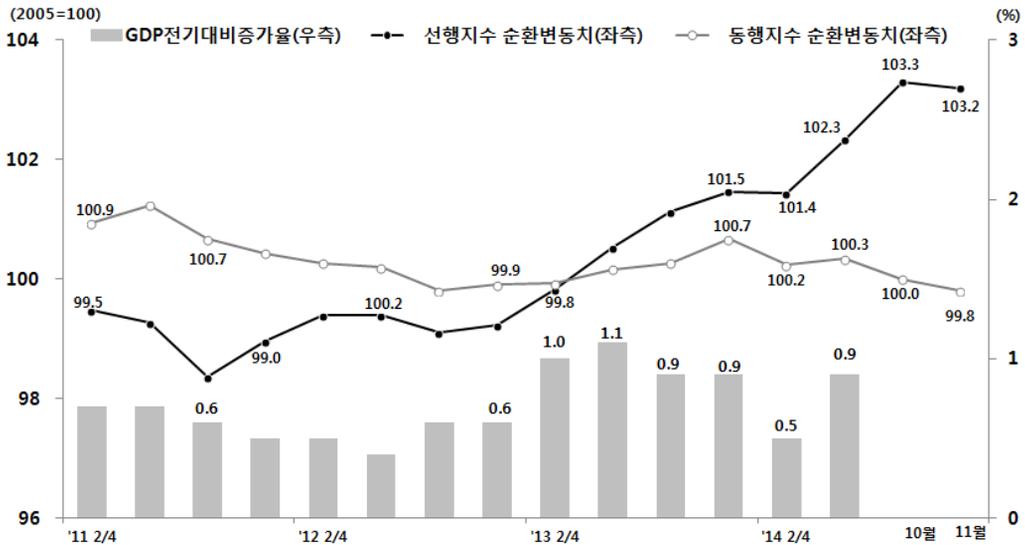
○ 3/4분기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0.9 상승한 102.3을 기록함.

- 그러나 2014년 10월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상승으로 103.3을 기록하였으나 11월 소비자기대지수 하락, 건설수주액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0.1 하락한 103.2를 나타냄.

○ 3/4분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세월호 참사의 영향에서 벗어나 산업생산 및 민간소비가 소폭 증가하면서 전분기대비 0.1 상승한 100.3을 나타냄.

-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10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감소와 내수 출하지수 하락 등으로 100.0을 기록하였으며 11월에도 건설기성액 감소와 소매판매액 지수 하락으로 전월대비 0.2 하락한 99.8을 나타냄.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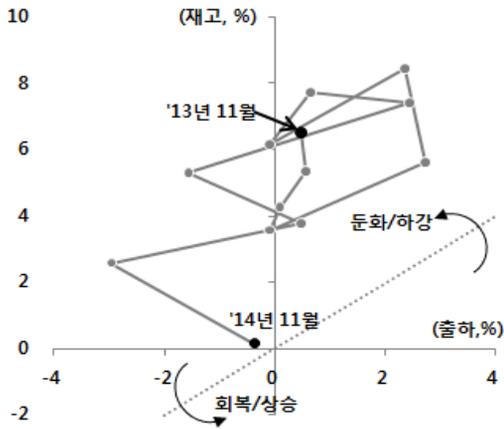
주: 2014년 2/4분기, 7월과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4년 11월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0.4% 줄어들었으나 재고는 0.2%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는 둔화/하강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sup>11)</sup>

○ 재고의 전반적인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출하대비 재고비율(재고율)은 119.8%로 2013년 11월에 비해 0.6%p 상승함.

- 또한 기업경기실사지수<sup>12)</sup>가 정체되고 있어 생산 활동의 본격적 개선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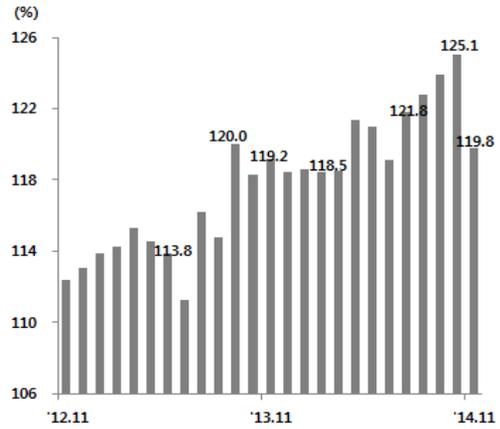
〈그림 2〉 제조업 재고 출하 순환도



주: 재고출하 순환도는 X축에 출하 전년동월비(계절조정), Y축에는 재고 전년동월비(계절조정)를 표시하여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경기 국면 변환을 판단하는 도표.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그림 3〉 제조업 재고/출하비율<sup>1)</sup>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내수부문〉

■ 2014년 3/4분기 소매판매는 전분기대비 0.7%p 상승한 1.4% 증가하여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이나 2014년 1/4분기 증가율보다 낮으며 10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고 11월에도 1.0% 증가하는데 그쳐 회복세가

11) 2014년 8~11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12) 한국은행 제조업업황실적 BSI(기업경기실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는 2013년 1월 이후 70~82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7월 이후 72~75로 기준치 100 이하에서 정체되고 있음. 이는 제조업업황실적에 대해 부정응답 업체 수가 긍정응답 업체 수보다 많음을 의미함.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sup>13)</sup>

- 2014년 3/4분기 내구재 판매의 경우 전분기대비 3.1%p 상승한 5.6% 증가하였으나 10월 승용차 판매의 일시적 부진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sup>14)</sup>에 따른 휴대전화 소비 감소<sup>15)</sup>로 1.3% 줄어들었다가 11월 7.1% 증가 전환함.
  - 승용차 판매의 경우, 2013년 증가율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개별소비세 인하<sup>16)</sup> 효과, 디젤 승용차 및 수입 RV(레저용 차량; Recreational Vehicle)에 대한 수요 확대 등으로 15.2%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10.9%, 19.7% 늘어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0.8% 늘어나는데 그쳐 회복세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월 1.5% 증가하였다가 11월 2.5% 감소함.
- 2014년 3/4분기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유가 및 물가상승률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0.6%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0.5%, 0.6% 줄어듦.

〈표 22〉 소비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sup>2)</sup>	10월 <sup>2)</sup>	11월 <sup>2)</sup>
민간소비	2.1	2.1	2.2	2.0	2.5	1.5	1.5		
소매판매	1.2	0.7	1.2	0.8	2.5	0.7	1.4	-0.2	1.0
내구재	2.9	-1.4	-1.5	0.3	6.0	2.5	5.6	-1.3	7.1
* 승용차	2.1	6.3	-3.4	2.1	14.1	15.6	15.2	10.9	19.7
준내구재	1.6	2.9	1.0	2.0	-1.8	-2.4	0.8	1.5	-2.5
비내구재	0.2	0.7	2.8	0.6	2.7	1.3	-0.6	-0.5	-0.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13) 소비자심리지수도 2014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1/4분기 108.3 → 2/4분기 106.7 → 3/4분기 106.3)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3.0을 기록하여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함.
- 14) 2014년 10월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불법 보조금 차별과 통신사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의 장려금 지급이 금지되어 보조금 상한선이 345,000원으로 확정되었음. 이에 따라 10월 법 시행 초기에 예상보다 낮은 지원금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가 급감하였음(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4. 10. 30)).
- 15)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일평균, 명): 2014년 1~9월 평균 58,363 → 2014년 10월 36,935 → 2014년 11월 54,957(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 1. 6)).
- 16) 2014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2000cc 이상 차종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에서 6%로 하향 조정됨.

■ 2014년 3/4분기 설비투자자는 수출 및 조선업 업황 부진 등으로 전분기대비 3.4%p 하락한 4.3% 증가하는데 그침.

○ 3/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광공업 생산 부진 지속에 따른 기계류 투자 감소 등으로 전분기대비 4.7%p 하락한 1.5% 상승하는데 그침.

- 10월 기계류 및 운송장비 모두 감소하면서 설비투자지수는 8.5% 하락하였으나 11월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0.6% 상승하는 등 설비투자지수 등락폭이 확대되었음.

○ 3/4분기 국내기계수주는 기저효과 및 공공부문의 일시적인 요인<sup>17)</sup>으로 50.2% 증가하였으며 10월 25.4% 감소하였으나 11월 전기업, 공공운수업, 석유정제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11.3% 늘어남.

〈표 23〉 투자 관련 지표 추이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sup>2)</sup>	10월 <sup>2)</sup>	11월 <sup>2)</sup>
설비투자	-3.9	1.5	10.9	6.7	7.3	7.7	4.3	-	-
설비투자지수	-4.0	2.7	10.4	-1.3	5.9	6.2	1.5	-8.5	10.6
기계류	-5.7	1.9	12.3	-2.6	4.8	2.7	-1.1	-6.6	10.0
운송장비	0.9	4.8	5.6	2.3	8.6	15.6	8.8	-13.5	12.0
국내기계수주 <sup>3)</sup>	8.8	2.2	32.4	6.7	17.9	4.4	50.2	-25.4	11.3
건설투자	9.8	8.8	5.4	-1.5	4.3	0.2	2.6	-	-
건설기성(불변)	15.0	10.5	9.7	10.1	6.5	0.1	-1.9	-5.7	-9.6
건축	19.7	15.3	18.7	14.8	17.1	11.9	5.9	1.9	-5.2
토목	9.3	4.3	-0.4	4.3	-7.4	-15.4	-13.2	-16.2	-16.1
국내건설수주(경상)	-29.5	-10.6	22.4	-15.3	15.5	26.1	45.6	2.3	-22.5
건축	-29.6	-10.8	17.9	-13.4	10.7	47.0	64.7	14.2	-25.7
토목	-29.4	-10.0	33.4	-19.1	24.4	-11.2	-4.2	-22.1	-14.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단, 설비투자자와 건설투자의 경우 2013년, 2014년 모두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17) 2014년 8월 공공부문의 국내기계수주가 전년동월대비 2,653.2% 증가하였음.

- 2014년 3/4분기 건설투자는 민간 부문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 투자 호조로 전분기대비 2.4%p 상승한 2.6% 증가하였음.
  - 3/4분기 건설기성은 토목부문 부진으로 1.9% 감소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5.7%, 9.6% 줄어들었음.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2013년 큰 폭으로 감소한데 대한 기저효과와 민간부문 신규 주택 및 재건축 주택 수주 증가로 3/4분기 45.6% 증가하였음.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4년 2/4분기에 이어 3/4분기에도 민간부문 신규 주택 및 재건축 주택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국내건설수주는 10월 2.3% 증가하였으나 11월 신규·재개발 주택, 항만·공항 등에서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2.5% 감소함.

#### 〈대외거래〉

- 2014년 11월 수출은 유럽 경기회복 지연, 엔화 약세 및 중국 업체와의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1% 감소한 468억 9,217만 달러, 수입은 4.0% 줄어든 413억 7,842만 달러를 시현하였고 무역수지는 55억 1,375만 달러 흑자를 달성함.
  - 수출의 경우, 중화학 공업품(+1.1%)을 제외한 식료 및 직접소비재(-4.1%), 원료 및 연료(-19.9%), 경공업 제품(-7.6%)이 전년동기대비 감소하였음.
  - 수입 품목별로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소비재(2.9%)와 자본재(7.9%)는 증가하였으나 원유 및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10.9%)는 유가 하락 및 투자 부진 등으로 감소하였음.

〈표 24〉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3.2	-7.2	2.7	-1.7	4.8	4.6	9.5	-1.5	-4.1
	원료 및 연료	-8.5	-9.3	-10.6	-6.5	-7.5	2.9	3.4	1.8	-19.9
	경공업 제품	-1.2	-8.5	-1.0	-3.6	-2.6	-0.4	-0.1	1.6	-7.6
	중화학 공업품	2.3	6.0	7.6	4.0	3.4	3.6	3.9	2.0	1.1
	전체	0.7	2.8	4.7	2.1	1.7	3.2	3.7	1.9	-2.1
	금액(억 달러)	1,412	1,368	1,464	5,596	1,376	1,457	1,418	514.4	468.9
수입	소비재	7.2	6.3	10.8	7.5	9.7	12.9	19.0	9.1	2.9
	원자재	-6.9	-2.9	-1.4	-3.7	0.9	0.8	0.9	-2.9	-10.9
	자본재	3.1	5.1	8.1	2.8	1.7	4.5	1.1	-8.2	7.9
	전체	-2.8	0.3	2.5	-0.8	2.0	3.2	5.4	-3.0	-4.0
	금액(억 달러)	1,268	1,260	1,331	5,156	1,323	1,308	1,329	442.3	413.8
무역수지(억 달러)		144.0	107.6	133.0	440.5	52.2	149.1	89.3	72.1	55.1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3) 수출과 수입은 2014년 8월까지 확정치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4년 11월 지역별 수출입의 경우 일본으로의 수출입이 감소하였음.

-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20.8%)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25.3%)과 EU(-6.8%)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동(-17.2%), 일본(-7.6%), 동남아(-8.1%)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2.9%), EU(+19.9%)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하였음.

〈표 25〉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11월	증감률	1~11월	증감률
미국	63.4	20.8	640.9	12.6	35.0	2.9	414.1	9.7
일본	25.3	-25.3	298.3	-6.8	43.5	-7.6	493.1	-10.7
EU	34.4	-6.8	476.5	5.9	52.0	19.9	566.2	11.4
동남아	102.5	-2.9	1,170.5	1.3	53.7	-8.1	649.5	1.4
중동	31.2	13.4	316.7	8.0	89.6	-17.2	1,105.0	-4.5
중국	124.9	-3.3	1,321.4	-0.6	76.9	6.1	814.6	7.2
중남미	34.1	46.4	327.1	-1.3	16.2	2.3	167.0	-1.9
전체수출(수입)	468.9	-2.1	5,233.7	2.3	413.8	-4.0	4,817.4	2.2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물가 및 고용〉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소폭 하락하였고,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었음. 가계소득 증가세는 소폭 확대되었고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상승하였음.

- 2014년 3/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1.4%를 나타냈으며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10월 1.2%, 11월 1.0%를 기록하며 하향세를 보임.
  - 3/4분기 상품가격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6%p 하락한 1.0%를 기록하였으며 농축수산물 가격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10월과 11월 각각 0.5%, 0.2%를 나타냄.
  - 반면 3/4분기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개인서비스 가격상승 등으로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7%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소비자기대지수는 전분기대비 1.6 하락한 114.1을 기록하였고 10월 107.8, 11월 103.0을 나타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함.

〈표 26〉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소비자기대지수 <sup>1)</sup>	111.3	112.5	114.1	111.4	118.4	115.7	114.1	107.8	103.0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4	1.1	1.3	1.1	1.6	1.4	1.2	1.0
〈품목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7	1.2	0.8	1.0	1.0	1.6	1.0	0.5	0.2
농축수산물	-0.6	0.1	-4.3	-0.6	-4.7	-2.2	-3.3	-1.9	-0.1
공업제품	0.2	1.1	1.4	0.9	1.6	2.0	1.6	0.6	-0.1
전기·수도·가스	5.7	3.5	4.2	4.5	5.4	4.2	3.4	3.2	2.1
서비스	1.7	1.5	1.3	1.5	1.3	1.6	1.7	1.7	1.6
집세	2.6	2.5	2.5	2.7	2.5	2.4	2.3	2.2	2.2
공공서비스	0.8	0.4	0.6	0.7	0.7	0.7	0.9	0.8	0.8
개인서비스	1.8	1.7	1.3	1.6	1.2	1.8	1.9	1.9	1.8

주: 1) 소비자 기대 및 평가지수가 2008년 8월까지 통계청에서 작성된 후 2008년 9월부터 한국은행 소비자 동향지수로 개편되었으나, 자료의 연속성을 위해 '85.0/77.0 × 향후경기전망CSI(Consumer Sentiment Index)'로 산출함.

2)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2014년 3/4분기 산업생산이 소폭 회복하면서 총취업자 수 증가율과 고용률이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하락함.

○ 3/4분기 총취업자 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2.0%를 기록하였으나 10월 1.6%, 11월 1.7%를 나타내며 하향세를 보임.

- 청년취업자 수는 3/4분기 2.7% 증가하였으나 10월 2.0%, 11월 1.3% 늘어나는데 그침.

○ 3/4분기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60.9%를 기록하였으며 10월 60.9%, 11월 60.8%를 나타냄.

- 3/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3%를 나타냈으며 10월 3.2%, 11월 3.1%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청년실업률의 경우 2014년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3/4분기 8.6%, 10월 8.0%, 11월 7.9%를 기록함.

〈표 27〉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총취업자 <sup>1)</sup>	1.3	1.7	2.2	1.6	3.0	1.8	2.0	1.6	1.7
청년취업자 <sup>1)</sup>	-2.3	-1.1	1.2	-1.3	2.6	1.4	2.7	2.0	1.3
고용률 <sup>2)</sup>	60.2	60.3	60.0	59.5	58.8	60.8	60.9	60.9	60.8
실업률 <sup>3)</sup>	3.1	3.0	2.8	3.1	4.0	3.7	3.3	3.2	3.1
청년 <sup>4)</sup> 실업률 <sup>3)</sup>	7.9	7.9	7.9	8.0	9.8	9.4	8.6	8.0	7.9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1.6	1.1	-1.0	-0.5	1.0	-3.2	-7.0	-8.3	-5.4
광공업	3.0	0.6	1.2	1.9	2.9	3.2	4.6	3.2	2.3
제조업	3.0	0.6	1.2	1.9	3.0	3.3	4.7	3.4	2.4
SOC <sup>5)</sup> 및 기타서비스업	1.2	2.0	2.6	1.6	3.2	2.0	2.3	2.1	2.2
건설업	-0.4	0.2	-0.5	-1.1	1.6	0.6	3.2	2.6	4.7
도·소매, 음식, 숙박	-0.2	0.7	2.6	0.6	5.5	3.8	4.9	4.9	3.7
전기, 운수, 통신, 금융	3.1	3.8	1.9	2.1	1.9	-0.5	-2.5	-1.2	-1.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1.7	2.5	3.6	2.7	2.4	1.9	2.1	1.4	1.9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4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취업자 수와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는 소폭 확대되었음.

-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수는 추세적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3/4분기 전년동기대비 7.0% 줄어들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8.3%, 5.4% 감소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sup>18)</sup>는 2013년 지속되었던 고용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였으며 10월 3.2%, 11월 2.3% 늘어남.
- 2014년 3/4분기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를 제외한 주요업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0.3%p 상승한 2.3% 증가하였으며 10월 2.1%, 11월 2.2% 늘어남.

18) 제조업 포함.

- 3/4분기 건설업 취업자 수는 건설투자가 소폭 확대되면서 전분기대비 2.6%p 상승한 3.2% 증가하였으며 10월과 11월 각각 2.6%, 4.7% 늘어남.
- 3/4분기 전기, 운수, 통신, 금융 취업자 수는 2.5% 줄어들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의 경우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분기대비 1.1%p 상승한 4.9% 늘어났으나 1/4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며 10월과 11월에도 각각 4.9%, 3.7% 늘어나는데 그침.
- 3/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취업자 수의 경우 2.1% 증가하였으나 2013년 3/4분기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0월 1.4%, 11월 1.9% 늘어나는데 그침.

■ 201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취업자 수 증가, 임대소득 증가, 7월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등<sup>19)</sup>으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3.0% 증가하였으며 월평균 소비지출도 3.3% 늘어남.

- 2014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8만 8,000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3.0%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증가율도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6% 증가함.
  -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5만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97만 4,000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7만 6,000원으로 전분기대비 0.2%p 상승한 3.3% 증가<sup>20)</sup>하였으며 실질소비지출은 1.9% 늘어나 흑자액은 1.6% 증가함.
  - 평균소비성향이 72.6%로 전년동기보다 0.4%p 상승하면서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27.4%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함.

19)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3/4분기 근로소득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임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소득이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2% 증가하였고, 7월부터 실시한 기초연금 증가로 이전소득이 4.9% 증가하였음.

20) 자동차 구입 증가로 교통비가 13.7% 늘어났으며 보험료 지출 증가로 기타상품·서비스 등이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으나, 학원비 등 교육비 등이 소폭 감소하였음.

〈표 28〉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관련 지표

(단위: %, %p)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만 원)	404.1	426.0	416.3	416.2	440.3	415.2	438.8
	증가율	2.5	2.9	1.7	2.1	5.0	2.8	3.0
	실질증가율 <sup>2)</sup>	1.3	1.6	0.7	0.8	3.9	1.1	1.6
처분가능 소득	금액(만 원)	328.7	345.2	340.4	338.1	365.3	338.1	355.0
	증가율	2.1	3.1	1.3	1.9	5.1	2.8	2.8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만 원)	240.3	249.4	248.4	248.1	265.4	247.8	257.6
	증가율	0.7	1.1	3.0	0.9	4.4	3.1	3.3
	실질증가율 <sup>2)</sup>	-0.4	-0.1	1.9	-0.4	3.2	1.5	1.9
흑자액	금액(만 원)	88.4	95.9	92.0	90.0	90.9	90.3	97.4
	증가율	6.1	8.6	-3.0	4.7	7.3	2.2	1.6
평균소비성향 <sup>3)</sup>		73.1	72.2	73.0	73.4	74.5	73.3	72.6
흑자율 <sup>4)</sup>		26.9	27.8	27.0	26.6	25.5	26.7	27.4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 3. 금융경제

#### 〈금리〉

2014년 10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0%로 하향 조정함. 2014년 4/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국내경기 둔화 우려,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 중국의 예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2014년 3/4분기보다 33bp 하락한 2.17%를 기록함.

- 2014년 10월 15일 한국은행은 2013년 3/4분기 2.25%로 하향 조정한 기준금리를 2.00%로 다시 하향 조정함.
  - 금융통화위원회는 향후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경기부진 장기화, 일부 신흥시장국 성장세 약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함.
  - 또한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의 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 미흡, 경제주체들의 심리 부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낮은 수준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하향 조정을 결정함.
  
- 2014년 4/4분기 평균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국내경기 둔화 우려, 일본은행 및 중국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33bp 하락한 2.17%를 기록함.
  - 10월 국고채 금리는 국내경기 둔화 우려, 일본은행 추가 양적완화 결정 등의 영향으로 9월 평균 2.41%에서 13bp 하락하여 평균 2.24%를 기록함.
  - 11월 국고채 금리는 중국인민은행의 금융기관 예대금리 인하, ECB의 자산매입 확대 전망 등의 영향으로 10월 평균 국고채 금리 수준보다 10bp 하락하여 평균 2.14%를 기록함.
  -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과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기대 등의 영향이 혼재하며 평균 2.14%를 나타내며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2014년 4/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2.16%로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신용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5bp 감소함.

- 4/4분기 CD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평균 2.16%를 나타내며 전분기대비 35bp 하락하였음.
- 4/4분기 평균 ‘국고채(3년)-CD(91일)’ 간 스프레드는 전분기대비 2bp 상승한 1bp를 기록하며 장단기금리 역전현상이 사라짐.
- 회사채 금리는 4/4분기 평균 2.51%로 전분기대비 38bp 하락하였고, 신용 스프레드는 평균 34bp로 전분기대비 5bp 하락함.
  - 4/4분기 회사채 금리는 국고채 금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메리트 부각으로 투자 수요가 지속됨에 따라 국고채(3년 만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함.

〈표 29〉 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

(단위: %, %p)

구분	2013 4/4	2014 1/4	2014 2/4	2014 3/4	2014 4/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기준금리	2.50	2.50	2.50	2.25	2.00	-0.25	-0.50
CD(91일)	2.65	2.65	2.65	2.51	2.16	-0.35	-0.49
국고채(3년)	2.90	2.87	2.82	2.50	2.17	-0.33	-0.73
회사채(3년, AA-)	3.33	3.30	3.25	2.89	2.51	-0.38	-0.82
스프레드(국고채-CD)	0.25	0.22	0.17	-0.01	0.01	0.02	-0.2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3	0.43	0.43	0.39	0.34	-0.05	-0.09

주: 금리는 분기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환율〉

2014년 4/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86.7원으로 2014년 3/4분기 1,025.8원보다 61.4원 상승함.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상승세를 보임.

■ 2014년 4/4분기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으로 평균 1,086.7원을 기록함.

- 10월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으나 월말 일본의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 계획 발표의 영향으로 반등하여 평균 1,060.3원을 기록함.
- 11월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지속과 원/엔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여 평균 1,095.1원을 나타냄.
- 1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과 일본 및 유로지역의 양적완화 정책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외환당국의 외환 시장 개입 경계감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며 상승하여 1,104.3원을 기록함.

〈표 30〉 환율 추이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3	2014						
	4/4	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원/달러	1,061.8	1,069.0	1,030.4	1,025.8	1,086.7	1,060.3	1,095.1	1,104.3
엔/달러	100.5	102.8	102.2	103.8	114.5	107.9	116.2	119.4
달러/유로	1.361	1.370	1.371	1.328	1.249	1.268	1.248	1.233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 2014년 4/4분기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 경제 회복세 둔화에 따른 유럽의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가능성,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결정 등의 영향으로 엔화와 유로화에 대하여 강세를 보임.

- 10월 달러화는 일본의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 발표, ECB의 추가 양적완화 도입 가능성에 따라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9월 평균 107.4엔에서 소폭 상승한 107.9엔을 나타내고, 달러/유로 환율은 9월 평균 1.292달러에서 하락한 1.268달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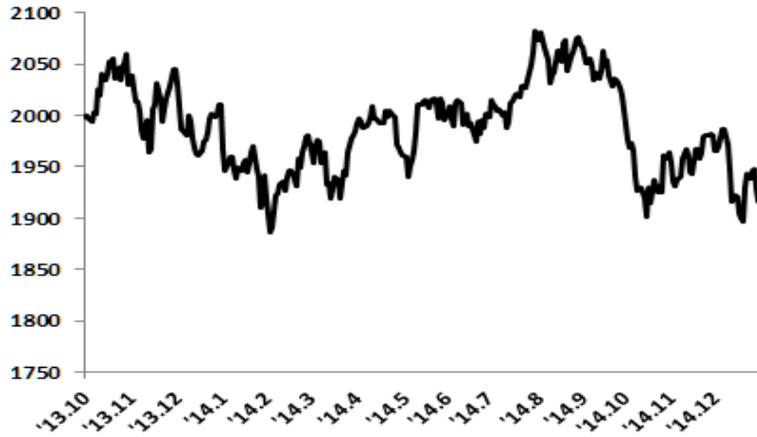
- 11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 여파의 지속과 소비세 인상 연기 전망 영향에 따라 상승하여 평균 116.2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의 경기 회복 둔화 지속과 ECB 자산매입 확대 전망의 영향으로 하락하여 평균 1.248달러를 기록함.
- 12월 달러화는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과 일본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의 여파, 유로존 경기 회복 둔화 및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으로 엔화 및 유로화에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환율은 하락하여 각각 평균 119.4엔과 1.233달러를 나타냄.

#### 〈주가지수〉

2014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증시 호조 등의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 중국 경기 둔화, 유로지역 경기 회복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전분기 평균 2,041.86보다 하락한 평균 1,948.31을 기록함.

- 2014년 4/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증시 호조 및 대외 불확실성 완화의 상승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유가 급락, 중국 경기성장 둔화 우려 등의 하방위험이 더 큰 영향으로 작용하며 하락세를 보임.
  - 10월 종합주가지수는 유로지역 경제지표 부진,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악화 우려, 외국인 순매도 확대의 영향으로 9월 평균인 2,042.71보다 하락한 1,942.80을 기록함.
  - 11월 종합주가지수는 평균 1,959.65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정책 기조 지속, 외국인 순매수 등의 상승요인과 엔화 약세 등 하락요인이 혼재로 10월보다 소폭 상승함.
  - 1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1,941.93으로 유가 급락, 중국 경기성장 둔화 우려, 러시아 발 경제 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하였음.

〈그림 4〉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지금흐름〉

2014년 3/4분기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6.7%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융권 순수신의 경우 은행과 증권을 제외한 은행과 종합금융은 감소하고, 증권과 자산운용은 증가세를 보임.

- 2014년 3/4분기 보험권 총순수신은 13조 5,769억 원으로 전분기대비 6.7% 감소함.
  - 3/4분기 생명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5.8% 감소한 10조 4,478억 원임.
    -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 모두 각각 전분기대비 3.6%, 1.9% 감소하였으며 수입보험료 감소율이 지급보험금 감소율을 상회함.
  - 3/4분기 손해보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9.6% 감소한 3조 1,291억 원임.
    - 원수보험료는 0.7% 감소하고 지급보험금이 1.46% 증가하며 손해보험 순수신이 감소함.
  
- 2014년 3/4분기 금융권 순수신은 은행과 종합금융사는 감소하고, 증권과 자산운용은 증가함.
  -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이 전분기대비 22조 5,553억 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정이 전분기대비 86%나 감소하면서 전체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69% 감소한 7조 6,442억 원을 기록함.

- 이는 수신금리 하락에 따른 정기예금의 부진과 CD 및 은행채 부진의 영향임.
- 증권사의 경우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의 영향으로 전체 순수신이 전분기대비 3조 4,390억 원 증가한 19조 6,161억 원을 기록함.
- 자산운용업의 총순수신은 전분기대비 17조 9,215억 원 증가하여 19조 6,161억 원 임.
  - 시장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와 신종펀드에 대한 상대적 고수익에 대한 기대의 영향으로 채권형펀드와 신종펀드가 증가함.
- 종합금융 순수신은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전분기대비 69.8% 감소한 826억 원을 나타냄.

〈표 31〉 금융권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sup>1)</sup>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
- 생보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
수입보험료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
지급보험금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
- 손보	31,889	29,722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
원수보험료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
원수손해액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
은행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 일반 <sup>2)</sup>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 신탁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증권 <sup>3)</sup>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자산운용 <sup>4)</sup>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총금 <sup>5)</sup>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Ⅲ. 국내보험시장 동향

### 1. 보험산업 총괄

#### 가. 수입보험료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각 6.5%, 4.6%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 5.7% 증가한 43조 4,576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sup>1)</sup> 보험산업 수입(원수)보험료의 경우 일반손해보험을 제외한 생명·손해보험 전 종목이 증가세를 보여,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대비<sup>2)</sup> 5.7% 늘어난 43조 4,576억 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5% 증가한 25조 5,554억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소폭 증가와 자동차보험 회복세로 4.6% 늘어난 17조 9,023억 원을 기록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sup>1),2)</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생명보험	115.3 (31.3)	24.5 (-0.1)	24.0 (-14.7)	28.7 (-8.3)	77.2 (-8.0)	25.7 (-17.8)	26.5 (8.1)	25.6 (6.5)
손해보험	68.5 (12.4)	17.4 (3.3)	17.1 (2.3)	19.3 (6.8)	53.8 (4.2)	18.3 (8.0)	18.0 (3.8)	17.9 (4.6)
합계	183.9 (23.6)	41.9 (1.3)	41.1 (-8.3)	48.0 (-2.8)	130.4 (-3.4)	44.1 (-8.8)	44.5 (6.4)	43.5 (5.7)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손해보험은 원수보험료 기준임.

2)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회계연도 개편으로 FY2013은 2013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으며, 2014년 3/4분기는 2014년 7월부터 9월 까지를 말함.

2) 2014년 3/4분기의 전년 동기간은 FY2013 2/3분기인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를 의미하며, 이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함.

나. 총자산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총자산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대비 2.7% 늘어난 831조 7,664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모두 일반계정 자산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7% 늘어난 831조 7,664억 원을 나타냄.
  - 생명보험 총자산 규모는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증가로 전분기대비 2.5% 증가함.
  - 손해보험 총자산 규모는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적립금 및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전분기대비 3.4% 늘어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sup>1),2)</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생명보험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625.0	640.4
	(24.4)	(-0.1)	(2.6)	(2.3)	(9.1)	(2.0)	(2.6)	(2.5)
손해보험	156.5	160.3	165.1	170.6	170.6	176.9	185.1	191.4
	(20.5)	(2.5)	(3.0)	(3.3)	(12.4)	(3.7)	(4.6)	(3.4)
합계	726.3	729.8	749.2	768.0	768.0	786.1	810.2	831.8
	(23.5)	(0.5)	(2.6)	(2.5)	(9.8)	(2.4)	(3.1)	(2.7)

주: 1) 주요지표에는 특별계정이 포함되어 있음.

2)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이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수익성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보다 소폭 상승한 반면, 손해보험 자본이익률은 다소 하락하여 전년동기와 동일한 2.0%를 나타냄.

■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자본이익률의 경우 생명보험은 상승하였으나 손해보험(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제외)은 하락하여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2.0%를 나타냄.

-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2.0%를 기록함.
-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기중자본 증가율을 하회하여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2%를 나타냄.

〈표 3〉 보험산업 자본이익률<sup>1),2)</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4)</sup>	1/4	2/4	3/4
생명보험	6.6	1.6	1.8	0.7	4.1	1.9	2.0	2.0
손해보험	11.6	2.9	2.4	1.5	7.0	2.6	3.0	2.2
합계	7.8	2.0	2.0	0.9	4.8	2.1	2.3	2.0

주: 1) 생명 및 손해보험회사는 농협생명·화재보험의 진입으로 FY2012 1/4분기부터 각각 24개, 18개 국내외 보험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FY2013 3/3분기 이후 생명보험회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진입으로 25개 회사를 분석대상으로 함.

2)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3)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회계연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5)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2.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 〈생명보험 개요〉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에 비해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6.5% 증가한 25조 5,554억 원을 기록함(〈표 4〉참조).
  - 개인보험의 경우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 수입보험료가 모두 증가하며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43.5%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이익 증가에 따른 채권자산 증가로 전분기대비 2.5% 증가함.
  - 이는 금리하락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2014년 3/4분기 국고채(3년 만기) 금리는 2.50%로 2/4분기 2.82%에 비하여 0.32%p 하락함.

〈표 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sup>1)</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수입보험료 <sup>2)</sup>	115.3	24.5	24.0	28.7	77.2	25.7	26.5	25.6
	(31.3)	(-0.1)	(-14.7)	(-8.3)	(-8.0)	(-17.8)	(8.1)	(6.5)
총자산	569.8	569.5	584.1	597.5	597.5	609.2	625.0	640.4
	(24.4)	(-0.1)	(2.6)	(2.3)	(9.1)	(2.0)	(2.6)	(2.5)

주: 1) ( ) 안은 수입보험료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로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하였고,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 특별계정 보험종목인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 2014년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증가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함.

-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경쟁력 및 비과세 혜택 유지로 8.9% 증가하였으나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함.
  -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냄.
  - 세제적격 연금인 개인연금 수입보험료는 0.4% 감소하였는데, 이는 초회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계속보험료가 0.3% 감소세로 전환된 데 기인함.
- 사망보험 수입보험료는 가장 비중이 큰 종신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면서 4.6% 증가함.
  - 종신보험과 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6.0%, 3.3% 증가하였으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종신보험 초회보험료는 100.0% 증가하였으나 질병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가 35.7% 감소하면서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신계약위주의 성장세를 보임.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6.4% 증가하면서 2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였음.
  - 생사혼합보험 상품은 기저효과 소멸로 2/4분기 이후 초회보험료 위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초회보험료 성장률은 2/4분기 16.6%에서 3/4분기 4.5%로 하락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2014년 2/4분기까지 감소세였으나 변액유니버설 수입보험료 증가에 힘입어 3/4분기 0.5% 증가세로 전환됨.
  - 변액연금 수입보험료는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초회보험료 및 계속보험료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9.4% 감소하였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계속보험료가 증가하면서 7.3% 증가하였으며, 변액종신보험 또한 계속보험료 위주로 15.2% 증가함.
  - 변액CI보험이 포함된 변액보험 기타 종목은 전년동기대비 25.3% 증가하면서 7분기 연속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2014년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3.5%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2.5% 증가하였으며, 퇴직보험 수입보험료는 계속보험료의 유입으로 17.3%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미미함.

-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분기 감소세였으나 증가세를 회복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2013년 12월 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에 따라 증가세를 지속하여 전년동기대비 55.1%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대비 37.3% 감소함.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sup>1),2)</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생존	보험료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증가율	87.6	-8.9	-39.6	-39.2	-32.0	-40.6	14.1	8.9
	구성비	29.2	21.7	22.5	19.3	21.1	22.5	22.9	23.0
사망	보험료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증가율	7.4	3.3	4.1	4.0	3.8	3.6	4.1	4.6
	구성비	26.7	32.2	33.1	27.9	30.9	31.6	31.0	32.5
생사 혼합	보험료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증가율	81.1	3.3	-15.4	-13.2	-9.0	-25.5	8.5	6.4
	구성비	19.2	19.4	19.3	16.0	18.1	19.7	19.5	19.2
변액 보험	보험료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증가율	-0.3	0.4	-0.8	-2.5	-0.9	-6.2	-2.5	0.5
	구성비	18.4	21.5	21.4	17.9	20.1	20.2	19.3	20.2
개인계	보험료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증가율	34.6	-0.4	-15.1	-15.0	-10.6	-19.2	5.8	5.0
	구성비	93.6	94.8	96.3	81.1	90.2	93.9	92.7	95.0
단체	보험료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증가율	-3.1	5.3	-2.4	38.6	25.7	13.2	51.2	43.5
	구성비	6.4	5.2	3.7	18.9	9.8	6.1	7.3	5.0
합계	보험료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증가율	31.3	-0.1	-14.7	-8.3	-8.0	-17.8	8.1	6.5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생존보험과 단체보험은 상승하고,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변액보험은 하락함.

○ 생명보험 전종목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은 생존보험과 단체보험의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0.5%p, 1.3%p 높아져 각각 23.0%, 5.0%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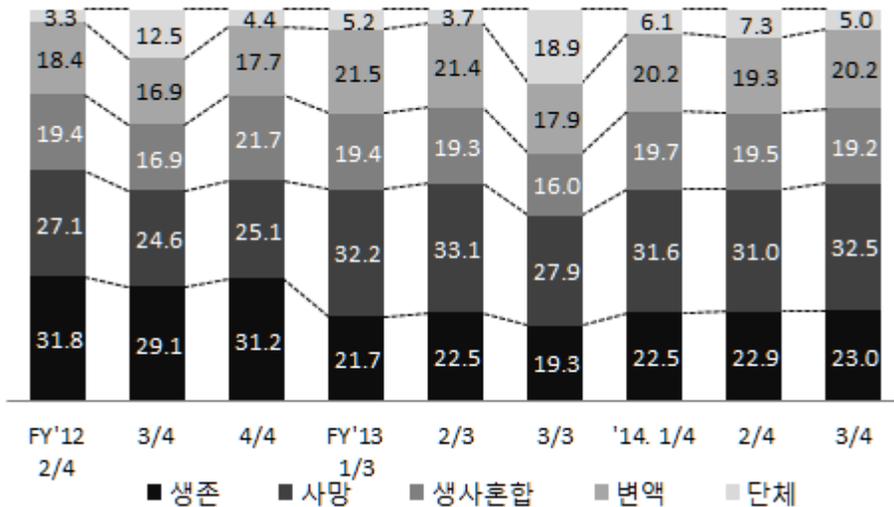
○ 사망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6%p, 1.2%p 감소하여 각각 32.5%, 20.2%를 기록하였음.

- FY2013부터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0.1%p 감소한 19.2%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의 경우 상위 3개사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반면, 외국사 점유율은 하락하였음.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48.0%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2%p 상승한 37.8%를 기록한 반면, 외국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한 14.2%를 기록함.
  - 이는 외국사로 분류되었던 ING생명이 2014년 국내 법인에 인수되면서 국내 중·소형사로 편입된 영향이 존재함.

■ 2014년 3/4분기 허핀달 지수는 국내 중·소형사 점유율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0.001 상승한 0.1082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시장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5)</sup>	1/4	2/4	3/4
상위 3개사	50.3	46.8	48.1	53.2	49.6	47.5	48.2	48.0
국내 중·소형사 <sup>2)</sup>	33.9	36.7	34.6	31.3	33.5	38.6	38.2	37.8
외국사 <sup>3)</sup>	15.8	16.4	17.3	15.6	16.9	13.9	13.7	14.2
허핀달 지수 <sup>4)</sup>	0.1199	0.1062	0.1072	0.1284	0.1140	0.1070	0.1088	0.1082

주: 1) 퇴직연금·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국내 중·소형사(15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정의하며 2013년 말 ING생명이 국내법인에 매각되어 2014년 1/4분기부터 국내 중·소형사에 포함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으로 2014년 9월 말 알리안츠생명 등 8개사임.

4)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5)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3%p 상승한 59.1%를 기록함.

○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지급보험금 증가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3.8%p, 4.8%p 상승하여 각각 52.8%, 59.3%로 나타남.

- 생존보험의 경우 일반 및 개인연금의 환급금이 증가하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함.

○ 사망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은 수입보험료 증가와 지급보험금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51.3%로 나타남.

○ 변액보험은 환급금 증가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증가했으며,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보험금 지급률이 전년동기대비 10.5%p 상승한 65.1%를 기록함.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한 영향으로 전체 보험금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3.4%p 상승한 113.5%로 나타남.

■ 수입보험료 대비 실제 지출한 사업비의 비율인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0.9%p 하락한 14.6%로 나타났으며, 해지율은 FY2013 3/3분기 대비 0.2%p 하락한 7.0%를 기록함.<sup>3)</sup>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sup>1)</sup>	49.1	55.4	54.8	52.9	54.2	60.4	58.1	59.1
개인	47.1	52.9	53.0	57.8	54.6	57.0	54.8	56.2
생존	32.8	49.1	49.0	53.8	50.7	53.1	49.5	52.8
사망	56.3	54.3	53.9	55.1	54.4	55.8	50.6	51.3
생사혼합	47.3	58.1	54.5	60.4	57.6	64.8	58.1	59.3
변액	56.0	49.8	54.6	64.1	56.1	55.5	64.4	65.1
단체	78.4	100.7	100.1	31.7	51.3	113.7	100.9	113.5
사업비율 <sup>2)</sup>	14.0	15.0	15.5	14.0	14.8	14.1	15.0	14.6
해지율 <sup>3)</sup>	10.0	2.5	5.0	7.2	7.2	2.6	4.9	7.0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2) 사업비율 = 실제사업비 / 수입보험료

3)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해지율은 누계치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3/3분기와 비교함.

나. 경영수지

〈총수익·총비용〉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전년동기에 비해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한 1조 853억 원을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모든 종목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고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비용의 감소로 3.9% 증가함.

○ 책임준비금전입액은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9조 6,972억 원임.

〈표 8〉 생명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88,640	18,476	18,446	18,694	55,616	19,541	19,932	19,606
	투자영업	22,651	6,540	5,753	6,180	18,473	6,120	7,059	5,410
	영업외	4,039	1,011	1,012	1,079	3,102	1,031	1,027	1,159
	소계	115,330	26,027	25,211	25,953	77,190	26,693	28,018	26,175
총비용	보험영업	57,144	14,028	13,883	14,893	42,804	15,370	14,870	14,739
	투자영업	3,385	1,494	728	1,175	3,397	900	1,461	191
	영업외	674	205	190	301	695	204	161	204
	소계	61,203	15,726	14,801	16,369	46,896	16,474	16,493	15,134
수지차	보험영업	31,496 (122.2)	4,448 (-2.0)	4,563 (-46.6)	3,801 (-55.4)	12,812 (-40.7)	4,171 (-57.8)	5,062 (13.8)	4,868 (6.7)
	투자영업	19,266 (15.2)	5,046 (9.5)	5,024 (2.5)	5,005 (6.3)	15,076 (6.0)	5,220 (3.4)	5,598 (10.9)	5,219 (3.9)
	영업외	3,365	807	822	778	2,407	828	866	954
	소계	54,127	10,301	10,410	9,584	30,294	10,218	11,526	11,041
책임준비금전입		50,216	9,142	9,207	9,112	27,461	9,096	10,194	9,697
법인세		711	309	296	135	740	182	277	258
당기순이익		3,200 (-5.1)	850 (0.7)	906 (-2.0)	337 (-52.2)	2,093 (-15.4)	941 (29.7)	1,055 (24.1)	1,085 (19.8)

주: 1)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2)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부채 및 자본〉

■ 2014년 3/4분기 총부채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의 증가로 10.7% 증가함.

○ 총부채 항목 중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9.3%, 11.3% 증가하였고, 총자본 항목 중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각각 12.3%, 18.7% 증가함.

(표 9) 생명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sup>1)</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394	403	412	421	431	441	451
	증가율	27.6	14.3	12.8	11.3	9.3	9.4	9.3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9	7	7	7	7	8	8
	증가율	29.6	0.4	-15.8	-21.0	-25.6	4.6	6.1
기타부채	금액	15	14	13	13	13	13	14
	증가율	18.5	-0.4	-6.3	-9.6	-11.7	-5.0	5.5
특별계정부채	금액	97	96	100	106	107	109	112
	증가율	12.0	11.7	11.5	12.6	11.0	14.3	11.3
부채총계	금액	515	520	533	547	558	571	584
	증가율	24.1	13.2	11.5	10.3	8.4	9.8	9.5
자본금	금액	9	9	10	10	10	10	10
	증가율	7.6	1.9	3.5	2.8	2.8	3.3	1.3
자본잉여금	금액	6	6	6	6	6	6	6
	증가율	89.5	9.8	9.2	2.4	1.8	1.4	1.4
이익잉여금	금액	21	22	22	23	23	24	25
	증가율	12.7	13.1	12.2	10.4	8.8	11.9	12.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19	14	14	13	14	15	17
	증가율	48.7	5.2	-16.5	-22.5	-28.9	12.1	18.7
자본총계	금액	55	49	51	50	51	54	56
	증가율	27.1	7.7	0.2	-3.1	-6.9	8.8	10.7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570	570	584	597	609	625	640
	증가율	24.4	12.7	10.4	9.1	6.9	9.7	9.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4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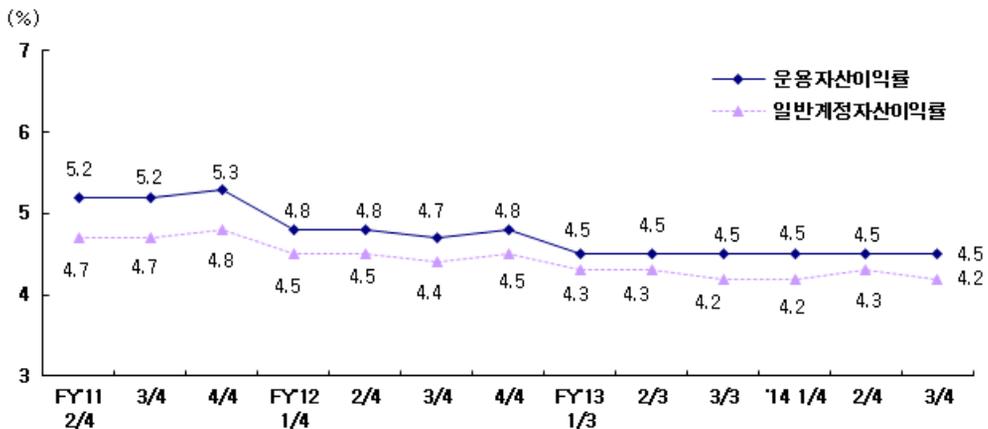
■ 2014년 3/4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4.5%로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전년동기 이익률보다 0.1%p 하락한 4.2%를 나타냄.

○ 운용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매도가능증권의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1%로 나타남.

- 그러나 만기보유증권 이익률이 국공채 위주로 이익률이 소폭 개선되면서 운용자산 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함.

■ 일반계정 중 투자자산 비중은 유가증권 71.4%, 대출채권 17.8%, 부동산 2.8%, 현금과 예금 2.8%임.

〈그림 2〉 운용자산 이익률<sup>1),2),3)</sup> 추이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 환산)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10〉 생명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2/3		3/3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4.3	100.0	4.2	100.0	4.2	100.0	4.3	100.0	4.2
운용자산 계	94.3	4.5	94.3	4.5	94.4	4.5	94.5	4.5	94.8	4.5
현금과 예금	2.8	2.8	2.7	2.8	2.7	3.1	2.9	3.0	2.8	3.3
유가증권	70.8	4.1	70.7	4.1	70.9	4.2	71.0	4.3	71.4	4.2
○ 당기손익인식증권 <sup>3)</sup>	3.3	1.5	2.2	2.2	2.6	3.0	2.5	3.5	2.9	3.3
- 주식	0.1	-3.6	0.1	0.0	0.1	-0.8	0.1	0.4	0.1	5.8
- 채권 등	0.7	2.1	0.7	2.9	0.7	4.3	0.7	4.2	0.8	4.6
- 수익증권	2.5	1.6	1.5	2.1	1.8	2.6	1.7	3.3	2.0	2.7
○ 매도가능증권	49.7	4.1	49.7	4.1	48.9	4.3	49.1	4.3	49.3	4.2
- 주식	4.5	1.6	4.4	1.2	4.3	4.4	4.1	6.8	3.8	4.9
- 채권 등	42.4	4.4	42.3	4.4	41.5	4.2	41.8	4.1	42.2	4.1
- 수익증권	2.9	4.0	3.1	3.8	3.2	5.0	3.2	4.9	3.2	4.9
○ 만기보유증권	16.2	4.6	17.2	4.6	17.8	4.4	17.8	4.4	17.6	4.5
- 채권 등	16.2	4.6	17.2	4.6	17.8	4.4	17.8	4.4	17.6	4.5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6	4.9	1.5	4.1	1.6	2.4	1.6	2.5	1.7	2.4
대출채권	17.7	6.4	17.9	6.4	17.8	5.9	17.8	5.9	17.8	5.9
부동산	3.0	3.7	3.0	3.4	3.0	3.2	2.9	3.4	2.8	3.5
비운용자산	5.7	0.3	5.7	0.3	5.6	-0.1	5.5	0.7	5.2	0.4
총자산	100.0	3.7	100.0	3.9	100.0	3.5	100.0	3.9	100.0	4.0
일반계정	83.0	4.3	82.9	4.2	82.6	4.2	82.7	4.3	82.7	4.2
특별계정	17.0	1.1	17.1	2.1	17.4	0.3	17.3	1.8	17.3	2.9
총자산 규모	5,840,714		5,974,801		6,092,048		6,250,250		6,403,859	

주: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1 1/4분기 이후 단기매매증권에서 당기손익인식증권으로 계정 명칭이 변경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본이익률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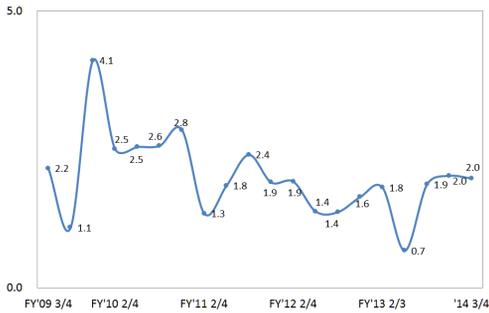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총자본 증가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 대비 0.2%p 상승한 2.0%를 기록함.

○ 생명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19.8% 증가하고 총자본(자본총계)은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하면서 자본이익률이 상승함.

○ 1개의 외국사, 2개의 중·소형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음(-)의 자본이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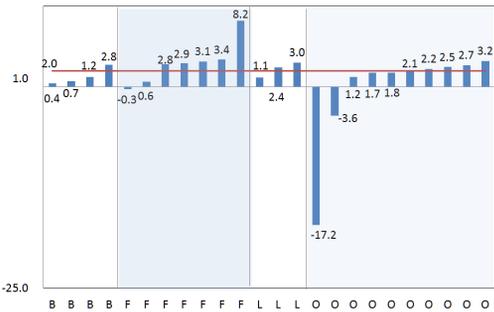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4〉 회사별 자본이익률<sup>1),2)</sup>

(단위: %)



주: 1) B, F, L, O는 각각 방카사,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3/4분기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하였고,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전년동기대비 자본이익률이 상승한 반면, 방카사<sup>5)</sup>는 하락함.

4)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 $R_t / E_t^o$ )을 의미하며, 분석 대상은 FY2012 1/4분기 농협생명보험, FY2013 3/3분기 교보라이프플래닛이 포함되어 25개 생명보험회사임.

5) 방카사는 은행지주 계열사 중 KB생명, 우리아비바생명, 하나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함.

- 대형사 자본이익률은 총자본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인 1.8%를 유지함.
- 중·소형사는 당기순이익 증가의 영향으로 자본이익률이 전년동기대비 1.0%p 상승하여 2.0%를 기록하였음.
- 외국사의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총자본 감소율이 당기순이익 감소율을 상회하여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3.3%를 나타냄.
- 방카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하여 1.0%의 자본이익률을 기록함.

〈표 11〉 생명보험산업 자본이익률 추이<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sup>2)</sup>	1/3	2/3	3/3	연간 <sup>2),3)</sup>	1/4	2/4	3/4
대형사	6.4	1.5	1.8	0.6	3.8	2.1	2.1	1.8
중·소형사	7.1	1.4	1.0	0.7	3.0	1.7	1.8	2.0
외국사	7.3	2.4	3.0	1.0	6.6	1.5	2.8	3.3
방카사	1.4	0.6	1.5	0.1	2.0	0.3	-1.6	1.0
전체	6.6	1.6	1.8	0.7	4.1	1.9	2.0	2.0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 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2014년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설계사와 방카슈랑스 채널이 소폭 하락한 반면, 임직원 판매채널 비중은 상승함.

- 2014년 3/4분기 방카슈랑스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한 58.0%로 2분기 연속 감소추세임.
- 설계사 판매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3%p 하락한 20.9%를 기록하였으며, 대리점의 경우 소폭 상승하여 7.4%를 기록함.
  - 설계사 채널의 변액보험 및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감소가 설계사 판매비중 하락의 원인임.
- 임직원 판매비중은 임직원 판매채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p 상승한 13.4%를 나타냄.

〈표 12〉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2)</sup>	1/4	2/4	3/4
임직원	4.5	12.1	9.6	27.8	17.3	15.5	17.0	13.4
설계사	21.0	20.3	22.2	18.9	20.3	18.0	16.8	20.9
대리점	6.3	5.7	7.2	7.2	6.7	5.7	6.0	7.4
중개사	0.0	0.0	0.0	0.0	0.0	0.0	0.0	0.1
방카슈랑스	68.1	61.7	60.8	45.8	55.4	60.5	60.0	58.0
기타	0.0	0.2	0.2	0.3	0.3	0.3	0.1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07,114	33,279	29,262	38,030	100,570	39,751	42,865	35,463

주: 1) 합계의 하단 수치는 전체 초회보험료 규모임.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모집조직〉

■ 2014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의 경우 전분기대비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모두 감소하였음.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1,244명 감소한 27,288명으로 2분기 연속 감소추세임.
- 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3,128명 감소하였으며, 교차설계사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속설계사가 3,557명이 감소하여 전체 설계사 수는 총 13만 2,900명으로 나타남.
- 대리점 수는 법인대리점은 증가하였으나 개인대리점이 감소하면서 전분기대비 총 74개 감소한 7,113개임.

〈표 13〉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임직원	30,578	30,744	30,380	30,453	28,532	27,288
설계사	151,805	149,083	143,075	139,161	136,028	132,900
- 전속	142,391	140,943	135,729	131,899	128,866	125,309
- 교차	9,414	8,140	7,346	7,262	7,162	7,591
대리점	7,484	7,335	7,035	7,062	7,187	7,113
- 개인	4,141	4,023	3,855	3,820	3,876	3,768
- 법인	3,343	3,312	3,180	3,242	3,311	3,345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손해보험

####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 〈손해보험 개요〉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소폭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6% 늘어난 17조 9,023억 원을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의 실적 부진에도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이 호조세를 보여 4.9% 증가한 11조 1,241억 원을 시현함.
  - 연금부문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1조 4,395억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여력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3.5% 감소하였으며,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66.0% 증가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영업용·업무용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수입차 평균보험료 인상 등으로 6.4% 증가한 3조 4,259억 원을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이 감소하여 3.5% 줄어든 1조 9,128억 원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 말 손해보험 총자산은 일반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자산이 모두 늘어나 전분기대비 3.4% 증가한 191조 3,805억 원을 기록함.
  - 일반계정 자산은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적립금 증가와 이자수익 증가 등으로 3.5% 늘어났으며, 특별계정 자산은 퇴직연금 자산증가로 0.3% 증가함.

〈표 1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sup>1)</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원수보험료	68.5	17.4	17.1	19.3	53.8	18.3	18.0	17.9
	(12.4)	(3.3)	(2.3)	(6.8)	(4.2)	(8.0)	(3.8)	(4.6)
장기손보	40.2	10.3	10.6	10.6	31.5	11.1	11.0	11.1
	(17.7)	(4.9)	(5.4)	(6.4)	(5.6)	(7.5)	(6.1)	(4.9)
연금부문 <sup>2)</sup>	7.4	1.7	1.3	3.3	6.3	2.0	1.6	1.4
	(11.1)	(3.1)	(-10.8)	(17.2)	(6.3)	(29.5)	(-4.3)	(9.9)
자동차	12.8	3.2	3.2	3.3	9.7	3.2	3.4	3.4
	(-1.5)	(-0.9)	(0.1)	(2.0)	(0.4)	(3.2)	(4.1)	(6.4)
일반손해	8.1	2.1	2.0	2.1	6.2	2.0	2.1	1.9
	(13.9)	(2.6)	(0.1)	(1.6)	(1.5)	(1.5)	(-1.2)	(-3.5)
총자산 <sup>3)</sup>	156.5	160.3	165.1	170.6	170.6	176.9	185.1	191.4
	(20.5)	(2.5)	(3.0)	(3.3)	(12.4)	(3.7)	(4.6)	(3.4)
일반계정	150.2	154.3	158.9	164.0	164.0	169.3	177.4	183.7
	(20.2)	(2.7)	(3.0)	(3.2)	(12.3)	(3.3)	(4.8)	(3.5)
특별계정	6.3	6.0	6.2	6.6	6.6	7.6	7.7	7.7
	(27.8)	(-3.7)	(2.0)	(7.3)	(14.4)	(14.7)	(1.3)	(0.3)

주: 1) ( ) 안의 경우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고,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하였으며,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연금부문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3) 총자산 및 증가율은 IFRS의 변경된 계정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 1) 장기손해보험

■ 2014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11조 1,241억 원을 나타냄.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6.6% 감소한 2조 8,642억 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FY2013동안 지속된 신규수요 감소로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임.
- 장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꾸준한 신규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11.4% 증가한 2조 9,999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질병보험 원수보험료는 초회보험료 증가세 둔화에도 양호한 계속보험료 증가율이 유지됨에 따라 18.1% 증가한 2조 4,181억 원을 나타냄.
- 장기 운전자보험 원수보험료는 수요확대와 신상품 출시 등으로 6.3% 증가한 6,624억 원을 시현함.

■ 2014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의 경우 장기 저축성보험이 소폭 회복세를 보인 데다 장기 상해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이 호조세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6.8% 늘어난 5,948억 원을 기록함.

- 장기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5.4% 증가한 4,251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2014년 들어 다른 금융권 저축상품 대비 금리경쟁력과 비과세 혜택의 장점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임.
- 장기 상해보험 초회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sup>6)</sup> 시행 직후 감소하였던 신규수요가 꾸준한 회복세를 보여 32.4% 증가한 638억 원을 나타냄.
- 장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자동차 사고 관련 행정 및 법률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36.0% 증가한 188억 원을 기록함.

6) 2013년 1월 1일부터 단독상품 출시, 갱신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종합대책이 시행되었으며, 제도변경 이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수요가 급증하였음.

〈표 15〉 장기손해보험 증목별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2)</sup>	1/4	2/4	3/4	
원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97,301	26,497	26,923	27,604	81,024	28,306	29,114	29,999
		증가율	16.5	15.1	13.1	11.9	13.3	9.8	9.9	11.4
	운전자	보험료	24,555	6,156	6,233	6,305	18,694	6,386	6,438	6,624
		증가율	7.8	0.2	1.7	2.5	1.4	4.2	4.6	6.3
	재 물	보험료	37,429	9,451	9,417	9,330	28,198	9,258	9,344	9,380
		증가율	29.1	1.5	0.3	-1.3	0.1	-0.1	-1.1	-0.4
	질 병	보험료	69,485	19,390	20,482	21,418	61,290	22,382	23,243	24,181
		증가율	11.2	18.0	21.0	21.2	20.1	21.2	19.9	18.1
	저축성	보험료	124,559	29,351	30,682	29,267	89,300	32,267	28,991	28,642
		증가율	27.8	-6.6	-4.7	-1.4	-4.3	3.3	-1.2	-6.6
통합형	보험료	48,196	12,337	12,265	12,219	36,821	12,216	12,358	12,378	
	증가율	6.1	3.4	1.6	1.4	2.2	0.5	0.2	0.9	
자산 연계형	보험료	371	56	51	45	151	42	39	37	
	증가율	-49.3	-45.7	-48.5	-53.3	-49.1	-42.5	-30.4	-26.5	
소 계	보험료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증가율	17.7	4.9	5.4	6.4	5.6	7.5	6.1	4.9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2,735	447	482	574	1,503	600	628	638
		증가율	38.4	-20.5	-16.8	-15.9	-17.6	-34.2	40.6	32.4
	운전자	보험료	419	115	138	124	378	115	121	188
		증가율	50.1	14.7	25.8	19.3	20.1	10.1	4.4	36.0
	재 물	보험료	1,249	353	250	232	836	225	256	254
		증가율	-20.2	-11.6	-18.2	-18.4	-15.6	-13.0	-27.5	1.4
	질 병	보험료	1,828	480	587	584	1,651	620	523	557
		증가율	58.9	58.6	55.7	17.3	40.2	-4.6	9.2	-5.1
	저축성	보험료	30,539	3,919	4,034	3,036	10,989	5,946	4,311	4,251
		증가율	7.2	-61.9	-56.1	-45.7	-56.2	8.9	10.0	5.4
통합형	보험료	653	67	75	75	217	86	57	59	
	증가율	8.3	-56.3	-46.8	-42.0	-48.8	-62.6	-15.1	-22.1	
자산 연계형	보험료	0	0	0	0	0	0	0	0	
	증가율	-	-	-	-	-	-	-	-100.0	
소 계	보험료	37,423	5,379	5,568	4,626	15,574	7,592	5,895	5,948	
	증가율	9.9	-54.5	-48.0	-36.6	-47.8	-0.3	9.6	6.8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94,566	26,050	26,441	27,030	79,521	27,707	28,486	29,360
		증가율	15.9	16.0	13.8	12.6	14.1	11.4	9.3	11.0
	운전자	보험료	24,136	6,040	6,094	6,181	18,315	6,271	6,317	6,436
		증가율	7.3	-0.1	1.2	2.2	1.1	4.1	4.6	5.6
	재 물	보험료	36,180	9,098	9,167	9,098	27,362	9,033	9,088	9,126
		증가율	31.9	2.0	0.9	-0.8	0.7	0.3	-0.1	-0.4
	질 병	보험료	67,658	18,910	19,895	20,834	59,639	21,762	22,720	23,624
		증가율	10.3	17.3	20.2	21.4	19.7	22.1	20.1	18.7
	저축성	보험료	94,020	25,433	26,647	26,231	78,311	26,321	24,679	24,391
		증가율	36.3	20.3	15.9	8.9	14.8	2.1	-3.0	-8.5
통합형	보험료	47,543	12,271	12,190	12,143	36,604	12,130	12,302	12,319	
	증가율	6.1	4.2	2.2	1.9	2.8	1.8	0.3	1.1	
자산 연계형	보험료	371	56	51	45	151	42	39	37	
	증가율	-49.5	-45.7	-48.5	-53.3	-49.1	-42.5	-30.4	-26.6	
소 계	보험료	364,472	97,858	100,484	101,562	299,904	103,266	103,631	105,293	
	증가율	18.6	13.0	11.8	9.8	11.5	8.1	5.9	4.8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2)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누적 해지율은 모든 종목의 해지율 하락세로 FY2013 3/3분기)에 비해 0.8%p 낮아진 8.1%를 시현함.

-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 해지율은 원수보험료 실적 호조에 따른 보유계약액 증가로 하락세를 보임.
- 장기 저축성보험 해지율은 최근 원수보험료 실적 부진으로 효력상실액 및 해지액이 감소하여 1.2%p 하락한 7.7%를 기록함.

〈표 16〉 장기손해보험 해지율<sup>1,2)</sup>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상 해	2.9	6.4	9.2	3.3	6.0	8.5
운전자	3.2	6.2	8.8	3.2	5.9	8.1
재 물	5.0	8.6	11.6	4.1	7.4	10.3
질 병	2.7	5.2	7.5	2.6	4.9	6.9
저축성	3.1	6.1	8.9	3.0	5.3	7.7
통합형	2.4	4.8	7.0	2.4	4.5	6.5
계	3.1	6.2	8.9	3.1	5.7	8.1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보유계약액(=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연금부문(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 2014년 3/4분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이 호조세를 보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한 1조 4,395억 원을 시현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수수료 인하<sup>8)</sup> 등으로 신규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3.5% 감소한 1조 200억 원을 기록함.

7) 해지율은 누계치이므로 이전 회계연도(FY2013) 3/3분기와 비교함.

8) 금감원(2013. 1. 10),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 계획 안내」 참조.

-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확정급여형 최소적립비율 상향 조정과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노력에 힘입어 66.0% 증가한 4,195억 원을 나타냄.

〈표 17〉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원수보험료<sup>1),2)</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개인 연금	보험료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증가율	21.1	7.8	2.7	-0.7	3.1	-2.6	-3.5	-3.5
	구성비	55.8	62.9	80.7	32.2	50.5	52.9	63.4	70.9
퇴직 연금	보험료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5,905	4,195
	증가율	3.3	-4.1	-42.4	28.1	9.8	106.1	-5.5	66.0
	구성비	44.2	37.0	19.3	67.8	49.5	47.1	36.6	29.1
합계	보험료	74,337	16,877	13,100	33,014	62,991	19,558	16,153	14,395
	증가율	11.1	3.1	-10.8	17.2	6.3	29.5	-4.3	9.9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2) 구성비는 연금부문 합계 중 차지하는 비중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자동차보험

■ 2014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책임보험이 증가 전환하고 종합보험 증가세가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6.4% 늘어난 3조 4,259억 원을 기록함.

- 대인배상 I 원수보험료는 2014년 4월 시작된 업무용·영업용 자동차보험 요율 인상의 영향으로 0.6% 증가한 7,896억 원을 나타냄.
- 종합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수입차 중심의 고가자동차 비중 증가 추세 등으로 자차 담보, 대인배상 II, 대물담보 증가세가 확대되어 7.9% 늘어난 2조 4,627억 원을 기록함.

〈표 18〉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대인 I	31,915 (-4.5)	7,992 (-1.5)	7,849 (-1.8)	7,918 (-1.6)	23,759 (-1.6)	7,606 (-2.1)	7,849 (-1.8)	7,896 (0.6)	
종합 보험	대인 II	13,072 (-1.9)	3,295 (0.2)	3,271 (-0.1)	3,393 (2.5)	9,960 (0.9)	3,270 (2.2)	3,366 (2.1)	3,431 (4.9)
	대물	41,325 (7.8)	10,923 (6.3)	10,956 (6.8)	11,348 (8.6)	33,227 (7.2)	11,011 (6.5)	11,583 (6.0)	11,869 (8.3)
	자차	30,652 (-10.5)	7,144 (-10.4)	7,168 (-7.5)	7,211 (-5.4)	21,523 (-7.8)	7,505 (2.7)	7,630 (6.8)	7,749 (8.1)
	자손	4,561 (-0.2)	1,167 (3.5)	1,191 (4.2)	1,277 (9.2)	3,635 (5.6)	1,220 (8.9)	1,275 (9.3)	1,345 (12.9)
	무보험	982 (-8.6)	231 (-9.2)	233 (-6.8)	232 (-7.3)	695 (-7.8)	220 (-3.3)	225 (-2.7)	233 (0.0)
	소계	90,593 (-1.0)	22,760 (-0.7)	22,820 (0.6)	23,461 (2.9)	69,041 (0.9)	23,225 (4.7)	24,079 (5.8)	24,627 (7.9)
	외화표시	111 (-8.9)	34 (11.9)	23 (2.7)	34 (1.1)	91 (5.3)	20 (-17.2)	29 (-14.8)	23 (-0.6)
이륜자동차 <sup>2)</sup>	792 (24.2)	250 (-6.7)	212 (0.7)	173 (7.2)	635 (-0.8)	167 (9.8)	257 (3.1)	240 (12.8)	
기타 <sup>3)</sup>	5,006 (6.9)	1,303 (1.5)	1,285 (2.3)	1,321 (7.9)	3,909 (3.8)	1,358 (9.4)	1,452 (11.4)	1,473 (14.7)	
합계	128,416 (-1.5)	32,338 (-0.9)	32,190 (0.1)	32,907 (2.0)	97,435 (0.4)	32,377 (3.2)	33,665 (4.1)	34,259 (6.4)	

주: 1) (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14년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9.3%로 전년동기와 동일하나 2014년 2/4분기보다는 4.9%p 상승하였는데, 8월 남부지방 호우와 같은 계절적 요인과 유가 하락 등이 그 원 인임.

- 대인배상 I 손해율은 2014년 2월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sup>9)</sup>의 영향으로 발생손해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대비 21.3%p 하락한 68.6%를 나타냄.
- 종합보험 손해율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과 8월 말 남부지방 폭우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7.1%p 상승한 96.4%를 기록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해 항목 변동으로 대인 II 손해율은 35.1%p 상승한 137.4%를, 자손담보 손해율은 21.9%p 하락한 69.5%를 기록함.
  - 자차담보 손해율은 휴가철 차량 운행 증가와 8월 남부지방 호우 등으로 7.8%p 상승한 89.1%를 나타냄.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대인 I	86.9	83.9	89.9	91.7	88.5	69.8	65.5	68.6	
종합보험	대인 II	90.9	94.2	102.3	79.5	91.3	113.6	135.8	137.4
	대물	89.3	90.0	91.4	95.6	92.4	85.2	87.8	92.3
	자차	73.3	76.6	81.3	88.7	82.1	86.5	80.7	89.1
	자손	85.4	77.2	91.4	79.2	82.6	77.5	64.2	69.5
	무보험	53.0	55.1	80.5	54.4	63.3	115.7	91.5	77.8
	소계	83.3	85.1	89.3	89.8	88.1	89.6	91.3	96.4
외화표시	84.7	57.5	69.3	71.5	66.1	77.9	83.3	72.3	
이륜자동차 <sup>2)</sup>	81.2	90.8	94.3	94.9	93.3	79.4	104.3	107.8	
기타 <sup>3)</sup>	79.8	70.8	85.0	88.4	81.5	72.8	70.3	80.3	
합계	84.0	84.4	89.3	90.2	87.9	84.1	84.4	89.3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기간에 대한 손해율이며,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9) 대인 I 에서 지급하는 상해 항목인 척추 염좌가 8등급(최대 보상금 240만 원)에서 12등급(최대 보상금 8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인 I 발생손해액은 감소하고 대인 II 발생손해액은 증가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4년 2월 7일 시행).

#### 4) 일반손해보험

■ 2014년 3/4분기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목의 마이너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1조 9,128억 원을 시현함.

-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저효과<sup>10)</sup>와 공장물건 감소 등으로 4.3% 줄어든 703억 원을 나타냄.
- 해상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이 각각 8.1%, 11.7%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5% 줄어든 1,839억 원을 나타냄.
-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는 FY2013 2/3분기 저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국내 건설수주 증가세<sup>11)</sup> 등으로 4.3% 늘어난 3,611억 원을 기록함.
- 특종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책임보험이 양호한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상해보험, 종합보험이 저조한 실적을 보여 전체적으로 1.2% 줄어든 1조 1,533억 원을 기록함.
  - 책임보험 원수보험료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기타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중심으로 7.6% 늘어남.
  -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단체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2.7% 증가에 그쳤으며, 종합보험 원수보험료는 비중이 큰 기업성 종합보험이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0.1% 늘어남.

10)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만료 시한이 있었던 FY2013 2/3분기 일반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6% 증가하였으나 2014년 3/4분기에는 3.1% 감소함.

11) 국내 건설수주(경상)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013년 4/4분기 22.4% → 2014년 1/4분기 15.5% → 2014년 2/4분기 26.1% → 2014년 3/4분기 45.6%.

〈표 20〉 일반손해보험<sup>1)</sup> 종목별 원수보험료<sup>2)</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화재	보험료	3,293	755	734	923	2,413	759	739	703
	증가율	25.0	-3.4	-3.1	-2.4	-2.9	-6.1	-2.1	-4.3
	구성비	4.1	3.6	3.7	4.5	3.9	3.7	3.5	3.7
해상	보험료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1,927	1,839
	증가율	-5.4	-9.9	1.8	-24.3	-10.7	17.0	-9.2	-18.5
	구성비	10.2	10.0	11.4	7.9	9.8	8.6	9.2	9.6
보증	보험료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3,651	3,611
	증가율	4.2	-6.9	-9.1	1.6	-4.8	-4.3	-3.9	4.3
	구성비	19.6	18.0	17.5	19.2	18.2	18.9	17.5	18.9
특종	보험료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증가율	17.8	5.6	-1.6	3.1	2.4	2.6	0.3	-1.2
	구성비	60.1	61.8	58.9	60.0	60.3	61.9	62.8	60.3
해외 원보험	보험료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1,455	1,442
	증가율	54.1	39.5	47.1	34.0	40.0	-3.0	4.7	-14.6
	구성비	6.0	6.6	8.5	8.5	7.8	6.8	7.0	7.5
합계	보험료	80,773	21,132	19,813	20,733	61,679	20,289	20,873	19,128
	증가율	13.9	2.6	0.1	1.6	1.5	1.5	-1.2	-3.5

주: 1)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권원보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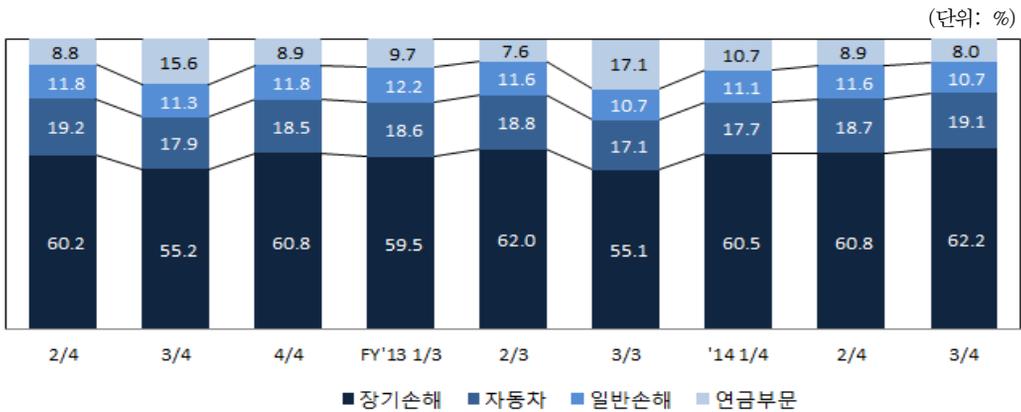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2014년 3/4분기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원수보험료 소폭 회복세에 힘입어 0.2%p 늘어난 62.2%를 차지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영업용·업무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힘입어 0.3%p 확대된 19.1%를 나타냈으며, 연금부문 원수보험료 비중은 퇴직연금 판매호조로 0.4%p 늘어난 8.0%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본격적인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원수보험료 실적 부진으로 0.9%p 축소된 10.7%를 나타냄.

〈그림 5〉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3/4분기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상위 4사<sup>12)</sup>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으며, 허핀달 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24 감소한 0.1435를 나타냄.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 점유율은 일부 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각각 0.4%p, 0.1%p 확대된 26.3%, 2.3%를 기록함.

○ 상위 4사 시장점유율은 일부 회사들이 낮은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0.5%p 축소된 69.4%를 나타냄.

〈표 21〉 손해보험산업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6)</sup>	1/4	2/4	3/4
상위 4사 <sup>2)</sup>	70.0	70.3	69.9	70.2	70.1	67.4	69.4	69.4
국내 중·소형사 <sup>2)</sup>	25.5	25.4	25.9	25.8	25.7	28.4	26.4	26.3
전업사 <sup>3)</sup>	2.3	2.2	2.0	2.1	2.1	2.1	2.0	2.0
외국사 <sup>3)</sup>	2.2	2.1	2.2	2.0	2.1	2.1	2.2	2.3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sup>4)</sup>	2.1	2.0	2.1	1.9	2.0	2.1	2.1	2.2
허핀달 지수 <sup>5)</sup>	0.1448	0.1459	0.1459	0.1448	0.1453	0.1386	0.1424	0.1435

주: 1)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을 의미하며,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2) 상위 4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회사, 국내 중·소형사는 국내 온라인사를 포함한 8개 회사를 의미함.

3)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하며, 외국사는 외국계 온라인사를 포함함.

4)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5)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이면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2)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손해율과 합산비율〉

- 2014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손해율은 장기손해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 악화로 전년 동기대비 2.1%p 상승한 83.9%를 나타냄.
  -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의 경우 장기 상해 및 질병보험과 장기 운전자보험의 발생손해액이 늘어나 1.7%p 상승한 85.2%를 기록함.
  - 보증보험 손해율의 경우 FY2013 2/3분기 일시적인 요인으로 악화되었던 손해율이 정상화됨에 따라 39.1%p 상승한 70.8%를 기록함.
    - 보증보험의 경우 2013년 5월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을 일시에 반영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FY2013 2/3분기와 3/3분기 발생손해액이 감소하였음.
  
- 2014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사업비율의 경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 소폭 개선으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한 18.8%를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율은 보유보험료 증가가 사업비 증가보다 더 크게 나타나 0.3%p 하락한 18.0%를 기록함.
  - 일반손해보험 사업비율은 신규판매 부진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1.9%p 하락한 22.0%를 나타냄.
  
- 2014년 3/4분기 합산비율은 장기손해보험과 보증보험 손해율 악화로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한 102.7%를 나타냄.

〈표 22〉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sup>1)</sup>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손 해 율	장기손해보험 <sup>2)</sup>	83.7	83.8	83.5	84.0	83.8	85.1	84.4	85.2
	자동차보험	84.0	84.4	89.3	90.3	87.9	84.0	84.4	89.3
	화재보험	59.2	56.8 <sup>3)</sup>	60.9	44.0	33.8	73.2	50.2	53.4
	해상보험	61.5	48.6	58.0	67.5	57.7	89.5	18.5	44.3
	보증보험	62.3	155.0	31.7	45.8	76.5	72.5	7.4	70.8
	특종보험	70.6	59.8	71.1	66.1	65.8	69.2	71.0	67.7
	해외원보험	58.4	63.8	54.1	116.9	79.1	64.6	89.4	98.1
	해외수재보험	58.9	59.8	60.0	52.8	57.6	72.9	45.1	67.1
	전체	81.7	82.5	81.8	82.5	82.3	83.3	80.6	83.9
	사업비율	19.5	19.5	19.2	20.4	19.7	19.1	18.7	18.8
합산비율	101.2	102.0	101.0	103.0	102.0	102.3	99.3	102.7	

주: 1) 손해율, 사업비율 그리고 합산비율은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2)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을 고려한 재무손해율임.

3)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을 일부 제외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경영수지

### 〈총수익·총비용〉

- 2014년 3/4분기 전체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A)은 투자영업이익이 늘어났으나 보험영업 부문에서 적자를 시현하여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한 5,870억 원 흑자를 나타냄.
  - 보험영업 적자규모가 발생손해액과 환급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561억 원 확대된 6,802억 원을 나타냄.
    - 발생손해액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은 2013년 5월 용산역세권개발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손실 반영에 따른 일시적인 감소 효과가 사라졌기 때문임.
  - 투자영업이익은 이자수익 증가와 손상차손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467억 원 늘어난 1조 4,840억 원 흑자를 시현함.
  
- 2014년 3/4분기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sup>13)</sup>의 당기순이익(B)은 투자영업이익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2% 늘어난 4,392억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확대되었으나 투자영업 흑자규모가 당기손익인식 증권 이익률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증가함.

13) 손해보험회사 자본이익률 분석대상은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회사임.

〈표 23〉 손해보험산업 총수익 및 총비용<sup>1)</sup>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63,681	16,196	16,590	16,698	49,484	16,835	16,921	17,150
	투자영업	6,438	1,868	1,603	1,805	5,276	1,780	1,979	1,523
	기타	1,674	328	143	949	1,419	245	361	161
	소계	71,793	18,392	18,336	19,451	56,179	18,860	19,261	18,835
총비용	보험영업	65,237	16,749	16,914	17,398	51,062	17,415	17,060	17,831
	투자영업	1,649	665	366	493	1,524	394	634	39
	기타	1,793	359	203	1,024	1,587	286	422	202
	소계	68,679	17,774	17,483	18,915	54,172	18,095	18,117	18,071
수지차	보험영업	-1,556	-553	-324	-701	-1,578	-580	-139	-680
	투자영업	4,789	1,203	1,237	1,312	3,752	1,386	1,345	1,484
	기타	-119	-31	-61	-75	-167	-40	-61	-40
	소계	3,114	618	852	536	2,007	765	1,145	764
법인세	726	180	173	163	515	194	282	176	
당기순이익(A) <sup>2)</sup>	2,388	439	680	374	1,492	571	863	587	
	(-2.4)	(-46.3)	(-1.0)	(-14.8)	(-23.2)	(31.2)	(96.7)	(-13.6)	
당기순이익(B) <sup>3)</sup>	1,861	516	426	270	1,212	460	558	439	
	(-6.7)	(-19.8)	(-23.1)	(-13.9)	(-19.8)	(31.5)	(8.1)	(3.2)	

주: 1) 기간별 수치는 특별계정을 제외한 실적이고, ( ) 안은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2)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포함한 전체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임.

3) 재보험회사와 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한 18개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임.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총부채 · 총자본〉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총계의 경우 총부채와 총자본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15.9% 증가한 191조 3,805억 원을 기록함.

○ 총부채는 책임준비금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6.0% 늘어났으며, 총자본은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5.7% 증가함.

〈표 24〉 손해보험산업 부채 및 자본 현황<sup>1)</sup>

(단위: 조 원,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책임준비금	금액	120.9	125.9	130.4	135.8	141.1	145.8
	증가율	18.1	16.5	16.5	17.5	16.7	15.8
기타부채	금액	11.4	10.5	10.4	10.7	11.4	11.9
	증가율	9.6	2.2	-7.4	-3.0	0.1	13.4
특별계정부채	금액	6.1	6.2	7.4	7.6	7.6	7.6
	증가율	14.1	10.9	17.5	21.5	24.6	23.4
부채총계	금액	138.5	142.5	148.2	154.2	160.2	165.3
	증가율	17.1	15.0	14.5	16.0	15.7	16.0
자본금	금액	2.0	2.1	2.3	2.3	2.3	2.3
	증가율	-6.5	-5.7	7.4	7.5	12.8	12.6
자본잉여금	금액	2.1	2.1	2.1	2.1	2.3	2.3
	증가율	12.8	16.6	9.7	9.7	10.4	9.3
이익잉여금	금액	14.7	15.3	15.6	15.8	16.7	17.2
	증가율	14.1	12.9	11.1	9.9	13.7	12.7
자본조정	금액	-0.6	-0.6	-1.0	-1.0	-0.7	-0.8
	증가율	140.9	9.2	72.4	72.4	33.1	26.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금액	3.6	3.7	3.3	3.5	4.4	5.0
	증가율	-2.6	-27.2	-31.3	-38.0	21.6	35.2
자본총계	금액	21.9	22.6	22.4	22.8	24.9	26.1
	증가율	7.3	2.2	-0.1	-3.4	14.1	15.7
부채 및 자본총계	금액	160.3	165.1	170.6	176.9	185.1	191.4
	증가율	15.7	13.1	12.4	13.1	15.5	15.9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산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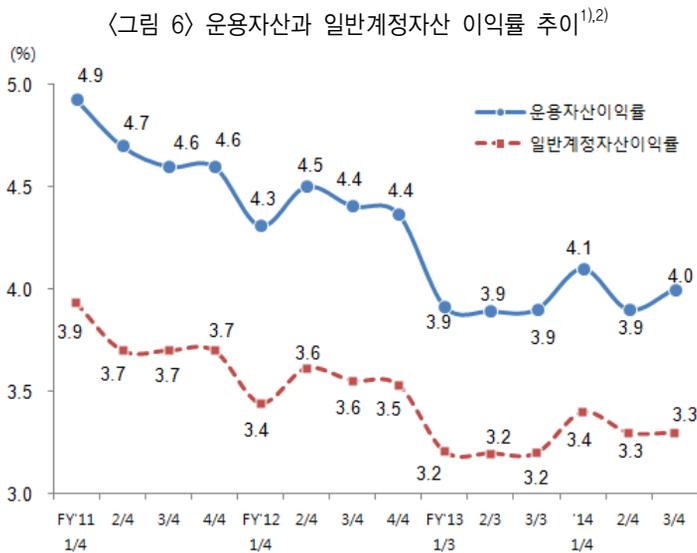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 현금 및 예금, 부동산 이익률이 올라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함.

○ 유가증권 이익률은 0.1%p 상승한 4.0%를, 현금 및 예금 이익률은 1.0%p 상승한 2.7%를 나타냈으며, 부동산 이익률은 0.1%p 오른 1.2%를 기록함.

○ 반면, 대출채권 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한 4.7%를 나타냄.

■ 2014년 3/4분기 운용자산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55.2%, 대출채권 20.9%, 현금과 예금 4.3%, 부동산 3.5% 순으로 나타남.<sup>14)</sup>

○ 유가증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 비중도 1.0%p 증가하였으나, 현금과 예금 및 부동산 비중은 각각 0.4%p, 0.6%p 축소됨.



주: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손익) × 연기준환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4) 일반계정자산은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으로 구분되며, 해당 수치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표 25〉 손해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 원)

구분	FY2013				2014					
	2/3		3/3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일반계정자산	100.0	3.2	100.0	3.2	100.0	3.4	100.0	3.3	100.0	3.3
운용자산 계	82.4	3.9	82.9	3.9	83.1	4.1	82.9	3.9	83.9	4.0
현금과 예금	4.7	1.7	4.7	1.6	4.3	3.9	4.1	2.0	4.3	2.7
유가증권	53.8	3.9	54.0	3.9	54.3	4.1	54.6	4.0	55.2	4.0
○ 당기손익인식증권	3.8	1.6	3.6	2.2	4.6	2.7	4.2	3.3	4.4	3.6
- 주식	0.2	2.1	0.1	2.4	0.1	9.7	0.1	9.1	0.1	14.9
- 채권 등	1.6	0.7	1.9	1.6	2.3	3.1	2.3	4.1	2.1	4.6
- 수익증권	2.1	2.4	1.7	2.8	2.2	1.5	1.8	1.8	2.2	1.7
○ 매도가능증권	42.5	4.2	42.2	4.2	41.2	4.3	42.0	4.1	42.4	4.1
- 주식	3.4	0.4	3.4	-0.1	3.2	5.0	3.4	2.4	3.2	2.4
- 채권 등	35.2	4.6	34.7	4.7	33.9	4.3	34.3	4.3	34.5	4.3
- 수익증권	3.9	3.7	4.1	3.9	4.1	3.5	4.4	4.0	4.6	4.3
○ 만기보유증권	6.2	4.1	6.8	4.2	6.9	4.0	6.7	3.7	6.7	3.8
- 채권 등	6.2	4.1	6.8	4.2	6.9	4.0	6.7	3.7	6.7	3.8
- 수익증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1.4	1.7	1.4	0.9	1.7	1.6	1.7	1.8	1.7	1.6
대출채권	19.9	5.0	20.2	5.0	20.7	4.6	20.6	4.8	20.9	4.7
부동산	4.1	1.1	3.9	1.1	3.8	1.1	3.6	1.2	3.5	1.2
비운용자산	17.6	0.0	17.1	0.1	16.9	0.0	17.1	0.1	16.1	0.0
총자산	100.0	3.0	100.0	3.1	100.0	3.2	100.0	3.1	104.2	3.2
일반계정	96.3	3.2	96.2	3.2	95.7	3.4	95.9	3.3	96.0	3.3
특별계정	3.7	0.0	3.8	0.0	4.3	0.0	4.1	0.0	4.0	0.0
총자산 규모	1,650,960		1,705,563		1,769,154		1,851,278		1,913,805	

주: 1) 운용자산 이익률 = (운용자산이익 × 2) / (기초자산 + 기말자산 - 운용자산이익) × 연기준환산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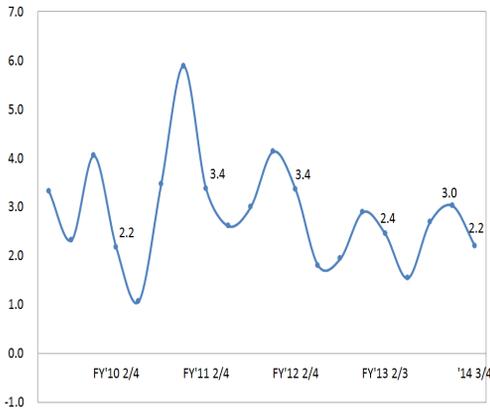
〈자본이익률<sup>15)</sup>〉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은 당기순이익 증가보다 기중자본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나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2.2%를 나타냄.

○ 대형사<sup>16)</sup> 자본이익률은 전체 손해보험 평균(2.2%)보다 소폭 상회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대부분 손해보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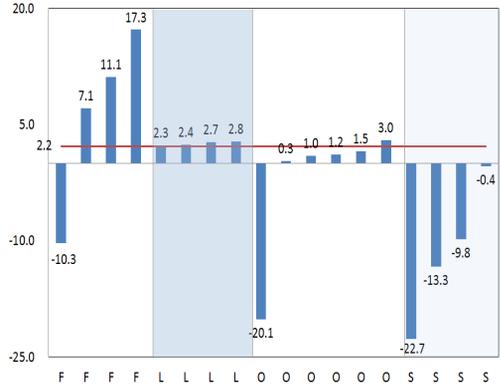
〈그림 7〉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

(단위: %)



〈그림 8〉 회사별 자본이익률<sup>1),2)</sup>

(단위: %)



주: 1) F, L, O, S는 각각 외국사, 대형사, 중·소형사, 전업사를 의미함.

2) 회사별 자본이익률 분포에서 표시된 실선은 산업수준의 자본이익률을 의미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자본이익률의 경우 대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인 FY2013 2/3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중·소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상승함.

○ 대형사와 전업사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이 악화되어 각각 0.5%p, 2.9%p 하락한 2.5%, -8.2%를 기록함.

15) 보험회사 경영성과지표 중 하나인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대비 당기순이익( $R_t / E_t^o$ )을 의미하며, 분석대상은 FY2012 1/4분기부터 농협손해보험이 포함되어 18개 회사임.

16)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손해보험회사를 의미함.

○ 중·소형사와 외국사 자본이익률은 기중자본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각각 0.5%p, 3.4%p 상승한 1.0%, 6.7%를 시현함.

〈표 26〉 손해보험산업 자본이익률<sup>1)</sup> 추이

(단위: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sup>2)</sup>	1/3	2/3	3/3	연간 <sup>2),3)</sup>	1/4	2/4	3/4
대형사	12.6	2.9	3.0	1.9	8.0	3.2	3.2	2.5
중·소형사	8.7	2.2	0.5	1.6	4.4	0.6	2.3	1.0
외국사	11.7	6.8	3.3	0.1	9.3	-0.7	2.1	6.7
전업사	-6.0	2.7	-5.3	-14.2	9.3	-1.2	0.1	-8.2
전체	11.6	2.9	2.4	1.5	7.0	2.6	3.0	2.2

주: 1) 분기 자본이익률 = 당분기 당기순이익 / 기중자본

2) 연간 자본이익률 = 누적 당기순이익 / ((전 회계년도 말 자본 + 당기 말 자본 - 누적 당기순이익) / 2)

3) FY2013 연간수치는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다. 판매채널

###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2014년 3/4분기 설계사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이 전년동기인 FY2013년 2/3분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확대됨.

- 설계사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4.3%p 감소한 26.9%를 나타낸 반면, 대리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3.3%p 증가한 46.5%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법인대리점이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기 때문임.

〈표 27〉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임직원	102,941	23,802	21,083	39,003	83,888	26,843	24,779	24,529
	15.0	13.7	12.3	20.2	15.6	15.5	13.7	13.7
설계사 <sup>2)</sup>	206,290	53,442	53,409	53,038	159,889	53,646	57,315	48,191
	30.1	30.8	31.2	27.5	29.7	30.9	31.8	26.9
대리점	284,249	74,948	73,923	78,012	226,884	74,990	74,286	83,329
	41.5	43.2	43.2	40.5	42.2	43.3	41.2	46.5
중개사	4,803	1,248	1,334	1,795	4,377	1,205	1,614	1,590
	0.7	0.7	0.8	0.9	0.8	0.7	0.9	0.9
방카슈랑스	86,293	20,008	21,224	20,710	61,941	16,556	21,967	21,148
	12.6	11.5	12.4	10.7	11.5	9.5	12.2	11.8
공동인수	846	136	183	284	602	131	256	236
	0.1	0.1	0.1	0.1	0.1	0.1	0.1	0.1
전체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73,369	180,217	179,02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하는 분기 기준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2014년 3/4분기 말 금융권 수익성 악화의 영향으로 손해보험회사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가 모두 전분기대비 감소함.

- 임직원 수의 경우 비정규직 직원 수 감소로 전분기대비 30명 줄어든 3만 3,256명을 기록함.
- 설계사 수의 경우 교차설계사 수 증가에도 전속설계사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377명 감소한 15만 6,958명을 기록함.
- 개인대리점 수는 대리점 대형화 추세의 영향으로 283개 줄어든 2만 2,349개를 기록하였으며, 법인대리점 수도 133개 줄어든 1만 821개로 2분기 연속 감소함.

〈표 28〉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분	FY2012	FY2013			2014		
	4/4	1/3	2/3	3/3	1/4	2/4	3/4
임직원	32,838	32,944	33,570	33,479	33,320	33,286	33,256
설계사	168,023	168,968	166,915	164,253	161,131	157,335	156,958
- 전속	93,167	93,712	92,952	90,167	86,988	83,630	82,504
- 교차	74,856	75,256	73,963	74,086	74,143	73,705	74,454
대리점	37,643	37,500	37,268	36,952	36,559	33,586	33,170
- 개인	24,419	24,063	23,666	23,244	22,702	22,632	22,349
- 법인	13,224	13,437	13,602	13,708	13,857	10,954	10,821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 IV. 해외보험시장 동향

---

글로벌 생명보험 시장은 영국을 제외하고 미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과 일본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1.0%, 2.4% 증가하였으며, 중국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였음.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23.1% 감소하였음. 글로벌 손해보험시장 역시 미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임. 미국, 일본, 중국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각각 전년동기대비 4.2%, 2.4%, 15.0% 증가함. 미국 손해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함. 일본의 경우 단체보험과 개인연금 신규보험료의 증가가 손해보험 성장의 주요인이었음.<sup>1)</sup>

### 1. 미국 동향<sup>2)</sup>

#### 가. 생명보험

■ 2014년 2/4분기 미국 생명보험시장 신규보험료는 신규 연납화 보험료<sup>3)</sup>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1% 증가하였음.

○ 2/4분기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Lifetime Guarantee UL) 판매감소로 8% 감소함.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지속적인 저금리 환경과 높은 보험가격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1) 미국은 2014년 2/4분기, 영국과 중국은 2014년 3/4분기, 일본은 FY2014 2/4분기 기준임.

2) 미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3) 연납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 = 일시납보험료 × 10% + 정기납보험료

- 장기보장성 유니버설보험의 성장률 하락에 따라 유니버설보험 신규보험료는 4분기 연속 감소함.
- 2/4분기 인덱스형 유니버설보험(Indexed UL) 신규보험료는 저금리 환경에서도 상품 수익률이 높아 전년동기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저금리 환경에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하였으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 정기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 감소하였으나 종신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 증가하며 이전 증가세를 회복함.

- 2014년 2/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비중은 전분기대비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은 감소하고, 정기보험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종신보험은 소폭 상승함.
- 2/4분기 유니버설보험 비중은 36%로 전분기대비 2%p 감소한 수치이나 생명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신규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신규보험료가 차지한 비중은 각각 34%와 23%였음.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가율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증가율	증가율	비중
유니버설	8	1	-8	-23	-7	40	-15	-8	36
기타변액	0	0	0	0	0	0	11	0	0
변액유니버설	10	9	33	36	24	6	20	42	7
정기	3	6	5	-1	3	22	-4	-2	23
종신	7	5	2	3	4	32	-3	5	34
계	7	4	0	-8	0	100	-7	1	100
연납화 보험료	2,463	2,532	2,332	2,667	9,994		2,260	2,243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 나. 연금보험

■ 2014년 2/4분기 미국 개인연금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액연금의 신규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하였음.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는 36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반면, 정액연금 신규보험료는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4.0% 증가함.

〈표 2〉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변액연금	보험료	35.3	38.0	35.7	36.4	145.4	34.2	36.2
	증가율	-3.8	-1.3	-3.0	4.0	-1.4	-3.1	-4.7
	비중	69.2	67.6	59.9	59.2	63.3	58.8	59.0
정액연금	보험료	16.5	18.8	23.9	25.1	84.4	24.0	25.2
	증가율	-11.7	-0.9	33.5	41.8	16.7	4.5	34.0
	비중	30.8	32.4	40.1	40.8	36.7	41.2	41.0
합계	보험료	51.8	56.8	59.6	61.5	229.7	58.2	61.4
	증가율	-6.4	-1.2	9.0	16.7	4.6	12.4	8.1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 2014년 2/4분기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의 경우 독립중개인이 2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가 19.9%, 은행 16.6%, 독립설계사, 증권중개인, 직접판매가 각각 16.3%, 12.1%, 7.0%의 비중을 차지함.

〈표 3〉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1/4	2/4
은행	14.1	14.8	17.3	16.0	16.3	16.6
전속설계사	22.4	21.0	20.7	20.5	20.5	19.9
직접판매	8.7	8.3	7.4	8.5	7.3	7.0
독립중개인	25.0	24.9	23.2	22.6	23.9	25.7
독립설계사	15.3	15.3	15.5	17.6	16.6	16.3
증권중개인	12.4	13.2	13.6	12.5	13.5	12.1
기타	2.1	2.5	2.4	2.3	1.9	2.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LIMRA(2014, 3), U.S. Individual Annuities.

다. 소득보상보험

■ 2014년 2/4분기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의 경우 Guaranteed Renewable<sup>4)</sup>과 Non-cancellable<sup>5)</sup>의 신규보험료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6.1% 감소함.

- Guaranteed Renewable의 신규보험료는 1/4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2/4분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며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함.
  - Gaurantedd Renewable 신규보험료는 상위 2개 보험사와 1개 중소형 보험사를 제외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거나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함.
- Non-cancellable 소득보상보험은 Multilife<sup>6)</sup> 보험 판매 감소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하였음.
  - Non-multilife과 Multilife 보험의 신규보험료 모두 약 4~5%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Multilife 신규보험료의 감소율은 1/4분기 7%에서 2/4분기 5%로 감소세가 둔화되었음.

〈표 4〉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천건,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계약 건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96.3	65.3	75.3	73.6	310.6	101.8	62.8
		증가율	-10.4	-3.3	0.4	-5.5	-5.3	5.7	-3.8
		구성비	73.5	64.4	65.0	63.1	66.8	75.8	64.0
	Non- cancellable	건 수	34.7	36.3	40.3	43.0	154.3	32.5	35.3
		증가율	-1.1	3.8	0.8	0.5	1.0	-6.4	-2.6
		구성비	26.5	35.8	34.8	36.9	33.2	24.2	36.0
	전체	건수	131.0	101.4	115.8	116.7	464.9	134.3	98.1
		증가율	-8.2	-1.0	0.7	-3.3	-3.3	2.5	-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보험료	57.9	45.0	48.7	49.8	201.3	60.3	41.3
		증가율	-10.3	-3.6	-1.7	-2.9	-5.0	4.1	-8.1
		구성비	45.6	36.5	36.5	36.6	38.8	47.7	35.8
	Non- cancellable	보험료	69.2	78.2	84.6	86.1	318.1	66.1	74.3
		증가율	-2.7	1.1	0.9	4.2	1.0	-4.5	-5.0
		구성비	54.4	63.5	63.5	63.4	61.2	52.3	64.2
	전체	보험료	127.0	123.2	133.2	135.9	519.4	126.4	115.6
		증가율	-6.3	-0.7	0.0	1.5	-1.4	-0.5	-6.1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LIMRA(2014, 2),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 4)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5) Non-cancell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 시 보험회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 6) Multilife 보험은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부부 둘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임.

## 라. 손해보험

■ 2014년 2/4분기 미국 손해보험 총보험영업이익은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원수보험료 증가율을 상회하여 약 21억 달러 손실을 기록함.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1,25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876억 달러를 기록함.
- 2014년 2/4분기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0.9%에서 약 0.3%p 감소한 100.6%로 소폭 개선되었음.
- 모기지 및 금융보증 관련 회사(M&FG: Mortgage and Financial Guaranty Insurers)를 제외한 손해보험회사의 원수보험료는 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였으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 100.1%에서 100.7%로 악화되었음.

■ 2014년 2/4분기 총투자영업이익의 경우 실현자본이익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한 160억 달러를 기록함.

- 2/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약 11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감소폭이 크지 않으나, 실현자본이익은 42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약 70% 증가함.

■ 손해보험산업의 2014년 2/4분기 당기순이익은 총보험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19.6% 증가한 121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자본이익률은 전년동기 6.6%에서 0.7%p 상승한 7.3%였음.

- M&FG의 당기순이익은 2014년 2/4분기 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약 12억 달러가 증가하였으며, 자본이익률은 10.0%로 전년동기 -21.9%에 비하여 대폭 개선되었음.
- M&FG를 제외한 손해보험산업의 당기순이익은 117억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하여 8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지급준비금 및 영업비용 증가로 자본이익률은 7.2%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자본이익률 7.3%에 비해 소폭 하락함.

〈표 5〉 미국 손해보험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sup>1)</sup>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원수보험료	금액	117,201	119,888	126,186	114,241	477,516	121,421	124,983
	증가율	4.2	4.9	3.8	5.8	4.6%	3.6	4.2
지급보험금	금액	74,376	83,596	77,598	79,471	315,041	80,789	87,605
	증가율	-1.7	-1.4	-6.1	-12.0	-5.5%	8.6	4.8
보험영업이익	금액	5,076	-1,848	8,461	6,285	17,974	2,908	-1,801
	증가율	1250.0	-69.4	1432.8	-176.7	-235.1%	-42.7	-2.5
계약자 배당금	금액	555	450	264	1,263	2,532	673	270
	증가율	6.7	56.8	-16.5	26.2	19.2%	21.3	-40.0
총보험영업이익	금액	4,521	-2,298	8,197	5,022	15,442	2,235	-2,071
	증가율	-3239.6	-63.7	3373.3	-154.6	-200.1%	-50.6	-9.9
투자영업이익	금액	11,413	11,827	11,139	13,014	47,393	11,180	11,793
	증가율	-2.1	-2.6	-2.9	2.8	-1.1%	-2.0	-0.3
실현자본이익	금액	1,387	2,488	2,151	5,394	11,420	2,933	4,234
	증가율	101.3	142.7	74.0	66.9	84.7%	111.5	70.2
총투자영업이익	금액	12,800	14,315	13,290	18,408	58,813	14,113	16,027
	증가율	3.7	8.7	4.5	15.9	8.7%	10.3	12.0
세전 영업이익 <sup>2)</sup>	금액	15,794	10,011	19,891	18,607	64,303	13,654	10,133
	증가율	33.0	38.9	63.5	412.2	84.4%	-13.5	1.2
당기순이익	금액	14,327	10,141	18,520	20,755	63,743	13,754	12,124
	증가율	40.3	44.9	74.6	186.2	81.7%	-4.0	19.6
자기자본(Surplus)	금액	609,805	613,515	624,366	653,348	653,348	662,013	671,575
	증가율	6.2	7.4	6.9	11.3	11.3%	8.6	9.5
지급준비금	금액	576,475	577,088	573,551	573,727	573,727	574,648	578,342
	증가율	0.9	0.6	-0.3	-0.5	-0.5%	-0.3%	0.2
자기자본이익률		9.6	6.6	12.3	13.0	10.3	8.4	7.3
합산비율		94.8	100.9	91.8	97.1	96.1	97.3	100.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세전영업이익 = 총보험영업이익 + 총투자영업이익 + 기타이익

자료: III(2014. 4), P/C Insurers' 2013 Profits and Profitability Reflect First Net Gains On Underwriting Since 2007.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며, 본고는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소득보상보험에 대한 분기별 통계를 근거로 작성하였음.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조합인 Blue Shield, Blue Cross와 지역의료공급조직(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이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 의료보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가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정액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손해보험은 다양한 세부 종목이 존재하나, 미국손해보험협회(PCI: 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와 보험요율단체(ISO: Insurance Services Office Limited),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분기별 지표는 전체적인 영업성과 위주로 제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 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 기관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83개사	80%	LIMRA
U.S. Individual Annuities	60개사	94%	LIMRA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2. 영국 동향<sup>7)</sup>

### 〈생명보험 전체〉

- 2014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신규보험료<sup>8)</sup> 기준으로 전년동기보다 23.1% 감소(43억 5,211만 파운드)한 144억 9,878만 파운드였음.
  - 보험료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38.5% 감소하면서 생명보험 전체 신규보험료도 감소함.
  
- 2014년 3/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는 17억 2,912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함.
  - 정기납 보험료 중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s) 보험료가 34.5% 감소하였으나 비중이 가장 큰 퇴직연금계좌가 13.9% 증가하면서 정기납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14년 3/4분기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127억 6,966만 파운드로 전년동기대비 26.4% 감소함.
  - 비중이 가장 큰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와 두 번째로 비중이 큰 퇴직연금계좌 보험료가 각각 38.5%, 9.2% 감소하면서 일시납 신규보험료는 전체적으로 감소함.

7) 영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8) 신규보험료는 보험료 납입방법별로 정기납 신규보험료와 일시납 신규보험료의 합계로 계산함.



일시납 신규보험료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금액	2,082.2	2,203.9	8,563.9	2,193.5	1,898.8	2,277.8
	증가율	-33.2	-35.6	-33.3	-3.6	-5.2	9.4
	구성비	12.0	15.6	14.2	13.6	12.0	17.8
역외영업	금액	1,040.0	1,033.5	4,137.0	1,033.5	835.7	1,116.5
	증가율	-12.0	-20.5	-12.5	1.5	-20.0	7.4
변액연동채권	금액	564.1	608.7	2,463.3	608.7	506.8	506.4
	증가율	n.a.	n.a.	n.a.	-17.7	-8.0	-10.2
유배당채권	금액	469.3	551.4	1,896.8	551.4	556.4	654.9
	증가율	n.a.	n.a.	n.a.	15.1	40.2	39.6
퇴직연금계좌	금액	3,225.4	3,227.8	14,147.7	3,323.0	3,428.4	2,929.0
	증가율	-7.9	-15.1	-13.5	-11.5	-12.9	-9.2
	구성비	18.6	22.8	23.4	20.7	21.6	22.9
Individual Pension	금액	1,534.6	1,566.6	6,664.7	1,919.7	1,982.1	1,954.6
	증가율	-30.1	-19.3	-34.3	9.2	9.7	27.4
Personal Pension	금액	1,031.0	1,011.8	4,334.1	1,098.3	1,146.5	1,113.7
	증가율	n.a.	n.a.	n.a.	2.0	-5.6	8.0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금액	58.4	63.1	366.0	105.2	113.7	77.7
	증가율	n.a.	n.a.	n.a.	-21.6	3.1	32.9
SIPP	금액	428.6	619.2	2,030.7	696.1	708.1	750.3
	증가율	n.a.	n.a.	n.a.	34.6	52.1	75.1
Work-based Pensions	금액	1,690.9	1,517.7	7,339.4	1,404.2	1,446.4	974.4
	증가율	29.3	-18.5	18.1	-29.8	-32.2	-42.4
Group Personal Pension	금액	1,632.0	1,456.6	7,034.2	1,312.4	1,361.9	922.3
	증가율	n.a.	n.a.	n.a.	-30.5	-33.8	-43.5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금액	58.9	61.1	305.2	90.8	84.4	52.2
	증가율	n.a.	n.a.	n.a.	-18.6	14.6	-11.5
퇴직연금	금액	8,608.5	5,525.2	23,822.0	7,558.1	8,029.8	5,290.3
	증가율	128.6	-2.3	28.9	33.6	99.3	-38.5
	구성비	49.7	39.0	39.4	47.0	50.7	41.4
Bulk Buyouts	금액	5,362.4	1,912.3	9,428.8	4,315.9	2,882.2	1,732.4
	증가율	n.a.	n.a.	n.a.	327.4	151.9	-67.7
보장성보험	금액	54.8	49.8	197.5	43.3	29.6	36.6
	증가율	8.7	-0.1	-3.2	-11.5	-32.9	-26.5
	구성비	0.3	0.4	0.3	0.3	0.2	0.3
퇴직소득보험	금액	3,379.2	3,159.0	13,669.2	2,962.1	2,456.6	2,236.0
	증가율	-14.6	-23.6	-10.3	-17.8	-30.3	-33.8
	구성비	19.5	22.3	22.6	18.4	15.5	17.5
소계(B)	금액	17,345.2	14,165.7	60,395.4	16,079.9	15,843.1	12,769.7
	증가율	20.5	-17.0	-2.6	4.8	17.0	-26.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계(A+B)	금액	18,849.9	15,865.0	67,470.2	18,074.2	17,699.4	14,498.8
	증가율	20.8	-15.0	-0.1	5.7	13.0	-23.1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n.a.는 통계 집계방식 변경에 의해 자료가 없는 경우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투자 및 저축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투자 및 저축 신규보험료는 일시납 보험료가 증가하면서 전체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함.
  -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은 일시납 역외영업 신규보험료가 7.4% 증가하고 일시납 유배당채권(With Profit Bonds) 보험료도 39.6% 증가하면서 전체 일시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9.4% 증가함.
  - 정기납 투자 및 저축 보험료는 893만 파운드에 그쳤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34.1% 감소한 것으로 4분기 연속 감소함.

###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계좌<sup>9)</sup>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13.9% 증가하였으나 비중이 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신규보험료가 9.2%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3.7% 감소함.
- 2014년 3/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 판매가 증가하고 개인연금계좌(Individual Pension) 판매 증가율도 소폭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9% 증가함.
  - 정기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하였으나 Personal Pension이 8.3%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3% 증가함.
  - 단체개인연금계좌(Work-based Pensions) 보험료는 비중이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의 판매가 16.0%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4.9%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일시납 퇴직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개인연금계좌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단체개인연금계좌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9.2% 감소한 29억 2,899만 파운드로 집계됨.

9)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연금계좌(Personal Pension,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등)와 단체개인연금계좌(Group Personal Pension,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s, Group SIPP 등)로 구분됨.

- 일시납 개인연금계좌 보험료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큰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8.0% 증가하고 Individual Stakeholder Pension, SIP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32.9%, 75.1%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27.4% 증가함.
- 일시납 단체개인연금계좌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42.4% 감소하여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는 규모가 가장 큰 Group Personal Pension 보험료가 43.5% 감소하고 Employer-sponsored Stakeholder Pension 보험료도 11.5% 감소하였기 때문임.

### 〈퇴직연금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퇴직연금(Trust-based Pension)<sup>10)</sup>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6.5% 감소한 56억 1,754만 파운드임.
- 2014년 3/4분기 정기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5% 증가한 3억 2,729만 파운드로 2분기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 이는 정기납 퇴직연금에서 가장 비중이 큰 DC형 퇴직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한데 기인함.
- 한편 일시납 퇴직연금 보험료는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s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38.5% 감소한 52억 9,025만 파운드였음.
  - 맞춤형퇴직연금과 Bulk Buyouts<sup>11)</sup>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5%, 67.7%의 감소율을 시현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됨.

###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보장성보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한 2억 9,402만 파운드임.

10) 퇴직연금은 Defined Benefits, Defined Contributions, Group AVCS, TIPs(Trustee Investment Plans), Buyouts 등으로 구분함.

11) DB형 퇴직연금 관리를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임.

■ 정기납 보장성보험료<sup>12)</sup>는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한 2억 5,740만 파운드임.

- 개인보험인 기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10.8%, 7.8% 감소하였으나, 단체보장성 신규보험료가 13.9%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

■ 일시납 보장성 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6.5% 감소한 3,662만 파운드였으며, 5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감.

#### 〈퇴직소득보험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일시납 퇴직소득보험<sup>13)</sup>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8% 감소한 22억 3,602만 파운드임.

- 소득인출 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8.5%나 증가하였으나, 가장 규모가 큰 종신연금 신규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49.8%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감소함.

#### 〈모집형태별 신규보험료〉

■ 2014년 3/4분기 정기납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의 경우, 독립 자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이나 전분기대비 無자문 비중이 2분기 연속 증가함.

- 전체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분기보다 1.8%p 낮아진 72.5%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연금계좌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86.6%로 가장 컸음.
- 無자문 채널의 정기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전기대비 2.4%p 증가한 18.1%였으며,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동 채널의 비중이 96.3%, 퇴직연금, 퇴직연금계좌 중 동 채널 비중은 각각 66.9%, 5.3%였음.

12) 정기납 보장성보험(Protection Products)은 개인보험인 정기생명보험(Term Life), 종신보험(Whole Life), CI(Critical Illness), 소득보장(Income Protection)과 단체보험인 단체생명보험(Group Life), 단체CI(Group Critical Illness), 단체소득보장(Group Income Protection)보험으로 구분함.

13) 퇴직소득(Retirement Income)보험은 일시납 수령형태만 있으며, 종신연금(Pension Annuities),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나뉨.

○ 제한적 자문 채널 비중은 정기납 신규보험료 판매 중 9.4%를 차지했으며, 종목별로는 보장성 보험 중 비중이 19.5%로 가장 크고 투자 및 저축보험의 경우가 3.5%로 가장 작았음.

■ 2014년 3/4분기 일시납 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크기는 독립 자문, 無자문, 제한적 자문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분기대비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이 증가함.

○ 일시납 전체 판매 중 독립 자문 채널 비중은 전분기대비 16.8%p 늘어난 65.3%였으며, 종목별로 살펴보면 보장성보험 88.9%, 퇴직연금계좌 84.9%로 그 비중이 크고, 퇴직소득 보험의 비중이 45.3%로 가장 작았음.

○ 無자문 채널의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비중은 20.9%로 전분기대비 17.1%p 감소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퇴직소득보험 중 비중이 45.5%, 퇴직연금 중 동 비중이 33.6%를 차지함.

○ 일시납 신규보험료 중 제한적 자문채널의 판매비중은 13.7%로 가장 작으나 전분기보다는 1.9%p 증가했고, 종목별로는 투자 및 저축보험 중 동 채널의 비중은 25.6%로 비교적 크나 퇴직연금계좌의 경우에는 5.6%로 가장 작았음.

〈표 7〉 2014년 3/4분기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모집형태별 비중

(단위: %)

구분	독립 자문 (Independent Advice)		제한적 자문 <sup>1)</sup> (Restricted Advice)		無자문 <sup>2)</sup> (Non-advised)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정기납	일시납
투자 및 저축보험	0.2	72.3	3.5	25.6	96.3	2.1
퇴직연금계좌	86.6	84.9	8.2	5.6	5.3	9.6
퇴직연금	27.6	49.2	5.5	17.1	66.9	33.6
보장성보험	69.5	88.9	19.5	10.7	11.0	0.4
퇴직소득보험	-	45.3	-	9.3	-	45.5
전체 <sup>3)</sup>	72.5	65.3	9.4	13.7	18.1	20.9

주: 1) 독립중개인(WoM), 단일 전속(Single Tied)과 다중 전속(Multi Tied)설계사 포함.

2) 보험회사의 직접 판매와 제3자 판매를 포함하며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함.

3) 각 채널별 신규보험료를 합산하여 재계산함.

4) 비중 합계가 100% 이하인 경우는 채널 파악이 안 된 경우로 보임.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 2014년 3/4분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정기납 및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0.4%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됨.

○ 방카슈랑스를 통한 정기납 보험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1.5% 감소한 2,850만 파운드였는데, 이는 보장성보험 보험료가 19.1% 감소하고 퇴직연금계좌 보험료는 70.4% 감소한 데에 기인함.

○ 일시납 신규보험 판매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8.9% 감소한 2억 4,706만 파운드였으며,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의 경우 0.9% 소폭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크게 감소함.

〈표 8〉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방카슈랑스 판매

(단위: 백만 파운드, %)

구분	정기납						일시납					
	2013			2014			2013			2014		
	3/4	4/4	연간	1/4	2/4	3/4	3/4	4/4	연간	1/4	2/4	3/4
투자 및 저축보험	0.2	0.1	0.6	0.3 (217.6)	0.0 (6.1)	0.0 (-109.1)	125.3	128.4	661.7	115.1 (-60.6)	109.4 (-5.4)	126.4 (0.9)
퇴직연금계좌	20.9	9.8	51.3	11.9 (23.6)	7.9 (-28.2)	6.2 (-70.4)	28.7	31.8	135.2	28.2 (-34.5)	32.2 (2.0)	18.4 (-35.9)
퇴직연금	0.0	0.0	0.0	0.0	0.0	0.0 (0.0)	52.3	52.7	200.8	54.9 (-3.9)	40.5 (4.3)	5.5 (-89.6)
역외영업	0.0	0.0	0.2	0.0 (15.4)	0.0 (1.8)	0.1 (28.9)	85.5	121.1	383.3	94.3 (9.3)	76.6 (-15.3)	70.5 (-17.5)
보장성보험	28.5	26.9	116.2	26.9 (-20.4)	23.7 (-20.4)	22.3 (-19.1)	3.4	3.9	12.4	4.4 (10.7)	5.9 (35.8)	4.0 (-32.7)
퇴직소득보험 <sup>1)</sup>	-	-	-	-	-	-	49.6	44.3	202.8	32.2 (-49.9)	20.7 (-53.5)	22.2 (-55.2)
전체	48.7	37.5	170.7	38.4 (-8.8)	31.8 (-22.9)	28.5 (-41.5)	347.4	384.3	1,605.6	329.1 (-39.7)	285.2 (-12.3)	247.1 (-28.9)

주: 1) 별도 취합된 퇴직소득보험의 방카슈랑스 판매를 합침.

2) ( ) 안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통계집계변경으로 인해 2014년 1/4분기부터 표시함.

자료: 영국보험협회(ABI).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의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연간자료만 발표)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전체 신규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개인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역외영업의 경우 투자·저축성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표시하지 않음.
  - 퇴직소득보험(Retirement Income)은 퇴직자의 연금재원이 분배되는 단계의 보험으로서 종신연금(Pension Annuity)과 소득인출(Income Drawdown)로 구분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보험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3. 일본 동향<sup>14)</sup>

#### 가. 생명보험

##### 〈신규계약 현황〉

■ FY2014 2/4분기 생명보험 신규계약액은 개인보험 신규계약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체보험 및 개인연금 신규계약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20조 755억 엔이었음.

○ 2/4분기 개인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은 증가하였지만,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2% 감소함.

-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8.1% 감소하였지만, 정기보험의 신규계약액이 5.8% 증가하면서 사망보험 신규계약액도 2.2% 증가함.

- 반면, 생사혼합보험인 양로보험(정기양로보험 포함)과 기타 생사혼합보험의 신규계약액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5.2%, 37.5% 감소함.

○ 2/4분기 개인연금보험 신규계약액의 경우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함.

- 2/4분기 정액연금보험 계약은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고, 특히 변액연금보험 계약은 2배 이상 증가함.

○ 한편, 2/4분기 단체보험 신규계약액은 내수경기 소폭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단체정기보험(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sup>15)</sup> 포함)과 단체신용생명보험 계약액이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2.6% 증가한 5,380억 엔을 기록함.

- 2/4분기 단체정기보험과 단체신용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6.8%, 65.0% 증가함.

14)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 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15)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은 임직원 사망 시 또는 고도장해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을 말함.

〈표 9〉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억 엔, %)

구분 <sup>1)</sup>		FY2013				FY2014	
		2/4	3/4	4/4	연간	1/4	2/4
개 인	금액	174,145	178,390	166,772	677,145	165,379	173,735
	증가율	-2.3	-2.3	-18.1	-7.5	4.8	-0.2
	구성비	88.8	85.9	78.0	84.5	83.9	86.5
사 망	금액	144,201	145,083	141,933	561,456	139,541	147,363
	증가율	-3.6	-5.5	-17.9	-8.5	7.1	2.2
	구성비	73.5	69.9	66.4	70.0	70.8	73.4
정기보험	금액	74,168	76,150	74,110	290,916	71,808	78,434
	증가율	-4.9	-4.7	-15.7	-7.4	8.0	5.8
종신보험	금액	39,938	36,450	36,616	145,252	33,940	36,711
	증가율	-4.8	-13.7	-29.4	-17.0	5.2	-8.1
생사혼합	금액	28,504	31,678	22,835	109,217	20,790	21,617
	증가율	3.5	13.8	-21.2	-3.4	-20.6	-24.2
	구성비	14.5	15.3	10.7	13.6%	10.5	10.8
양로보험 <sup>2)</sup>	금액	14,762	13,287	12,724	54,467	11,691	12,518
	증가율	3.3	-3.6	-11.2	-5.0	-14.6	-15.2
기 타	금 액	12,858	17,429	9,137	51,114	8,063	8,041
	증가율	2.0	31.0	-33.8	-3.4	-31.0	-37.5
생 존	금액	1,440	1,629	2,004	6,473	5,048	4,755
	증가율	36.5	40.6	18.4	29.1	260.6	230.2
	구성비	0.7	0.8	0.9	0.8	2.6	2.4
개인연금	금액	17,876	19,185	26,744	79,734	21,340	21,640
	증가율	0.5	-4.7	-8.1	-6.8	34.0	21.1
	구성비	9.1	9.2	12.5	9.9	10.8	10.8
정액연금	금액	15,971	17,038	24,222	70,542	18,011	17,075
	증가율	-3.1	-10.6	-11.0	-12.1	35.3	6.9
변액연금	금액	1,905	2,147	2,522	9,192	3,329	4,565
	증가율	44.9	100.7	32.9	74.5	27.2	139.6
단체보험	금액	4,056	10,007	20,306	44,794	10,376	5,380
	증가율	47.8	148.4	76.8	47.3	-0.5	32.6
	구성비	2.1	4.8	9.5	5.6	5.3	2.7
단체정기 <sup>3)</sup>	금액	3,438	7,356	14,348	35,141	4,358	4,360
	증가율	31.2	89.3	27.9	50.6	-56.4	26.8
단체신용생명	금액	618	2,651	5,958	9,653	6,018	1,020
	증가율	394.4	1,766.9	2,139.8	36.3	1,312.7	65.0
합 계	금액	196,077	207,582	213,822	801,673	197,095	200,755
	증가율	-1.4	0.4	-12.4	-5.5	7.0	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며,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 구성비임.

2) 양로보험은 정기양로보험을 포함함.

3) 단체정기보험은 종합복지 단체정기보험을 포함함.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14 2/4분기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산규모는 단기자금 및 비운용자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유가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1.9% 증가한 358조 5,820억 엔을 기록함.

〈표 10〉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sup>1),2)</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40,397	18.9	36,270	-10.2	44,168	21.8	41,816	-5.3	47,833	14.4
단기자금	21,649	35.1	18,650	-13.9	26,697	43.1	26,923	0.8	26,645	-1.0
매입금전채권	27,230	0.9	26,523	-2.6	25,859	-2.5	26,559	2.7	26,923	1.4
금전신탁	21,695	5.5	23,136	6.6	24,592	6.3	28,909	17.6	29,906	3.4
유가증권	2,820,451	0.8	2,875,769	2.0	2,850,318	-0.9	2,864,775	0.5	2,928,616	2.2
- 국채	1,495,198	0.2	1,499,348	0.3	1,498,157	-0.1	1,489,079	-0.6	1,495,263	0.4
- 지방채	141,180	1.9	143,220	1.4	140,089	-2.2	140,116	0.0	139,861	-0.2
- 회사채	253,411	1.4	252,754	-0.3	248,959	-1.5	246,686	-0.9	247,828	0.5
- 주식	182,812	6.6	190,312	4.1	180,299	-5.3	182,800	1.4	192,412	5.3
- 외화증권	571,913	0.7	613,478	7.3	614,509	0.2	638,222	3.9	688,462	7.9
대출금	388,130	-1.5	386,344	-0.5	380,992	-1.4	378,104	-0.8	373,651	-1.2
부동산	62,598	-0.9	63,041	0.7	62,372	-1.1	62,560	0.3	63,141	0.9
운용자산 <sup>3)</sup>	3,408,962	1.0	3,456,510	1.4	3,448,009	-0.2	3,457,515	0.3	3,525,635	2.0
비운용자산	60,745	-5.1	59,802	-1.6	57,817	-3.3	62,650	8.4	60,185	-3.9
총자산 <sup>4)</sup>	3,469,707	0.9	3,516,312	1.3	3,505,826	-0.3	3,520,165	0.4	3,585,820	1.9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잔액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3)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4)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자료: 일본생명보험협회.

- 2/4분기 지방채를 제외한 모든 유가증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2.2% 증가하며 292조 8,616억 엔을 기록함.
  - 2/4분기 주식 규모의 경우 미국 주식시장 호조 및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5.3% 증가하였고, 외화증권의 규모는 전분기대비 7.9% 증가함.
  - 국채와 회사채의 규모도 전분기대비 각각 0.4%, 0.5%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전분기 대비 0.2% 감소함.
- 현금 및 예금,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등의 자산 규모는 각각 전분기보다 14.4%, 1.4%, 3.4% 증가함.
- 한편, 2/4분기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1.0% 감소하였으며, 대출금도 일반대출금과 보험약관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1.2% 감소함.

## 나. 손해보험

### 〈보험료 현황〉

- FY2014 2/4분기 손해보험의 경우 화재보험,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감소한 반면, 그 외(운송보험 제외) 종목의 원수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2조 1,458억 엔으로 집계됨.
  - 2/4분기 화재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한 반면, 해상보험 원수보험료는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하며 539억 엔으로 집계됨.
  - 동 기간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한 9,417억 엔으로 집계된 반면, 자동차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2,487억 엔으로 집계됨.
  - 2/4분기 상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상해보험 수요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한 2,643억 엔이었음.
  - 보험 종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특종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2,737억 엔으로 집계됨.

- 특종보험 중 비중이 큰 배상책임보험(48.8%)과 비용·이익보험<sup>16)</sup>(22.0%) 원수보험료가 각각 3.3%,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표 11〉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sup>2),3)</sup>	FY2013				FY2014		
	2/4	3/4	4/4	연간	1/4	2/4	
화재	보험료	3,497	3,854	3,740	14,523	3,624	3,482
	증가율	4.3	1.6	5.0	2.8	5.6	-0.4
	구성비	16.7	17.8	17.5	16.9	16.1	16.2
해상	보험료	528	531	545	2,167	569	539
	증가율	11.9	11.8	4.8	9.5	1.2	2.1
	구성비	2.5	2.5	2.6	2.5	2.5	2.5
운송	보험료	152	157	163	644	172	152
	증가율	1.3	1.3	4.5	1.9	0.0	0.0
	구성비	0.7	0.7	0.8	0.8	0.8	0.7
자동차	보험료	9,037	9,652	9,409	37,505	9,740	9,417
	증가율	2.9	6.8	4.7	4.4	3.5	4.2
	구성비	43.1	44.6	44.0	43.8	43.3	43.9
자동차 배상책임	보험료	2,586	2,520	2,583	10,229	2,582	2,487
	증가율	15.9	13.8	5.3	9.9	1.7	-3.8
	구성비	12.3	11.6	12.1	11.9	11.5	11.6
상해	보험료	2,600	2,437	2,324	10,134	2,824	2,643
	증가율	-1.1	-2.4	1.6	-1.6	1.9	1.7
	구성비	12.4	11.2	10.9	11.8	12.5	12.3
특종	보험료	2,549	2,512	2,597	10,486	3,004	2,737
	증가율	8.0	10.7	9.8	8.7	6.2	7.4
	구성비	12.2	11.6	12.2	12.2	13.3	12.8
합계	보험료	20,948	21,664	21,362	85,688	22,517	21,458
	증가율	4.9	6.0	5.1	4.6	3.7	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이며, 연말 수치는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 기준임.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16) 보험사고로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영업이익에 관한 보험임. 기업의 건물 파손 등의 직접 손해는 보장하지 않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이 대표적인 예임.

17)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자산 현황〉

■ FY2014 2/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단기자금, 부동산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예금, 환매조건부채권, 매입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의 자산 규모 증가로 전분기대비 1.8% 증가한 29조 5,344억 엔으로 집계됨.

〈표 12〉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sup>1)</sup>

(단위: 억 엔, %)

구분	FY2013						FY2014				
	2/4		3/4		4/4		1/4		2/4		
	금액	증가율									
현금 및 예금	8,448	19.0	7,272	-13.9	8,612	18.4	6,734	-21.8	9,175	36.2	
단기자금	3,913	16.1	4,012	2.5	4,044	0.8	5,135	27.0	4,822	-6.1	
환매조건부채권	3,228	-22.9	3,703	14.7	2,710	-26.8	3,294	21.6	5,059	53.6	
매입금전채권	2,547	-15.8	2,443	-4.1	1,383	-43.4	1,617	16.9	1,800	11.3	
금전신탁	1,131	-5.7	1,192	5.4	1,193	0.1	985	-17.5	1,145	16.2	
유가증권	국채	64,526	1.8	64,563	0.1	66,010	2.2	67,608	2.4	66,050	-2.3
	지방채	3,554	1.1	3,575	0.6	3,461	-3.2	3,368	-2.7	3,270	-2.9
	회사채	26,568	0.8	26,048	-2.0	26,193	0.6	24,688	-5.7	24,079	-2.5
	주식	70,172	4.6	73,634	4.9	67,307	-8.6	68,727	2.1	72,069	4.9
	외화증권	50,333	2.4	53,167	5.6	52,922	-0.5	53,696	1.5	55,551	3.5
	기타증권	2,460	2.4	2,394	-2.7	2,470	3.2	2,329	-5.7	2,334	0.2
	소계	217,612	2.7	223,381	2.7	218,363	-2.2	220,416	0.9	223,353	1.3
대출금	16,957	-1.0	16,680	-1.6	16,252	-2.6	16,121	-0.8	15,743	-2.3	
부동산	10,429	1.3	10,321	-1.0	10,225	-0.9	10,150	-0.7	9,975	-1.7	
운용자산	264,265	2.3	269,005	1.8	262,784	-2.3	264,453	0.6	271,072	2.5	
비운용자산 <sup>2)</sup>	26,278	-6.2	26,076	-0.8	26,514	1.7	25,736	-2.9	24,271	-5.7	
총자산	290,544	1.5	295,082	1.6	289,298	-2.0	290,190	0.3	295,344	1.8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 누적 잔액, 전분기대비 증가율로서,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비운용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 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자료: 일본손해보험협회.

- 2/4분기 현금 및 예금은 전분기대비 36.2% 증가한 9,175억 엔이었으며, 환매조건부채권도 전분기대비 53.6% 증가한 5,059억 엔으로 집계됨.
- 단기자금은 전분기대비 6.1% 감소한 반면, 매입금전채권, 금전신탁 규모는 전분기대비 각각 11.3%, 16.2% 증가함.
- 유가증권의 경우 2/4분기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은 전분기대비 감소하였지만, 주식, 외화증권 등의 증가로 인해 전체적으로 1.3% 증가함.
  - 2/4분기 국채는 전분기대비 2.3%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채와 회사채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됨.
  - 주식의 경우 미국 증시 강세와 엔화 약세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4.9% 성장하였고, 외화증권도 전분기대비 3.5% 증가함.
- 2/4분기 대출금은 일반대출금이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3% 감소하였으며, 부동산도 전분기대비 1.7% 감소함.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 (<http://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 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会社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은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성보험과 단체성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성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성보험은 단체보험(團體保險), 단체연금보험(團體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醫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성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4. 중국 동향<sup>18)</sup>

### 가. 중국 보험산업 총괄

#### 〈수지상황〉

■ 2014년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는 4,44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함.

-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소폭 둔화되었으나, 인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전체 수입보험료 성장률이 대폭 증가함.

■ 2014년 3/4분기 전체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706억 위안, 사업비는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한 671억 위안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전체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소폭 둔화됨.

〈표 13〉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업비<sup>1),2)</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금액	4,362	3,920	3,790	17,222	7,000	4,489	4,445
	증가율 <sup>3)</sup>	18.0	10.6	11.1	11.2	35.9	2.9	13.4
인보험	금액	2,748	2,426	2,199	11,010	5,243	2,623	2,726
	증가율 <sup>3)</sup>	19.5	7.8	6.1	8.4	44.1	-4.5	12.4
손해보험	금액	1,614	1,495	1,591	6,212	1,757	1,866	1,719
	증가율 <sup>3)</sup>	15.4	15.7	18.8	16.5	16.1	15.6	15.0
지급보험금	금액	1,475	1,546	1,704	6,213	1,859	1,672	1,706
	증가율 <sup>3)</sup>	35.2	36.8	28.7	31.7	24.9	13.4	10.3
인보험	금액	710	688	617	2,774	1,025	793	778
	증가율 <sup>3)</sup>	59.9	72.1	35.0	46.0	35.2	11.7	13.0
손해보험	금액	765	858	1,087	3,439	834	879	928
	증가율 <sup>3)</sup>	18.2	17.5	25.5	22.1	14.2	14.9	8.2
사업비	금액	585	596	772	2,500	613	656	671
	증가율 <sup>3)</sup>	15.8	11.3	16.3	15.1	12.3	12.1	12.4

주: 1) 기간별 실적치 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8)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첨부된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하기 바람.

〈자산운용〉

- 2014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9조 6,076억 위안으로 나타남.
  - 이 중 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2.1% 증가한 8조 7,677억 위안, 비운용자산은 전분기대비 7.3% 증가한 8,399억 위안으로 나타남.
- 운용자산 중 예치금의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줄어든 반면, 투자금의 비중은 늘어났는데,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주식과 대체자산<sup>19)</sup>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기 때문임.
  - 예치금은 2조 5,095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총자산대비 예치금 비중은 전분기에 비해 1.2%p 감소한 26.1%를 기록함.
  - 투자금은 6조 2,582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3.8%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64.3%에서 65.1%로 상승함.
  - 중국 보험회사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과 대체자산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였음.

〈표 14〉 중국 보험산업 자산운용 포트폴리오<sup>1),2)</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운용자산계	금액	72,829	74,159	76,873	76,873	82,228	85,907	87,677
	증가율 <sup>3)</sup>	2.8	1.8	3.7	12.2	7.0	4.5	2.1
	구성비	92.4	92.1	92.7	92.7	91.9	91.6	91.3
예치금	금액	23,405	22,879	22,641	22,641	25,031	25,618	25,095
	증가율 <sup>3)</sup>	-2.4	-2.2	-1.0	-3.4	10.6	2.3	-2.0
	구성비	29.7	28.4	27.3	27.3	28.0	27.3	26.1
투자금	금액	49,424	51,280	54,232	54,232	57,197	60,288	62,582
	증가율 <sup>3)</sup>	5.4	3.8	5.8	20.3	5.5	5.4	3.8
	구성비	62.7	63.7	65.4	65.4	63.9	64.3	65.1
비운용자산계 <sup>4)</sup>	금액	6,010	6,371	6,014	6,014	7,231	7,831	8,399
	증가율 <sup>3)</sup>	3.3	6.0	-5.6	20.2	20.2	8.3	7.3
	구성비	7.6	7.9	7.3	7.3	8.1	8.4	8.7
총자산	금액	78,840	80,530	82,887	82,887	89,459	93,737	96,076
	증가율 <sup>3)</sup>	2.8	2.1	2.9	12.7	7.9	4.8	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말잔액기준.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전분기대비.

4) 비운용자산은 미수금, 장기주식투자, 유무형 자산 등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9)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체자산에는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등이 포함됨.

## 나. 인보험

### 〈수입보험료〉

- 2014년 3/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는 2,726억 위안<sup>20)</sup>으로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함.
  - 2014년 2/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반전되면서 인보험 수입보험료도 증가세로 전환됨.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건강보험 및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2013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성장세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2014년 3/4분기 투자형 생명보험<sup>21)</sup>의 판매 실적 급증으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9.0% 증가한 2,216억 위안을 기록함.
    - 2014년 3/4분기 중국 자본시장의 호황에 따른 보험회사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의 개선이 투자형 생명보험 판매 실적 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됨.
  -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5.6% 증가한 367억 위안,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7.5% 증가한 143억 위안이었음.
  
- 2014년 3/4분기 변액보험 및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은 자본시장의 호황으로 플러스로 나타남.
  - 귀진증권(Sinolink Securities)에 따르면 189개 변액보험 투자계정의 평균수익률은 3.2%로 나타남.
  - MetLife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sup>22)</sup>의 수익률은 5.1%로 나타났으며, ICBC-AXA Life가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도 플러스를 기록하였음.

20) 인보험 수입보험료에는 인보험회사 수입보험료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의 단기의료보험과 상해보험, 연금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인보험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포함됨.

21) CIRC에 따르면 투자형 생명보험은 배당형 보험,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을 포함함.

22) 변액연금보험은 중국에서 2011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현재 이를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ICBC-AXA Life 및 MetLife 2개사가 있음.

〈표 15〉 인보험 수입보험료<sup>1),2),3)</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료	2,748	2,426	2,199	11,010	5,243	2,623	2,726
	증가율 <sup>4)</sup>	19.5	7.8	6.1	8.4	44.1	-4.5	12.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생명보험	보험료	2,332	2,033	1,836	9,425	4,607	2,080	2,216
	증가율 <sup>4)</sup>	18.9	4.5	2.0	5.8	42.9	-10.8	9.0
	구성비	84.9	83.8	83.5	85.6	87.9	79.3	81.3
건강보험	보험료	292	271	266	1,123	492	401	367
	증가율 <sup>4)</sup>	23.2	32.9	37.8	30.2	66.8	37.3	35.6
	구성비	10.6	11.2	12.1	10.2	9.4	15.3	13.5
상해보험	보험료	124	122	97	461	144	142	143
	증가율 <sup>4)</sup>	25.3	18.2	18.2	19.5	21.0	14.5	17.5
	구성비	4.5	5.0	4.4	4.2	2.7	5.4	5.2

주: 1) 기간별 실적치기준.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지급보험금〉

■ 2014년 3/4분기 인보험 지급보험금은 77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3.0% 증가함.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인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도 높아짐.

■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이 높아졌으나, 상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세는 둔화됨.

-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8.1%로 전분기에 비해 0.5%p 상승하였으며, 건강보험 지급보험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도 전분기 34.8%에서 38.3%로 상승함.
- 상해보험 지급보험금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8.2%로 전분기에 비해 6.8%p 하락함.

〈표 16〉 인보험 지급보험금<sup>1),2),3)</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보험금	710	688	617	2,774	1,025	793	778
	증가율 <sup>4)</sup>	59.9	72.1	35.0	46.0	35.2	11.7	13.0
생명보험	보험금	594	558	457	2,253	863	639	604
	증가율 <sup>4)</sup>	68.3	88.0	30.2	49.7	34.0	7.6	8.1
건강보험	보험금	92	101	129	411	133	124	140
	증가율 <sup>4)</sup>	33.3	31.6	62.7	38.0	49.4	34.8	38.3
상해보험	보험금	24	29	32	110	29	30	34
	증가율 <sup>4)</sup>	14.3	10.0	16.9	12.9	16.0	25.0	18.2

주: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

2) 인신보험, 인수보험, 의외상해보험을 각각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4분기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3.0%로 전분기에 비해 0.2%p 상승하였으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7.2%에서 7.0%로 하락함.

-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ICBC-AXA Life, AIA China, Metlife로 나타남.

- 한편,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sup>23)</sup>의 시장점유율은 55.6%로 전분기에 비해 3.3%p 감소함.

23) 중국계 생명보험회사 중 상위 5사는 중국런쇼우생명, 중국타이핑양생명, 중국핑안생명, 신화생명, 중국런민생명으로,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8.2%, 7.8%, 7.4%, 7.4%, 4.8%임(2014년 3/4분기 기준).

〈표 17〉 생명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2)</sup>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인보험	중국계	상위 5사	68.9	70.5	68.4	69.5	65.8	58.9	55.6
		중·소형사 <sup>3)</sup>	25.3	23.7	24.4	24.9	30.5	33.9	37.4
		소계	94.2	94.1	92.8	94.4	96.3	92.8	93.0
	외국계	5.8	5.9	7.2	5.6	3.7	7.2	7.0	

주: 1) 시장 점유율은 해당기간별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5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다. 손해보험

#### 〈수입보험료〉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1,719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5.0% 증가함.

○ 손해보험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수입보험의 증가율도 둔화되었음.

- 2014년 3/4분기 중국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은 4.2%로 전분기 7.5%에 3.3%p 하락하였음.

〈표 18〉 손해보험 수입보험료<sup>1,2)</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료 <sup>3)</sup>	1,614	1,495	1,591	6,212	1,757	1,866	1,719
	증가율 <sup>4)</sup>	15.4	15.7	18.8	16.5	16.1	15.6	15.0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지급보험금〉

■ 2014년 3/4분기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은 928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함.

○ 자동차 부품 가격 하락으로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손해보험 지급보험금의 증가율도 감소함.

- 중국시장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자동차부품기업들은 중국 반독점법 집행 강화로 2014년 하반기부터 자동차부품 가격을 크게 인하하였음.

〈표 19〉 손해보험 지급보험금<sup>1),2)</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보험	보험금 <sup>3)</sup>	765	858	1,087	3,439	834	879	928
	증가율 <sup>4)</sup>	18.2	17.5	25.5	22.1	14.2	14.9	8.2

주: 1) 재산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의역함.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 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4)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

■ 2014년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4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한 데 반해,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에 비해 0.5%p 상승한 97.8%로 나타났으나, 외국계 손해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2.7%에서 2.2%로 하락함.

○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상위 3사<sup>24)</sup>의 시장점유율은 65.8%로 전분기에 비해 1.0%p 증가함.

○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AIG, Liberty Mutual, Samsung Insurance로 조사됨.

24) 중국계 손해보험회사 중 상위 3사는 중국런민재산, 중국핑안재산, 중국타이핑양재산이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33.2%, 20.2%, 12.4%임(2014년 3/4분기 기준).

〈표 20〉 손해보험회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sup>1),2)</sup>

(단위: %)

구분			2013				20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 보험	중국계	상위 3사	64.2	65.3	64.6	64.8	65.5	64.8	65.8
		중·소형사 <sup>3)</sup>	34.5	33.4	34.0	33.9	33.3	32.5	32.0
		소계	98.7	98.7	98.6	98.7	98.9	97.3	97.8
	외국계	1.3	1.3	1.4	1.3	1.1	2.7	2.2	

주: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3) 중·소형사는 상위 3사와 외국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라. 연금보험<sup>25)</sup>

■ 2014년 3/4분기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133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고, 누적 운용보험료는 2,949억 위안으로 전분기대비 5.2% 증가함.

○ 중국 연금보험회사의 수탁보험료는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4년 3/4분기에 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표 21〉 중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및 자산 운용 현황<sup>1)</sup>

(단위: 억 위안, %)

구분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탁보험료 <sup>2)</sup>	금액	167	146	132	143	589	166	141	133
	증가율 <sup>2)</sup>	-19.2	-12.6	4.3	-10.7	-11.1	-0.6	-3.4	0.1
누적 운용 보험료	금액	2,180	2,312	2,384	2,495	2,495	2,648	2,804	2,949
	증가율 <sup>3)</sup>	8.5	6.1	3.1	4.7	24.2	6.1	5.9	5.2

주: 1) 상기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다를 수 있음.

2) 수탁보험료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임.

3) 전분기대비.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5) 중국은 2004년 4월부터 연금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07년 10월부터 연금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연금보험회사를 정식으로 허용함. 현재까지 중국 내에 설립된 연금보험회사는 타이핑, 평안, 린쇼우, 장장, 타이강 등 5개 회사임.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http://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 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를 활용해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유니버설),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부록** ▶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과 유통채널 실태<sup>1)</sup>

**1. 배경**

최근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생명보험시장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매우 매력적인 진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음. 본고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과 유통채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 최근 국내 생명보험산업은 저성장·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생명보험회사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FY2010~2013 국내 생명보험산업의 자본이익률이 각각 12.4%, 8.7%, 6.6%, 4.1%를 기록하면서 생명보험산업의 수익성 둔화는 지속되고 있음.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성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음.
  
- 금융위기 이후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생명보험시장은 고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각.

1) 본고는 LIMRA의 「The Asian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2014, 10)을 번역하여 재구성 및 보완을 거쳐서 작성되었음. 본고에서 조사한 아시아 신흥국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며, 보험상품은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장기간병보험, 의료보험, 중대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암보험을 포함하고 유통채널은 설계사, 중개인, 은행, 보험회사 점포, 우체국, 보험회사 웹사이트, 소매 웹 사이트, 우편, 전화, 보험회사 직원 등임.

-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09년 1,833억 달러에서 매년 7.3%씩 증가하여 2013년 2,432억 달러를 기록함.
  -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11년에는 보험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회복되고 있음.
    - \* CBRC(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010년 10월 보험회사 설계사의 은행 활동을 금지하고 각 은행 지점에 대해 보험상품 판매를 3개사 이하로 한정하였음. CIRC는 2011년 1월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의 수입보험료 대부분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제외시킨 새로운 보험회사 회계기준을 시행하였음.
  - 인도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보험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2011~2013년 3년 연속 감소하였으나 최근 인도 정부의 노력\*\*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 IRDA(인도보험감독청)는 2010년 수수료 상한액 설정, 보험기간 연장, 판매수수료 지불방법 개정, 보험계약 불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유닛링크(Unit-linked)보험, 유니버설 라이프보험에 대한 규제개정과 보험판매 적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음.
    - \*\* 인도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방식 다양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가 2009년 이후 두 자리 수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냄.
- 현재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현지법인을 통해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사무소를 통해 시장조사를 추진하고 있음.
  - 삼성생명은 중국과 태국, 한화생명은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삼성생명은 인도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현지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보임.

〈표 1〉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한국	574	711	791	789	912	12.3
중국	1,092	1,430	1,345	1,412	1,521	8.6
인도	571	678	604	533	522	-2.2
태국	62	83	92	108	148	24.3
인도네시아	51	72	94	109	141	28.9
말레이시아	57	79	93	95	100	15.1
아시아 신흥국	1,833	2,342	2,228	2,257	2,432	7.3

주: 아시아 신흥국은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말함.  
 자료: Swiss Re.

〈표 2〉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아시아 신흥국 진출 현황

구분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삼성생명	진출방식	합작법인	사무소	합작법인	-	-
	진출시기	2005	2004	1997	-	-
한화생명	진출방식	합작법인	-	-	합작법인	-
	진출시기	2012	-	-	2012	-

자료: 금융감독원.

## 2.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 선호도 및 구매 실태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매력이 높음을 시사함. 또한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가 TV 외에도 웹 사이트, 신문이 있으며,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 역시 TV 광고 외에도 웹 사이트 기사, 신문이나 잡지 광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통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신매체인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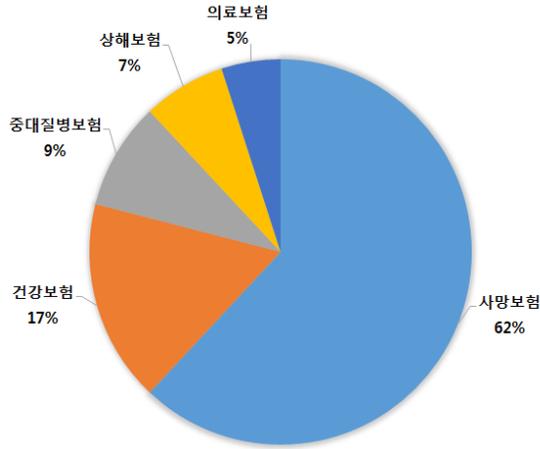
- 본 절에서는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의 사례와 비교 평가함.

### 가.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 선호도 및 구매 실태

#### 1) 중국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중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보험(62%)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17%), 중대질병보험(9%), 상해보험(7%), 의료보험(5%)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1〉 중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는 TV, 가족이나 친구, 웹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은 웹 사이트 기사,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TV 광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복수응답 기준).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망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5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구(42%), 보험회사의 자문(33%), 웹 사이트(32%) 순으로 나타났음.
- 선호도가 두 번째인 건강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6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TV(46%), 보험회사의 자문(51%), 웹 사이트(29%) 순으로 나타났음.
- 사망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웹 사이트 기사(50%)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TV 광고(38%),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5%), 신문이나 잡지 광고(28%) 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2%)이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웹 사이트 기사(41%), 신문이나 잡지 광고(35%), 부정적 생활사건(33%), TV 광고(30%) 순으로 나타났음.

〈표 3〉 중국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sup>1)</sup>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사망보험 <sup>2)</sup>	TV(57%), 가족이나 친구(42%), 보험회사의 자문(33%), 웹 사이트(32%)	웹 사이트 기사(50%), TV 광고(38%),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5%), 신문지나 잡지 광고(28%)
건강보험 <sup>2)</sup>	가족이나 친구(62%), TV(46%), 보험회사의 자문(51%), 웹 사이트(29%)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2%), 웹 사이트 기사(41%), 신문이나 잡지 광고(35%), TV 광고(30%)

주: 1) 이는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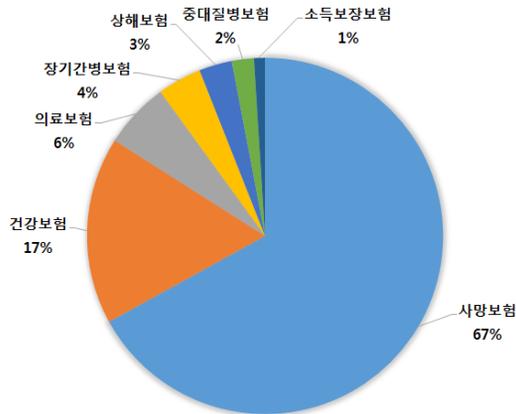
2)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은 각각 62%, 17%로 보험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LIMRA.

## 2) 인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보험(67%)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17%), 의료보험(6%), 장기간병보험(4%), 상해보험(3%), 중대질병보험(2%)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2〉 인도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는 TV, 신문, 가족이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은 TV 광고,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신문이나 잡지 광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망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6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신문(55%), 가족이나 친구(54%), 보험회사의 자문(35%), 웹 사이트(26%) 순으로 나타났음(복수응답 기준).
- 선호도가 두 번째인 건강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5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구(48%), 신문(45%), 보험회사의 자문(43%), 웹 사이트(38%) 순으로 나타났음.
- 사망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TV 광고(46%)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5%), 신문이나 잡지 광고(32%), 웹 사이트 기사(32%) 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신문이나 잡지 광고(45%)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TV 광고(4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0%), 병원 방문(40%), 웹 사이트 기사(35%) 순으로 나타났음.

〈표 4〉 인도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sup>1)</sup>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사망보험 <sup>2)</sup>	TV(62%), 신문(55%), 가족이나 친구(54%), 보험회사의 자문(35%), 웹 사이트(26%)	TV 광고(4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5%), 신문이나 잡지 광고(32%), 웹 사이트 기사(32%)
건강보험 <sup>2)</sup>	TV(50%), 가족이나 친구(48%), 신문(45%), 보험회사의 자문(43%), 웹 사이트(38%)	신문이나 잡지 광고(45%), TV 광고(4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0%), 웹 사이트 기사(35%)

주: 1) 이는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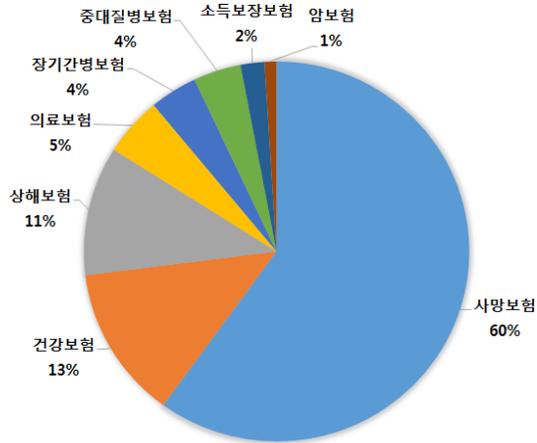
2)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은 각각 67%, 17%로 보험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LIMRA.

### 3) 태국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태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보험(60%)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13%), 상해보험(11%), 의료보험(5%), 장기간병보험(4%), 중대질병보험(4%)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3〉 태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는 TV, 중개인, 가족이나 친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은 TV 광고,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부정적 생활사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복수응답 기준).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망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7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중개인(41%), 가족이나 친구(40%), 신문(28%)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도가 두 번째인 건강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7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구(44%), 중개인(31%), 신문(31%) 순으로 나타났다.
- 사망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TV 광고(56%)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1%), 웹 사이트 기사(29%), 긍정적 생활사건(23%), 부정적 생활사건(22%)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TV 광고(64%)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부정적 생활사건(3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28%), 신문이나 잡지 광고(28%)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태국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sup>1)</sup>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사망보험 <sup>2)</sup>	TV(70%), 중개인(41%), 가족이나 친구(40%), 신문(28%)	TV 광고(5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1%), 웹 사이트 기사(29%), 부정적 생활사건(22%)
건강보험 <sup>2)</sup>	TV(72%), 가족이나 친구(44%), 중개인(31%), 신문(31%)	TV 광고(64%), 부정적 생활사건(3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28%), 신문이나 잡지 광고(28%)

주: 1) 이는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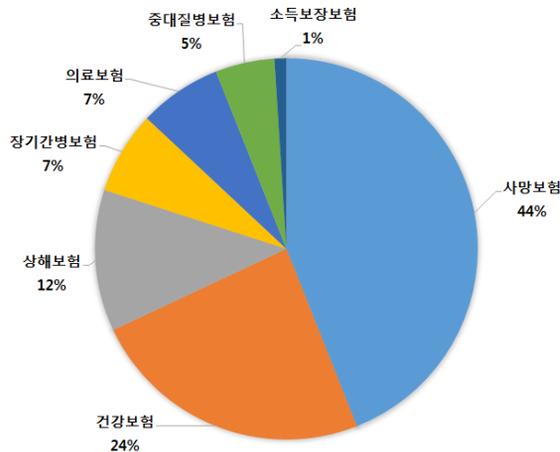
2)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은 각각 60%, 13%로 보험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LIMRA.

#### 4) 인도네시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네시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보험(44%)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24%), 상해보험(12%), 장기간병보험(7%), 의료보험(7%), 중대질병보험(5%)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4〉 인도네시아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는 TV, 가족이나 친구, 웹 사이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은 TV 광고,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웹 사이트 기사가 있음(복수응답 기준).

-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망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TV(60%)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이나 친구(46%), 웹 사이트(42%), 신문(34%) 순으로 나타났음.
- 두 번째로 선호도가 높은 건강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5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TV(49%), 신문(35%), 은행(32%), 웹 사이트(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망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TV 광고(48%)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6%), 웹 사이트 기사(33%), 긍정적 생활사건(30%), 신문이나 잡지 광고(30%) 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웹 사이트 광고(49%)가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3%), TV 광고(38%), 긍정적 생활사건(32%), 신문이나 잡지 광고(27%) 순으로 나타났음.

〈표 6〉 인도네시아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sup>1)</sup>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사망보험 <sup>2)</sup>	TV(60%), 가족이나 친구(46%), 웹 사이트(42%), 신문(42%)	TV 광고(48%),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6%), 웹 사이트 기사(33%), 신문이나 잡지 광고(30%)
건강보험 <sup>2)</sup>	가족이나 친구(59%), TV(49%), 신문(35%), 웹 사이트(27%)	TV 광고(49%),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3%), TV 광고(38%), 신문이나 잡지 광고(27%)

주: 1) 이는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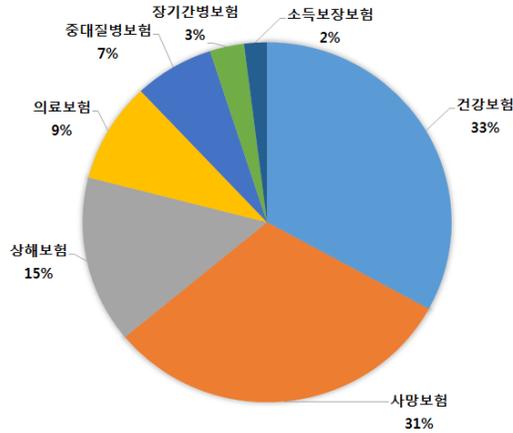
2) 사망보험 및 건강보험은 각각 44%, 24%로 보험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LIMRA.

## 5) 말레이시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말레이시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33%)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사망보험(31%), 상해보험(15%), 의료보험(9%), 중대질병보험(7%)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5〉 말레이시아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는 주로 가족이나 친구, 보험회사의 자문, 신문이 있으며, 보험상품의 구매 유발요인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긍정적 생활사건, 부정적 생활사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복수응답 기준).
  - 선호도가 가장 높은 건강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6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험회사의 자문(42%), 신문(24%), TV(15%) 순으로 나타났음.
  - 선호도가 두 번째인 사망보험의 정보획득경로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6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TV(32%), 보험회사의 자문(28%), 신문(20%) 순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 생활사건(45%)이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1%), 긍정적 생활사건(34%), 병원 방문(19%) 순으로 나타났음.
  - 사망보험의 구매 유발요인을 조사한 결과,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3%)이 가장 많이 고려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긍정적 생활사건(32%), TV 광고(20%), 부정적 생활사건(17%)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말레이시아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sup>1)</sup>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건강보험 <sup>2)</sup>	가족이나 친구(65%), 보험회사의 자문(42%), 신문(24%)	부정적 생활사건(45%),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1%), 긍정적 생활사건(34%)
사망보험 <sup>2)</sup>	가족이나 친구(65%), 보험회사의 자문(28%), 신문(2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3%), 긍정적 생활사건(32%), TV 광고(20%), 부정적 생활사건(17%)

주: 1) 이는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임(복수응답).

2) 건강보험 및 사망보험은 각각 33%, 31%로 보험소비자 선호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음.

자료: LIMRA.

### 나.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보험상품 실태 평가

■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사망보험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 지위를 갖는 주력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 생명보험시장의 성장매력이 매우 높음을 시사함.

- 한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망보험과 의료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선호하는 보험상품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국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보험소비자가 사망보험 외에 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여겨짐.
- 반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높은 저축률과 의료보험시장의 미발달로 보험소비자는 사망보험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한국처럼 경제성장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보험소비자는 사망보험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8〉 한국과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상품 선호도 비교(1순위 기준)

구분	보험상품 선호도 비중(상위 3개 상품)
한국	사망보험(29%), 의료보험(29%), 압보험(17%)
중국	사망보험(62%), 건강보험(17%), 중대질병보험(9%)
인도	사망보험(68%), 건강보험(17%), 의료보험(6%)
태국	사망보험(70%), 건강보험(15%), 의료보험(6%)
인도네시아	사망보험(45%), 건강보험(24%), 상해보험(12%)
말레이시아	건강보험(35%), 사망보험(33%), 상해보험(16%)

주: ( ) 안은 보험소비자가 해당 보험상품을 선호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LIMRA.

-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TV 외에도 웹 사이트와 신문이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 주 정보획득경로이며, TV 광고 외에도 웹 사이트 기사, 신문이나 잡지 광고가 구매 유발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 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TV가 선호도가 높은 정보획득경로이며, TV 광고가 주 구매 유발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국,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IT 기술 발달로 웹 사이트가 보험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신매체가 되었지만 전통매체인 TV, 신문 또는 잡지를 이용하는 보험소비자도 여전히 많음.
  - 태국의 경우에는 보험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전통매체인 TV와 신문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보험소비자가 전통매체인 신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

〈표 9〉 아시아 신흥국 선호도가 높은 보험상품의 정보획득경로 및 구매 유발요인

구분	정보획득경로	구매 유발요인	
한국	사망보험	TV(60%), 가족이나 친구(53%), 보험회사의 자문(34%)	긍정적 생활사건(44%), 부정적 생활사건(40%), TV 광고(34%),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4%)
	의료보험	가족이나 친구(67%), TV(49%), 보험회사의 자문(31%)	부정적 생활사건(43%), 긍정적 생활사건(36%), TV 광고(3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26%)
중국	사망보험	TV(57%), 가족이나 친구(42%), 보험회사의 자문(33%), 웹 사이트(32%), 신문(19%)	웹 사이트 기사(50%), TV 광고(38%),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5%), 신문이나 잡지 광고(28%)
	건강보험	가족이나 친구(62%), TV(46%), 보험회사의 자문(51%), 웹 사이트(29%), 신문(2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2%), 웹 사이트 기사(41%), 신문이나 잡지 광고(35%), TV 광고(30%)
인도	사망보험	TV(62%), 신문(55%), 가족이나 친구 (54%), 보험회사의 자문(35%), 웹 사이트(26%)	TV 광고(4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45%), 신문이나 잡지 광고(32%), 웹 사이트 기사(32%)
	건강보험	TV(50%), 가족이나 친구(48%), 신문(45%), 보험회사의 자문(43%), 웹 사이트(38%)	신문이나 잡지 광고(45%), TV 광고 (4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0%), 웹 사이트 기사(35%)
태국	사망보험	TV(70%), 중개인(41%), 가족이나 친구(40%), 신문(28%)	TV 광고(5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31%), 웹 사이트 기사(29%), 부정적 생활사건(22%)
	건강보험	TV(72%), 가족이나 친구(44%), 중개인(31%), 신문(31%)	TV 광고(64%), 부정적 생활사건 (36%),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28%), 신문이나 잡지 광고(28%)
인도네시아	사망보험	TV(60%), 가족이나 친구(46%), 웹 사이트(42%), 신문(34%)	TV 광고(48%),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 (36%), 웹 사이트 기사(33%), 신문이나 잡지 광고(30%)
	건강보험	가족이나 친구(59%), TV(49%), 신문(35%), 웹 사이트(27%)	웹 사이트 기사(49%),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3%), TV 광고(38%), 신문이나 잡지 광고(27%)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가족이나 친구(65%), 보험회사의 자문(42%), 신문(24%)	부정적 생활사건(45%),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41%), 긍정적 생활사건(34%)
	사망보험	가족이나 친구(65%), 보험회사의 자문(28%), 신문(20%)	가족이나 친구의 추천(33%), 긍정적 생활사건(32%), TV 광고 (20%), 부정적 생활사건(17%)

자료: LIMRA.

### 3.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유통채널 선호도 및 이용 실태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한국과 달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설계사, 중개인 외에도 보험회사 웹 사이트, 은행이 선호도가 높은 채널이며 설계사, 은행, 중개인 외에도 보험회사 웹 사이트가 보험소비자가 실제 자주 이용하는 채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또한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 또는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절에서는 주로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 사례와 비교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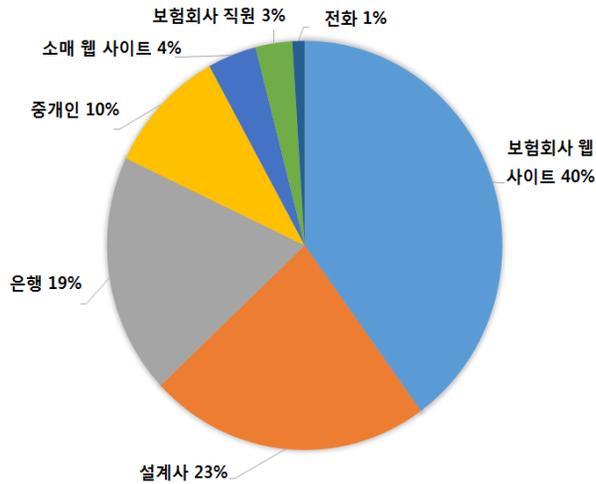
#### 가.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유통채널 선호도 및 이용 실태

##### 1) 중국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중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 웹 사이트\*(40%)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설계사(23%), 은행(19%), 중개인(10%), 소매 웹 사이트(4%), 보험회사 직원(3%), 전화(1%)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 이는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 웹 사이트에서 보험상품을 검색하고 나서 대면채널(예: 설계사)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포함함.

〈그림 6〉 중국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중국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설계사(6개)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은행(6개), 중개인(5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암보험(1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대질병보험(61%), 상해보험(48%), 의료보험(42%), 건강보험(39%), 사망보험(27%) 순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장기간병보험(5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사망보험(22%), 상해보험(15%), 건강보험(9%), 중대질병보험(5%), 의료보험(5%) 순으로 나타났음.

○ 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건강보험(2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해보험(11%), 중대질병보험(11%), 사망보험(7%), 의료보험(5%)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 중국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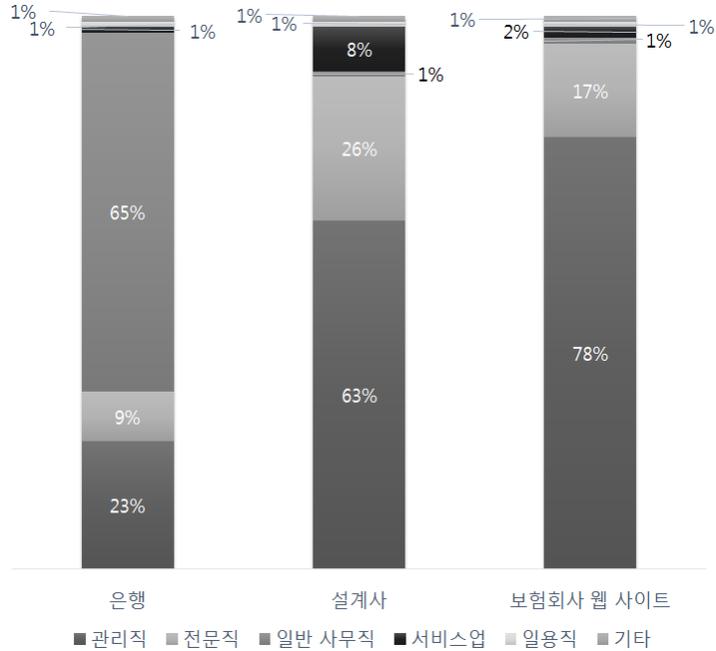
구분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중대질병 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장기간병 보험	보험상품 개수
설계사	27	39	48	61	42	100	-	6
은행	22	9	15	5	5	-	50	6
중개인	7	25	11	11	5	-	-	5
보험회사 웹 사이트	39	10	11	16	-	-	-	4
소매 웹 사이트	2	4	-	-	16	-	50	4
보험회사 직원	1	7	7	-	5	-	-	4
보험회사 점포	1	1	-	3	-	-	-	3
우체국	-	1	-	-	-	-	-	1
우편	1	-	-	-	-	-	-	1
전화	-	3	-	-	-	-	-	1
기타	-	-	7	-	26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보험상품 개수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중국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관리직과 일반 사무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63%)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26%), 서비스업(8%), 일반 사무직(1%) 순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일반 사무직(6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직(23%), 전문직(9%) 순으로 나타났음.
- 보험회사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7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17%), 서비스업(2%), 일반 사무직(1%)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7〉 중국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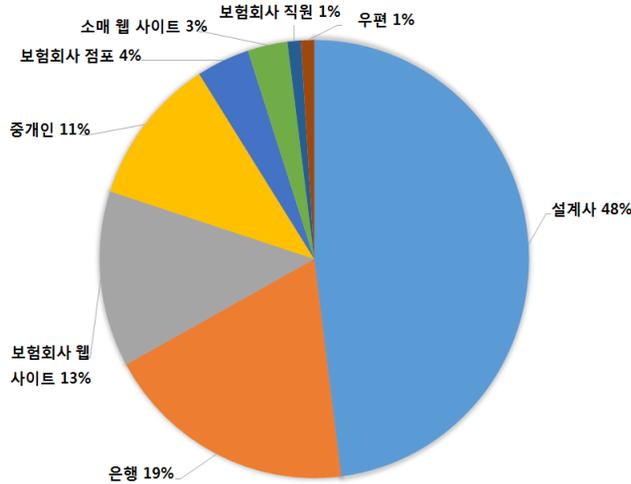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2) 인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계사(48%)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은행(19%), 보험회사 웹 사이트(13%), 중개인(11%), 보험회사 점포(4%), 소매 웹 사이트(3%), 보험회사 직원(1%), 우편(1%)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8〉 인도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설계사(7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은행(6개), 보험회사 웹 사이트(5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보험(1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해보험(71%), 중대질병보험(60%), 사망보험(57%), 의료보험(47%), 건강보험(35%), 장기간병보험(27%) 순으로 나타났음.

○ 보험회사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중대질병보험(2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15%), 상해보험(14%), 장기간병보험(11%), 의료보험(13%), 사망보험(8%) 순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사망보험(15%)과 건강보험(1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해보험(14%), 의료보험(13%), 장기간병보험(11%) 순으로 나타났음.

〈표 11〉 인도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단위: %, 개)

구분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소득보장 보험	중대질병 보험	의료보험	장기간병 보험	보험상품 개수
설계사	57	35	71	100	60	47	33	7
보험회사 웹 사이트	8	15	14	-	20	13	11	6
은행	15	15	14	-	-	13	11	5
중개인	8	18	-	-	20	7	11	5
보험회사 점포	7	5	-	-	-	7	22	4
소매 웹 사이트	2	5	-	-	-	-	11	3
보험회사 직원	1	5	-	-	-	7	-	-
우편	1	3	-	-	-	-	-	2
우체국	1	-	-	-	-	-	-	1
전화	-	-	-	-	-	-	-	-
기타	-	-	-	-	-	7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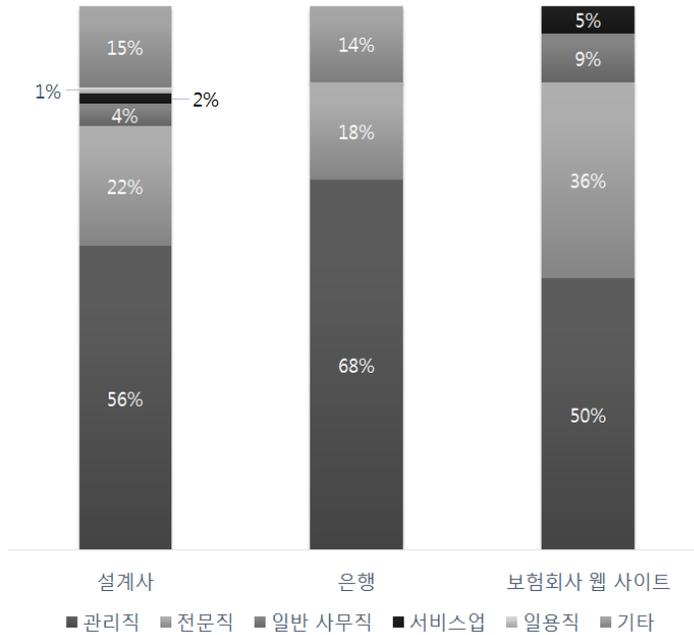
주: 보험상품 개수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인도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관리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56%)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22%), 일반 사무직(4%), 서비스업(2%)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68%)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18%)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회사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5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36%), 일반 사무직(9%), 서비스업(5%)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9〉 인도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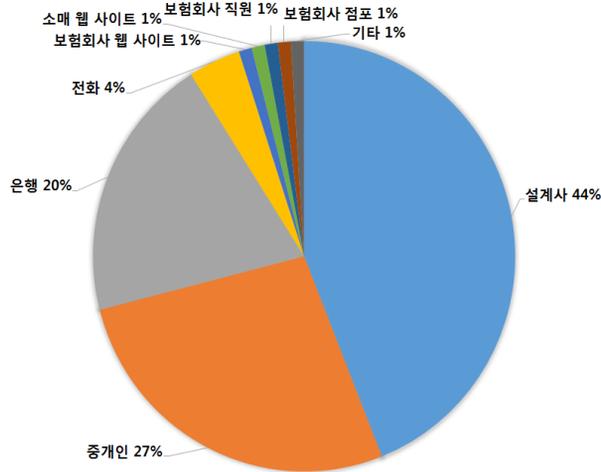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3) 태국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태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계사(44%)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중개인(27%), 은행(20%), 전화(4%), 보험회사 웹 사이트(1%), 소매 웹 사이트(1%), 보험회사 직원(1%), 보험회사 점포(1%)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10〉 태국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태국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설계사(8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개인(8개), 은행(5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보험(67%), 암보험(6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대질병보험(50%), 사망보험(47%), 상해보험(44%), 건강보험(39%), 의료보험(33%), 장기간병보험(17%) 순으로 나타났음.

○ 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중대질병보험(4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의료보험(33%), 암보험(33%), 장기간병보험(33%), 사망보험(30%), 건강보험(28%), 소득보장보험(17%), 상해보험(16%) 순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장기간병보험(4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건강보험(25%), 사망보험(19%), 상해보험(13%), 의료보험(13%) 순으로 나타났음.

〈표 12〉 태국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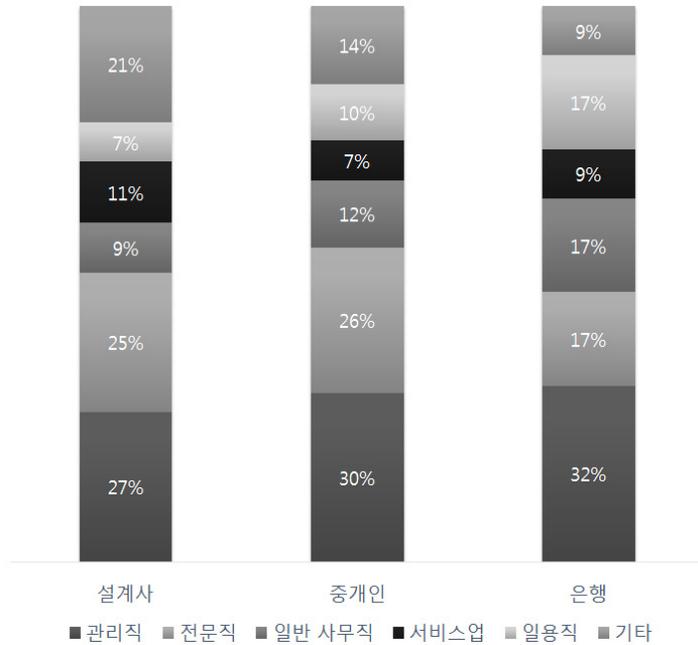
구분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소득보장 보험	중대질병 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장기간병 보험	보험상품 개수
설계사	47	39	44	67	50	33	67	17	8
중개인	30	28	16	17	40	33	33	33	8
은행	19	25	13	-	-	13	-	42	5
전화	1	3	13	17	-	13	-	-	5
보험회사 직원	1	3	6	-	-	7	-	-	4
우체국	-	3	6	-	-	-	-	-	2
보험회사 웹 사이트	1	-	-	-	10	-	-	-	2
우편	-	-	-	-	-	-	-	8	1
보험회사 점포	-	-	3	-	-	-	-	-	1
소매 웹 사이트	1	-	-	-	-	-	-	-	1
기타	-	-	-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보험상품 개수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태국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관리직과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2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25%), 일반 사무직(9%), 서비스업(11%), 일용직(7%)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3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26%), 일반 사무직(12%), 서비스업(7%), 일용직(10%)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3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전문직(17%), 일반 사무직(17%), 서비스업(9%), 일용직(17%)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1〉 태국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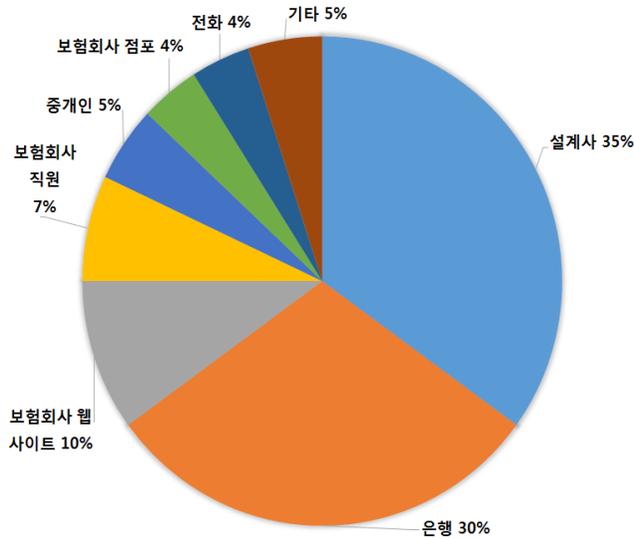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4) 인도네시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네시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계사(35%)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은행(30%), 보험회사 웹 사이트(10%), 보험회사 직원(7%), 중개인(5%), 보험회사 점포(4%), 전화(4%)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12〉 인도네시아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인도네시아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은행(7개)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설계사(6개), 보험회사 점포(4개)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보험(1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기간병보험(40%), 의료보험(30%), 사망보험(33%), 건강보험(27%), 중대질병보험(14%), 상해보험(11%) 순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중대질병보험(86%), 상해보험(44%), 건강보험(38%), 사망보험(30%), 장기간병보험(30%), 의료보험(27%) 순으로 나타났음.
  - 보험회사 점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상해보험(1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기간병보험(10%), 사망보험(6%), 건강보험(3%) 순으로 나타났음.

〈표 13〉 인도네시아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단위: %, 개)

구분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소득보장 보험	중대질병 보험	의료보험	장기간병 보험	보험상품 개수
은행	33	27	11	100	14	36	40	7
설계사	30	38	44	-	86	27	30	6
보험회사 점포	6	3	11	-	-	-	10	4
보험회사 직원	4	14	6	-	-	9	-	4
보험회사 웹 사이트	9	5	-	-	-	-	20	3
중개인	10	3	-	-	-	-	9	3
전화	4	-	6	-	-	9	-	3
우체국	-	-	6	-	-	-	-	2
우편	1	-	-	-	-	-	-	1
소매 웹 사이트	-	-	-	-	-	-	-	1
기타	1	11	17	-	-	9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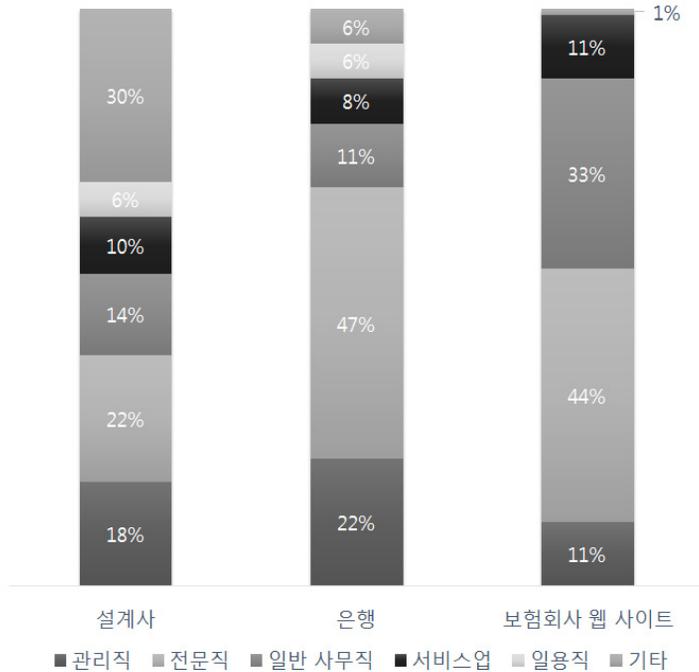
주: 보험상품 개수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인도네시아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전문직(2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직(18%), 일반 사무직(14%), 서비스업(10%), 일용직(6%)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전문직(4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직(22%), 일반 사무직(11%), 서비스업(5%), 일용직(6%)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보험회사 웹 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전문직(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33%), 관리직(11%), 일용직(11%)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3〉 인도네시아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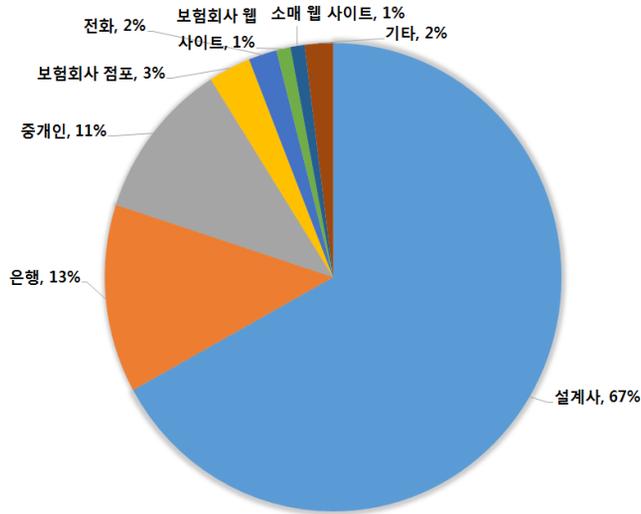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5) 말레이시아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말레이시아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계사 (67%)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은행(13%), 중개인(11%), 보험회사 점포(3%), 전화(2%), 보험회사 웹 사이트(1%), 보험회사 직원(1%), 소매 웹 사이트(1%) 순으로 나타났음(1순위 기준).

〈그림 14〉 말레이시아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자료: LIMRA.

- 보험상품을 실제 구매한 말레이시아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보험상품에서 설계사(8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은행(5개), 중개인(5개), 보험회사 점포(4개)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암보험(10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중대질병보험(94%), 의료보험(90%), 건강보험(72%), 사망보험(62%), 상해보험(58%), 소득보장보험(50%), 장기간병보험(50%) 순으로 나타났음.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소득보장보험(25%), 장기간병보험(17%), 사망보험(14%), 건강보험(7%), 상해보험(6%) 순으로 나타났음.
  - 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하는 상품으로 장기간병보험(17%)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상해보험(15%), 건강보험(14%), 사망보험(12%), 중대질병보험(6%) 순으로 나타났음.

〈표 14〉 말레이시아 보험상품별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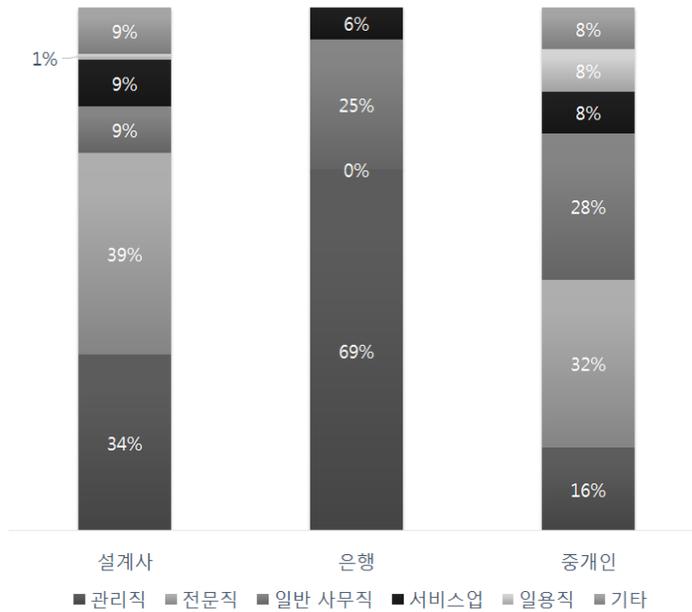
구분	사망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소득보장 보험	중대질병 보험	의료보험	암보험	장기간병 보험	보험상품 개수
설계사	62	72	58	50	94	90	100	50	8
은행	14	7	6	25	-	-	-	17	5
중개인	12	14	15	-	6	-	-	17	5
보험회사 점포	6	3	3	-	-	5	-	-	4
보험회사 직원	1	1	3	-	-	5	-	-	4
전화	1	3	-	-	-	-	-	17	3
보험회사 웹 사이트	1	1	3	-	-	-	-	-	3
소매 웹 사이트	-	-	-	25	-	-	-	-	1
우체국	-	-	6	-	-	-	-	-	1
우편	1	-	-	-	-	-	-	-	1
기타	-	-	6	-	-	-	-	-	-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주: 보험상품 개수는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관리직과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전문직(3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관리직(34%), 일반 사무직(9%), 서비스업(9%), 일용직(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6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25%), 서비스업(6%) 순으로 나타났다.
- 중개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전문직(3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 사무직(28%), 관리직(16%), 서비스업(8%), 일용직(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5〉 말레이시아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나.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의 유통채널 실태 평가

- 한국과 달리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설계사, 중개인 외에도 보험회사 웹 사이트와 은행이 유통채널 선호도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계사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채널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중개인, 전화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보험 관련 세제 자문 및 재무 상담 수요 증가로 재무 설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계사, 중개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여겨짐.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험소비자가 설계사, 중개인 외에도 점포가 많은 은행과 편의성이 높은 보험회사 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

○ 한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설계사, 중개인 외에도 은행이 유통채널 선호도의 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아시아 신흥국 보험소비자의 유통채널 선호도(1순위 기준)

구분	유통채널별 선호도 비중(상위 3개)
한국	설계사(51%), 중개인(18%), 전화(12%)
중국	보험회사 웹 사이트(40%), 설계사(23%), 은행(19%)
인도	설계사(48%), 은행(19%), 보험회사 웹 사이트(13%)
태국	설계사(44%), 중개인(27%), 은행(20%)
인도네시아	설계사(35%), 은행(30%), 보험회사 웹 사이트(10%)
말레이시아	설계사(67%), 은행(13%), 중개인(11%)

자료: LIMRA.

■ 한국과 달리 중국,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설계사, 은행, 중개인 외에도 보험회사 웹 사이트가 보험소비자가 실제 자주 이용하는 채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 보험소비자에 대해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계사(8개)가 가장 선호하는 채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전화(7개), 중개인(6개)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의 경우 인터넷 보안 문제로 인한 편의성이 낮아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 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임.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는 실제로 편의성이 높은 보험회사 웹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화를 제외하면 한국처럼 설계사, 은행, 중개인이 보험소비자가 실제 자주 이용하는 채널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16〉 아시아 신흥국 유통채널의 실제 이용 현황

구분	유통채널별 보험상품 구매 개수
한국	설계사(8개), 전화(7개), 중개인(6개), 은행(6개)
중국	설계사(6개), 은행(6개), 중개인(5개), 보험회사 웹 사이트(4개)
인도	설계사(7개), 은행(6개), 보험회사 웹 사이트(5개)
태국	설계사(8개), 중개인(8개), 은행(5개)
인도네시아	은행(7개), 설계사(6개), 보험회사 점포(4개), 보험회사 웹 사이트(3개)
말레이시아	설계사(8개), 은행(5개), 중개인(5개)

주: ( ) 안은 보험소비자가 해당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수를 의미함.  
자료: LIMRA.

■ 한국과 달리 대다수 아시아 신흥국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관리직 또는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국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일반 사무직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주요 유통채널에서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보험소비자는 주로 관리직 또는 전문직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음.
- 다만 중국과 태국의 은행, 인도네시아의 보험회사 웹 사이트, 말레이시아의 중개인 채널의 경우 일반 사무직 근로자의 이용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7〉 아시아 신흥국 주요 유통채널의 고객 분류

국가	주요 유통채널	고객 분류 비중(상위 2위)
한국	설계사	일반 사무직(47%), 관리직(12%), 전문직(12%)
	중개인	일반 사무직(46%), 관리직(17%)
	보험회사 웹 사이트	일반 사무직(38%), 관리직(25%), 서비스업(25%)
중국	보험회사 웹 사이트	관리직(78%), 전문직(17%)
	설계사	관리직(63%), 전문직(26%)
	은행	일반 사무직(65%), 관리직(23%)
인도	설계사	관리직(56%), 전문직(22%)
	은행	관리직(68%), 전문직(18%)
	보험회사 웹 사이트	관리직(50%), 전문직(36%)
태국	설계사	관리직(27%), 전문직(25%)
	중개인	관리직(30%), 전문직(26%)
	은행	관리직(32%), 전문직(17%), 일반 사무직(17%)
인도네시아	설계사	전문직(22%), 관리직(18%)
	은행	전문직(47%), 관리직(22%)
	보험회사 웹 사이트	전문직(44%), 일반 사무직(33%)
말레이시아	설계사	관리직(34%), 전문직(39%)
	은행	관리직(69%), 전문직(25%)
	중개인	전문직(32%), 일반 사무직(28%)

주: 고객 분류는 관리직, 전문직, 일반 사무직, 서비스업, 일용직 등의 근로자로 구분되어 있음.  
 자료: LIMRA.

■ 향후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신흥국의 생명보험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은 상기 아시아 신흥국 생명보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참 고 문 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계간보험동향 61호(2012년 봄호).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

문재익·장동민(2014), 『2014년 상반기 생명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금융감독원.

Michael B. Marshall(2014), *The China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 LIMRA.

\_\_\_\_\_ (2014), *The India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 LIMRA.

\_\_\_\_\_ (2014), *The Indonesia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 LIMRA.

\_\_\_\_\_ (2014), *The Malaysia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 LIMRA.

\_\_\_\_\_ (2014), *The Korea Insurance Consumer - Expectations and Experience by Product and Channel*, LIMRA.

Swiss Re(2010~2014), *Sigma No 3*.

## 부 록 I. 통계표

〈부록 표 I-1〉 주요 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2	2013				2014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성장률	2.1	2.1	2.7	3.4	3.7	3.9	3.5	3.2	
경상수지	23,089.1	12,614.3	22,347.4	22,250.4	23,936.1	15,070.7	24,125.2	22,450.5	
수출	139,768.3	135,317.7	141,156.5	136,791.3	146,367.0	137,548.9	145,682.8	141,798.8	
수입	129,830.5	129,732.2	126,757.5	126,033.6	133,062.2	132,345.0	130,915.2	132,867.1	
실업률	2.8	3.6	3.1	3.0	2.8	4.0	3.7	3.3	
금리	국고채(3년)	2.81	2.68	2.67	2.92	2.90	2.87	2.82	2.50
	회사채(3년)	3.31	3.07	3.04	3.33	3.33	3.30	3.25	2.89
소비자물가지수	106.7	107.6	107.4	107.9	107.8	108.8	109.1	109.4	
환율	원/달러	1,090.9	1,084.1	1,122.2	1,112.2	1,062.1	1,069.0	1,030.4	1,025.8
	원/엔화	1,346.1	1,175.6	1,137.4	1,124.2	1,058.3	1,039.6	1,008.7	988.3
KOSPI	1,940.2	1,985.4	1,932.6	1,917.7	2,009.3	1,946.1	1,993.5	2,041.9	
외환보유고	326,968	327,408	326,440	336,922	346,460	354,341	366,546	364,407	

주: 1) 환율, 주가지수는 분기평균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0년 연쇄가격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부록 표 I-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4/4	1/4	2/4	3/4	4/4	1/4	2/4	3/4	4/4
보험 <sup>1)</sup>	201,794	195,836	139,623	138,497	167,547	133,551	145,570	135,769	-
- 생보	169,906	166,114	109,365	108,554	135,447	101,936	110,963	104,478	-
수입보험료	313,339	313,227	245,003	240,001	287,363	257,467	264,960	255,554	-
지급보험금	143,434	147,113	135,639	131,447	151,916	155,531	153,998	151,076	-
- 손보	31,889	29,722	30,258	29,943	32,100	31,615	34,607	31,291	-
원수보험료	180,624	169,569	173,584	171,156	192,842	183,082	180,217	179,023	-
원수손해액	148,736	139,847	143,326	141,213	160,742	151,466	145,610	147,732	-
은행	104,974	123,354	182,746	-31,782	229,979	272,496	250,005	76,442	391,862
- 일반 <sup>2)</sup>	118,680	48,120	147,443	-40,955	128,580	199,612	231,527	32,411	314,189
- 신탁	-13,706	75,234	35,303	9,173	101,399	72,884	18,478	44,031	77,673
증권 <sup>3)</sup>	-22,900	96,983	9,232	-5,597	-47,513	6,904	19,088	53,478	-6,648
자산운용 <sup>4)</sup>	21,299	183,595	44,093	-9,264	-41,835	96,918	16,946	196,161	160,044
종금 <sup>5)</sup>	-2,493	-21,220	-11,420	1,082	2,444	8,863	2,733	826	3,420

주: 1)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2) 실세총예금 + CD 순발행액

3) 고객예탁금 + RP 매도 + CMA

4) 채권형 + MMF + 혼합형 + 주식형 + 기타

5) 발행어음 + CMA 예탁금 + 어음매출

자료: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부록 표 I-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및 구성비 추이<sup>1),2)</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생존	보험료	336,612	53,144	53,996	55,496	162,636	58,006	60,647	58,776
	증가율	87.6	-8.9	-39.6	-39.2	-32.0	-40.6	14.1	8.9
	구성비	29.2	21.7	22.5	19.3	21.1	22.5	22.9	23.0
사망	보험료	308,411	78,913	79,458	80,289	238,660	81,286	82,133	83,131
	증가율	7.4	3.3	4.1	4.0	3.8	3.6	4.1	4.6
	구성비	26.7	32.2	33.1	27.9	30.9	31.6	31.0	32.5
생사 혼합	보험료	221,677	47,606	46,222	45,910	139,738	50,697	51,639	49,171
	증가율	81.1	3.3	-15.4	-13.2	-9.0	-25.5	8.5	6.4
	구성비	19.2	19.4	19.3	16.0	18.1	19.7	19.5	19.2
변액 보험	보험료	212,230	52,577	51,368	51,498	155,443	51,884	51,246	51,622
	증가율	-0.3	0.4	-0.8	-2.5	-0.9	-6.2	-2.5	0.5
	구성비	18.4	21.5	21.4	17.9	20.1	20.2	19.3	20.2
개인계	보험료	1,078,929	232,239	231,044	233,194	696,477	241,873	245,665	242,701
	증가율	34.6	-0.4	-15.1	-15.0	-10.6	-19.2	5.8	5.0
	구성비	93.6	94.8	96.3	81.1	90.2	93.9	92.7	95.0
단체	보험료	74,156	12,765	8,957	54,169	75,891	15,594	19,295	12,853
	증가율	-3.1	5.3	-2.4	38.6	25.7	13.2	51.2	43.5
	구성비	6.4	5.2	3.7	18.9	9.8	6.1	7.3	5.0
합계	보험료	1,153,086	245,003	240,001	287,363	772,367	257,467	264,960	255,554
	증가율	31.3	-0.1	-14.7	-8.3	-8.0	-17.8	8.1	6.5

주: 1) 단체보험에는 특별계정의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됨.

2)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3)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 · 지급보험금 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sup>1),2),3)</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4)</sup>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110,254	26,096	26,434	29,850	82,379	30,778	30,000	31,034
	증가율	9.5	1.5	-1.7	3.0	1.0	7.4	15.0	17.4
	지급률	32.8	49.1	49.0	53.8	50.7	53.1	49.5	52.8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173,710	42,868	42,859	44,217	129,944	45,364	41,527	42,686
	증가율	13.5	2.0	-1.3	4.6	1.7	-1.3	-3.1	-0.4
	지급률	56.3	54.3	53.9	55.1	54.4	55.8	50.6	51.3
생사 혼합 보험	지급보험금	104,948	27,646	25,171	27,710	80,527	32,856	30,000	29,169
	증가율	97.9	-8.1	4.7	19.6	4.1	18.9	8.5	15.9
	지급률	47.3	58.1	54.5	60.4	57.6	64.8	58.1	59.3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118,839	26,178	28,021	32,989	87,188	28,805	32,993	33,595
	증가율	3.5	-5.9	-6.0	6.8	-1.5	-5.0	26.0	19.9
	지급률	56.0	49.8	54.6	64.1	56.1	55.5	64.4	65.1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507,751	122,788	122,485	134,766	380,038	137,803	134,520	136,484
	증가율	20.4	-2.3	-1.4	7.5	1.3	4.0	9.6	11.4
	지급률	47.1	52.9	53.0	57.8	54.6	57.0	54.8	56.2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58,159	12,851	8,963	17,151	38,964	17,728	19,478	14,592
	증가율	-39.0	-7.0	-23.5	-5.1	-10.6	21.8	51.6	62.8
	지급률	78.4	100.7	100.1	31.7	51.3	113.7	100.9	113.5
전체	지급보험금	565,911	135,639	131,447	151,916	419,002	155,531	153,998	151,076
	증가율	9.5	-2.8	-3.3	5.9	0.0	5.7	13.5	14.9
	지급률	49.1	55.4	54.8	52.9	54.2	60.4	58.1	59.1

주: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4)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sup>1),2),3),4)</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6)</sup>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39,603	7,859	7,929	8,742	24,530	7,572	8,116	7,566
	증가율	10.2	-13.4	-20.5	-13.9	-16.0	-27.2	3.3	-4.6
	사업비율	11.8	14.8	14.7	15.8	15.1	13.1	13.4	12.9
사망 보험	사업비	93,050	23,143	23,723	25,309	72,174	23,332	25,941	24,297
	증가율	14.8	7.6	4.8	7.1	6.5	-7.7	12.1	2.4
	사업비율	30.2	29.3	29.9	31.5	30.2	28.7	31.6	29.2
생사 혼합 보험	사업비	23,698	4,712	4,529	4,908	14,148	4,378	4,505	4,400
	증가율	-2.5	-21.1	-20.2	-19.6	-20.3	-26.4	-4.4	-2.9
	사업비율	10.7	9.9	9.8	10.7	10.1	8.6	8.7	8.9
개인 보험계	사업비	156,351	35,714	36,181	38,958	110,852	35,282	38,562	36,263
	증가율	10.7	-2.4	-5.4	-2.3	-3.4	-15.2	8.0	0.2
	사업비율	14.5	15.4	15.7	16.7	15.9	14.6	15.7	14.9
단체 보험계	사업비	4,687	1,005	1,083	1,334	3,422	1,059	1,267	994
	증가율	7.5	-10.0	-10.8	17.4	-1.3	-13.3	26.1	-8.1
	사업비율	6.3	7.9	12.1	2.5	4.5	6.8	6.6	7.7
전체	사업비	161,038	36,719	37,263	40,292	114,274	36,341	39,830	37,257
	증가율	10.6	-2.6	-5.6	-1.8	-3.3	-15.2	8.5	0.0
	사업비율	14.0	15.0	15.5	14.0	14.8	14.1	15.0	14.6

주: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퇴직연금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6) FY2013은 2013년 12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부록 표 I-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및 비중 추이<sup>1),2)</sup>

(단위: 억 원, %)

구분		FY2012	FY2013				2014		
		연간	1/3	2/3	3/3	연간 <sup>3)</sup>	1/4	2/4	3/4
화재	보험료	3,293	755	734	923	2,413	759	739	703
	증가율	25.0	-3.4	-3.1	-2.4	-2.9	-6.1	-2.1	-4.3
	구성비	0.5	0.4	0.4	0.5	0.4	0.4	0.4	0.4
해상	보험료	8,230	2,122	2,257	1,638	6,016	1,747	1,927	1,839
	증가율	-5.4	-9.9	1.8	-24.3	-10.7	17.0	-9.2	-18.5
	구성비	1.2	1.2	1.3	0.8	1.1	1.0	1.1	1.0
자동차	보험료	128,416	32,338	32,190	32,907	97,435	32,377	33,665	34,259
	증가율	-1.5	-0.9	0.1	2.0	0.4	3.2	4.1	6.4
	구성비	18.7	18.6	18.8	17.1	18.1	17.7	19.1	19.1
보증	보험료	15,816	3,801	3,461	3,976	11,238	3,842	3,651	3,611
	증가율	4.2	-6.9	-9.1	1.6	-4.8	-4.3	-3.9	4.3
	구성비	2.3	2.2	2.0	2.1	2.1	2.1	2.1	2.0
특종 <sup>2)</sup>	보험료	48,557	13,064	11,673	12,435	37,172	12,566	13,099	11,533
	증가율	17.8	5.6	-1.6	3.1	2.4	2.6	0.3	-1.2
	구성비	7.1	7.5	6.8	6.4	6.9	6.9	7.3	6.4
해외 원보험	보험료	4,876	1,390	1,688	1,762	4,840	1,376	1,455	1,442
	증가율	54.1	39.5	47.1	34.0	40.0	-3.0	4.7	-14.6
	구성비	0.7	0.8	1.0	0.9	0.9	0.8	0.8	0.8
장기 손해	보험료	401,896	103,238	106,053	106,187	315,478	110,858	109,526	111,241
	증가율	17.7	4.9	5.4	6.4	5.6	7.5	6.1	4.9
	구성비	58.6	59.5	62.0	55.1	58.7	60.6	60.8	62.1
개인 연금	보험료	41,489	10,622	10,573	10,633	31,829	10,349	10,247	10,200
	증가율	21.1	7.8	2.7	-0.7	3.1	-2.6	-3.5	-3.5
	구성비	6.1	6.1	6.2	5.5	5.9	5.7	5.7	5.7
퇴직 연금	보험료	32,840	6,251	2,527	22,374	31,152	9,209	5,905	4,195
	증가율	3.3	-4.1	-42.4	28.1	9.8	106.1	-5.5	66.0
	구성비	4.8	3.6	1.5	11.6	5.8	5.0	3.3	2.3
계	보험료	685,422	173,584	171,156	192,842	537,582	183,082	180,217	179,023
	증가율	12.4	3.3	2.3	6.8	4.2	8.0	3.8	4.6

주: 1) 전년동기대비(분기) 증가율이며, 2014년 3/4분기는 FY2013 2/3분기와 비교함.

2)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고 부수사업 원수보험료는 제외됨.

3) FY2013은 2013년 13월 말 누적 수치이고, 증가율은 2012년 12월 말 누적 수치와 비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부록 표 I-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sup>1),2),3)</sup>

(단위: %)

구분		FY2013			2014		
		1/3	2/3	3/3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56.8 <sup>4)</sup>	60.9	44.0	73.2	50.2	53.4
	사업비율	55.3	45.2	50.5	50.0	43.7	48.1
	합산비율	112.1	106.1	94.5	123.2	93.9	101.5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8.6	58.0	67.5	89.5	18.5	44.3
	사업비율	31.3	29.7	55.4	36.3	27.1	36.8
	합산비율	79.9	87.7	122.8	125.8	45.6	81.1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155.0	31.7	45.8	72.5	7.4	70.8
	사업비율	12.4	10.2	34.4	13.1	15.1	11.0
	합산비율	167.4	41.9	80.2	85.6	22.5	81.8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59.8	71.1	66.1	69.2	71.0	67.7
	사업비율	18.7	23.1	20.9	19.6	16.9	19.7
	합산비율	78.5	94.2	87.0	88.8	87.9	87.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63.8	54.1	116.9	64.6	89.4	98.1
	사업비율	37.7	43.4	43.0	42.1	49.7	40.7
	합산비율	101.5	97.5	159.9	106.7	139.1	138.8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59.8	60.0	52.8	72.9	45.1	67.1
	사업비율	30.3	27.6	30.1	29.4	28.1	27.6
	합산비율	90.1	87.6	82.9	102.3	73.2	94.8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84.4	89.3	90.3	84.0	84.4	89.3
	사업비율	21.2	19.1	22.5	20.8	19.8	19.4
	합산비율	105.6	108.4	112.8	104.8	104.2	108.7
장기보험 <sup>3)</sup>	경과손해율	83.8	83.5	84.0	85.1	84.4	85.2
	사업비율	18.4	18.3	18.4	18.0	17.9	18.0
	합산비율	102.2	101.8	102.4	103.1	102.3	103.2
전체	경과손해율	82.5	81.8	82.5	83.3	80.6	83.9
	사업비율	19.5	19.2	20.4	19.1	18.7	18.8
	합산비율	102.0	101.0	103.0	102.3	99.3	102.7

주: 1) 개인연금, 퇴직보험, 그리고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 수치임.

2) 손해율 = 발생손해액 / 경과보험료, 사업비율 = 순사업비 / 보유보험료, 합산비율 = 손해율 + 사업비율

3) 경과손해율은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4) 재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 환급금을 일부 제외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부 록 Ⅱ. 글로벌 이슈 발간 목록

###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02호 (10. 6)	<p><b>세계 경제의 과도한 부채와 저성장 위험 (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도한 수준의 부채 규모와 저성장 지속이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li> <li>· 선진국의 금융기관 부채와 민간부채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나, 선진국 공공부채와 신흥국 민간부채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li> <li>·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내에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해 보임.</li> </ul> <p>(ICMB, FT 등)</p>
제302호 (10. 6)	<p><b>미국,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시행방안 확정과 시사점 (이아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국 등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최종안을 가결함.</li> <li>·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은 은행별 자산 규모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부분 적용되기 시작하여 2017년 전면 시행될 예정임.</li> <li>· 우리나라 은행들도 2015년 1월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안이 적용될 예정으로 자산 및 부채 운용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li> </ul> <p>(WSJ, FT 등)</p>
제303호 (10. 13)	<p><b>글로벌 생명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 (김진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기 이후 세계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저금리, 판매 규제 등 위기와 함께 소비자의 장수리스크 인식, 개인 자문 필요성 제고 등 기회가 상존하는 환경변화가 진행되고 있음.</li> <li>· 이러한 변화 속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성제고를 위한 기회요인을 포착하는 한편 위기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p>(BCG 등)</p>
제303호 (10. 13)	<p><b>AIG의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사례와 시사점 (채원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G의 데이터 과학팀은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한 내부인사 담당, 기업 내·외부 데이터를 융합하는 폭넓은 시야 확보 등 빅데이터 구축, 분석, 활용을 위한 내부 역량을 꾸준히 확보해왔으며 이를 통해 언더라이팅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li> <li>· 국내 보험사의 “저성장·고효율 경영으로의 전환”을 위한 경영 전략 개선 방안에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 내·외부의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부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li> </ul> <p>(AIG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04호 (10. 20)	<p><b>에볼라와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해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보험정보원(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은 에볼라 확산이 지속될 경우 에볼라 감염여부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li> <li>· 에볼라 확산으로 세계적 유행성질병(Pandemic Disease)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됨.</li> <li>·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세계적 유행성질병 위험에 대비하고 있으며, 국내 보험사들 역시 세계적 유행성질병이 국내보험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고려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WHO, III 등)</p>
제304호 (10. 20)	<p><b>미국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활용 현황 (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의 42개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li> <li>· 최근 디지털 환경하에서는 획일화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보다 전방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li> </ul> <p style="text-align: right;">(CAIF, 금융감독원 등)</p>
제305호 (10. 27)	<p><b>글로벌 대형은행들의 해외시장 철수와 시사점 (이아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사업 규모와 수익성 악화로 소매금융 부문 해외사업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고 보도함.</li> <li>·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의 씨티그룹, HSBC, 영국의 주요 은행들을 비롯한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해외 소매금융 부문에서 철수하고 있음.</li> <li>·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둔화, 자기자본이익률 하락 및 규제 강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고전한 대표적인 시장으로, 이들의 사업 철수가 진행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WSJ, FT 등)</p>
제305호 (10. 27)	<p><b>ASEAN 경제공동체(AEC) 출범과 ASEAN 보험산업 전망 (채원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M,Best는 ASEAN 금융서비스 부문 통합에 따른 역내 금융 인프라 확충, 높은 잠재 경제성장률, 다양한 재해리스크 관리에 대한 필요성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ASEAN 보험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M,Best, 금융감독원 등)</p>
제306호 (11. 3)	<p><b>미국 생명보험산업의 2014년 상반기 경영실적 분석 (김진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상반기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저금리와 경제의 저성장으로 인해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침.</li> <li>· 투자영업이익은 수익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산 증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 감소하면서 당기손익은 7% 감소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M,Best 등)</p>

##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06호 (11. 3)	<p><b>2013년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 현황과 시사점 (이소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10월 24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2013년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가 5년 만에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li> <li>· 현재 전국에 단일 자동차의무보험 약관 및 요율 제도를 적용한 상황에서 중국 동부지역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의무보험 영업수지는 2009년 이후 계속 적자 상태를 보임.</li> <li>· 이에 따라 중국보험협회(IAC)는 현행 중국 자동차의무보험 약관 및 요율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향후 외국계 손해보험회사는 중국 자동차의무보험의 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CIRC, IAC 등)</p>
제307호 (11. 10)	<p><b>중국 온라인 보험 판매 현황과 시사점 (채원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nst &amp; Young(2014)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보험회사가 주목해야 할 중국 보험시장의 변화로 온라인 채널 확대를 지적함.</li> <li>· 외국계 보험회사의 중국 내 온라인 마케팅은 아직 초기로, 중국계 보험회사들에 비해 뒤쳐져 있으나 브랜드 인지도 확대, 고객 서비스 확대, 상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온라인 채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Ernst &amp; Young 등)</p>
제307호 (11. 10)	<p><b>LTC 보험의 직면과제와 보험회사의 역할 (이해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리(Swiss Re)는 현재 LTC가 직면한 과제로 LTC를 제공하는 공적 예산의 한계, 사적 부문에서 LTC 보험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관련 전문기관 부족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함.</li> <li>· 공적 LTC 부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들은 소비자 니즈 파악을 통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하고, 상품 개발에 필요한 경험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BOE, IMF, 한국은행 등)</p>
제308호 (11. 17)	<p><b>최근 주요국의 연금 개혁 현황 (이아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및 남미 국가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li> <li>· 최근 벨기에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하여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고 공공 부문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그리스도 2014년 말까지 추가적인 연금 개혁을 고려하고 있지만 복지 개혁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li>· 일본에서도 연금 개혁을 위하여 2015년 상반기부터 연금 삭감과 연금 적립금의 주식 운용 비율 확대 계획을 발표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한국경제, OECD 등)</p>
제308호 (11. 17)	<p><b>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제언 (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cKinsey&amp;Company는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이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상품개발 및 판매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li> <li>· 자산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 가구를 중심으로 한 잠재수요 발굴 노력이 요구되며, 고령화와 관련한 상품개발 및 판매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li> <li>· 신흥시장 또는 보험침투도가 낮은 보험시장으로의 진출이 생명보험회사들의 신성장동력 마련의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됨.</li> </ul> <p style="text-align: right;">(McKinsey&amp;Company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09호 (11. 24)	<p><b>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소통 현황과 시사점 (이소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Ernst &amp; Young이 발표한 2014년 세계 주요국 보험계약자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자와의 상호작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li> <li>· 보험계약자의 소극적인 의지, 보험회사의 운영비용 부담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의 소통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됨.</li> <li>·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현재 보험계약자와의 소통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디지털 및 원격 통신 수단을 통해서 보험계약자와의 소통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Ernst &amp; Young 등)</p>
제309호 (11. 24)	<p><b>동남아 5개국 생명보험시장의 특성과 제언 (김진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남아 보험시장은 보험상품 유형, 시장 침투도 수준, 보험료 규모, 생명/생존 급부 및 니즈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민영 보장성 보험 니즈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li> <li>· 동남아 보험시장은 지역적 특성상 전통적인 채널이 큰 역할을 하는 가운데 기술발달로 대안적 채널이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발전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RGA, Asia Insurance Review 등)</p>
제310호 (12. 1)	<p><b>2015년 세계 보험산업 전망 (이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위스 리(Swiss Re)는 11월 25일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성장 전망치를 발표함.</li> <li>· 세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2015년 2.8%, 2016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흥국이 손해보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임.</li> <li>· 세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2015년 4.3%, 2016년 4.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임.</li> <li>· 스위스 리는 신흥국이 글로벌 보험회사들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보험회사들은 신흥국의 규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IBEF, Ernst &amp; Young 등)</p>
제310호 (12. 1)	<p><b>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 시행과 시사점 (채원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되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향후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보험산업 성장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BIS, IMF, 국제금융센터 등)</p>
제311호 (12. 8)	<p><b>중국의 금융개혁 본격화와 시사점 (이아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국무원은 2014년 11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기되었던 예금보험제도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개혁이 본격화됨.</li> <li>· 예금보험제도 도입으로 중국의 중소형 및 외국계 은행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안전망 및 리스크 대처 능력이 강화되며, 금리자유화 추진 등 향후 금융개혁을 위한 환경 마련에 유리한 반면, 은행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li> </ul> <p style="text-align: right;">(WSJ, 한화투자증권 등)</p>

##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11호 (12. 8)	<p><b>유럽 보험회사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발표 (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 결과, 2013년 말 기준 유럽의 대부분 보험회사가 솔벤시2에 부합하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 <li>· 저금리 환경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지급능력요구자본(SCR)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회사 비율이 확대되었는데, 유럽 경기회복세 지원과 저금리 지속이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EIOPA, FT 등)</p>
제312호 (12. 15)	<p><b>최근 강달러, 저유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아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 지속이 세계 경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li> <li>· 달러화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효과는 감소하며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li> <li>· 달러화 강세와 원자재 약세가 201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WSJ, FT 등)</p>
제312호 (12. 15)	<p><b>미국, 사이버 배상책임보험 산업의 과제 (김진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에서 사이버 리스크의 지속적 증가에도 보험을 통한 기업들의 사이버 리스크 관리가 취약하고 보험회사의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의 공급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li> <li>· 미국 보험시장에서 기업들이 적절한 사이버 배상책임 보험을 이용하지 못하고 보험회사들도 보다 보편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 요인으로 데이터 부족, 법률적 환경의 정비 부족, 사이버 보험의 효과성 논란 등이 지적되고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A.M.Best 등)</p>
제313호 (12. 22)	<p><b>2015년 중국 경제성장전망 및 경제정책방향과 시사점 (채원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안정적 성장을 강조하며 2015년 중국경제 5대 거시경제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인민은행은 2015년 경제성장률이 2014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여 중국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짐.</li> <li>·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실시는 세계 경제 및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인민은행, IMF, 국제금융센터 등)</p>

■ 글로벌 이슈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313호 (12. 22)	<p><b>영국 연금시장 소비자 조사 결과 및 시사점 (이해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금융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영국 연금소비자들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연금 관련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연금 관련 정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함.</li> <li>· FC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자 및 정부의 정보제공 정책 개선을 제시함.</li> <li>·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시행 시 연금의 수혜자인 연금소비자들의 의사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연금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임.</li> </ul> <p style="text-align: right;">(CIRC, PWC 등)</p>
제314호 (12. 29)	<p><b>미국의 퇴직연금 리스크 전가 현황 (최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년 미국의 퇴직연금 장수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국 푸르덴셜보험의 약진이 두드러짐.</li> <li>· 미국의 새로운 퇴직연금 사망표 적용으로 향후 퇴직연금의 장수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한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li> <li>· 미국 연금지급보증공사 보험료를 상승으로 퇴직연금 관련 리스크 전가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li> </ul> <p style="text-align: right;">(A.M.Best 등)</p>
제314호 (12. 29)	<p><b>인도 보험시장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이소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보험시장은 총수입보험료가 2000년 시장개방 이후 2010년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1년부터 규제강화의 영향으로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li> <li>· 최근 인도 정부는 보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외국인 투자방식 다양화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상공회의소(FICCI)는 향후 인도 보험시장의 외국자본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li> <li>· 인도 보험시장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보험회사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right;">(Swiss Re, IRDA, FICCI 등)</p>

---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 연구보고서

---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의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 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김석영, 김진익, 최원, 채원영, 이아름, 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김경환, 김미화 2014.12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 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 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 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 중심으로/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전성주,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김경환, 강민규, 이해랑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전용식,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오승연, 이상우, 최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김석영, 김세중,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전용식, 조영현, 채원영 2014.12

#### ■ 연차보고서

---

- 제1호 2008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2호 2009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3호 2010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4호 2011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5호 2012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6호 2013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7호 2014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 영문발간물

---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2013.7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황인창, 이해은 2014.10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4년 겨울호 (통권 72호)

---

발행일	2015년 1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3, 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